흉가(凶家)

그 집은 전 찻길에서 얼마쯤 들어간 골목 안에 있었다. 자동차 하나가 간신히 지날 정도 너비의 길이어서, 차가 지나노라면 길 가는 사람은 길갓집 추녀 밑으로 몸을 피하곤 하였다. 길 한쪽은 큰 병원의 뒷담이 되어 있어, 살풍경은 하되 오히려 구질거리는 것은 없었지만, 맞은편은 그리 탐날 것을 지닌 것 같지도 않은 짜임새면서 도적방지만은 철저하게 철조망을 둘러친 오밀조밀한 집들이 몇 채 걸러 구멍가게를 끼고 서 있었다.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런 속에 변변한 집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송영호는 운전수에게 큰길로 곧장 빠져나가라고 말하고 쿠션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우울했다. 가난한 살림때가 묻은 골목 안 풍경이 우울한 것이 아니고, 포로 수용소가 아니면 죄수들의 수감소 모양 겹겹이 쳐진 철조망이 우울했다. 그것은 부끄러움에 통하는 심정이었다.

사람은 약점에서 오히려 연대성(連帶性)을 가질 때가 많다. 그리고 괴로움이란 남을 물리치지만, 괴로움을 볼 때 친근감(親近感)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이 가난이 밴 골목에 그 철조망들만 없더라면, 조국이라는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 이상의 것'에 대한 심정 까닭에, 또 가난이란 죄가 아니고, 사람이 벗기고자 애쓰며 벗기지 못하고 있는 생활의 때[垢]이고 보니, 오히려 이곳에는 세월(歲月)이라는 귀중한 비용(費用)이 들어 있다고, 애틋하게 느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 그는 그저 한없이 우울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복덕방 영감이 당황하여 팔을 허위적거리듯이 저으며 한 채만 더 보고 가자고 말하였을 때도 전혀 관심이 일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못들은 척하고만 있었다.

전날 온 비로 흙이 씻기어 내린 탓인지, 유난히 많이 길에 박한 돌들이 뾰죽뾰죽 드러나, 차는 그만큼 덜컹거렸다. 거기다가 팬츠에 T셔츠 하나만 걸친 조무래기들이 메뚜기 떼처럼 뛰고 있어, 차를 몰고 온 것이 애당초 잘못만 같았다.

차가 어느 골목으로 꺾인 것은 복덕방 영감의 애원 까닭이 아니고 저쪽 길에서 지프차 하나가 이리로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 엇갈릴 수는 없는 길 너비고 보니, 저쪽에서 큰길로 되물러 가서 이쪽 길을 틔워 주든지, 아니면 같은 일을 이쪽에서 해야만 한다. 그런데 때마침 옆에 뚫린 골목 앞을 이쪽 차가 지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원골목에 붙은 꼬리처럼 옆으로 뚫려 있었으나 얼마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내 골목 너비 그대로를 크기로 한, 페인트 칠이 약간 벗겨진 하얀 문이 두 짝 막고 섰다. 문패는 없고 양쪽 문주(門柱) 위에 달린 형광등의 한쪽 튜브가 깨어져 있다.

복덕방 영감은 송영호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차 문을 열고 길 위로 뛰어내렸다. 이윽고 두 주먹으로 문짝을 두드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다.

"문 좀 열어 주시우. 문 좀 열어 주시우."

복덕방 영감은 몹시 마음이 바쁜 모양이다. 막걸리로 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지 문 두드리는 손이 더욱 바빠졌다.

"영감님, 그만두세요. 시간두 없구 난 가 봐야겠어요."

차 속에 앉은 채 송영호는 여전히 흥미 없는 어조다.

"자, 잠깐만…… 여기꺼지 오셨으니 쉬실 겸 보시구 갑시오."

복덕방 영감은 주먹을 더욱 바삐 문짝에다 부딪치며, 애원하듯 뒤를 돌아본다.

"아, 문 좀 빨리 못 열어 주겠수. 참 명 짧은 사람 발 디뎌 놓지 못허구 죽겠네."

후반은 욕지거리가 되는 것이 더욱 성가셔, 운전수를 채근하려 하는데 누군가가 문짝 저쪽에서

"누구슈?"

한다. 어조는 늙었는데 음성은 째르릉한 쇳소리다.

"저어기 노타리(로터리) 복덕방이요. 아니, 사람을 수문장인 줄 아우. 얼마를 두들겨야 열어 준다우."

복덕방은 연방 투덜대었으나, 저쪽은 서두르지 않고 문은 한참 만에야 서서히 열렸다.

송영호는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리려 했다. 그랬더니 복덕방 영감이 또 창황히 두 손을 저으며

"그대루 앉아 계십쇼. 그대루요. 차가 안으루 쑤우욱 들어갈 수 있다니깐요. 아주 큰길보다두 넓직합죠."

한다. 영감의 수다에는 어지간히 지쳐서 송영호는 그저 쓰게 웃기만 했다.

복덕방 영감의 말대로 차는 어렵지 않게 대문을 거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별 기대 없이 차창 밖을 내다본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차 문턱을 눌렀다.

고운 집이었다. 저만큼 쌍횟자를 아로새긴 나즈막한 담이 있고, 그 담을 뚫어 아담한 일각문(一角門)이 서 있다. 안채는 그리로 들어가야 있는 모양이고 눈에 보이는 건물은 사랑채인 것 같았다. 외지(外地)에서 낳아 자란 송영호는 한국 가옥의 규모를 모른다. 그러나 이 우아한 건물 앞에서 이제까지의 번거로움을 잠시 잊는 심정이었다.

안채는 얼마쯤인지 모르나 그리 굉장한 집은 아니면서 무게가 있다. 고른 개왓골의 흐름, 정연한 부연(附椽), 날아갈 듯 휘어 치켜진 추녀의 조화, 닫힌 채인 분합문의 완자(卍字) 문살, 그리고 누마루에 돌린 난간, 이런 것들이 웬지 음악(音樂)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댓돌에는 회색 자연석을 이어 깔았는데, 화강석 신돌에는 고무신 한 켤레 보이지 않았다.

정원은 시중에 이런 곳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넉넉하다. 누마루 바로 밑이 연못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분수 설비가 되어 있었으나 물은 솟지 않고, 연못 위에 비스듬히 뻗은 낮은 전나무 잎이 이끼 빛으로 곱다. 담 밑은 이끼 긴 돌로 싸올려 나무들을 심고, 가운데는 온통 푸른 잔딘데, 차가 들어간 쪽과 반대쪽으로 디딤돌이 동안을 띄어 줄을 짓고 중간쯤에 구름같이 피어 흐드러진 장미를 이고 활

모양의 문이 서 있다.

송영호는 차에서 내려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댓돌 밑에는 골라서 심은 듯 귀한 화초가 알맞게 서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이 집의 관리가 보통 이상으로 잘 되어 있는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거울 같은 연못물에 주름이 잡혔다. 그러자 거기 거꾸로 어렸던 집 그림자가 흔들렸다.

송영호는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이 건물의 음악성(音樂性)이 더욱 실감(實感)에 와 닿았던 것이다. 주름지는 연못 위에 흔들리는 집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니고, 집 자체가 가동적(可動的)인 것으로 이룩된 것 같은 착각을 주었다. 송영호는 어느덧 이 집의 알 수 없는 매력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안에 들어가 보실깝쇼? 안 정원이 기맥힙니다. 그리구 참, 문전이 좋지 않다군 허시지 마십쇼. 우리가 들어온 문은 뒷문입지요. 앞문은 저기……."

하며 복덕방 영감이 손으로 디딤돌이 끝나는 둘레를 가리켰다. 그러고 보니 큰 수양버들 가지가 늘어진 저쪽에 역시 하얀 문이 보인다.

"앞 문전은 아주 으젓합지요. 이 쪽에 차고가 있어서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지요."

영감은 송영호의 표정을 읽었는지 쉴 새 없이 주워 섬긴다.

"대지 육백 평에 건물이 아흔 아홉 칸…… 짜임새는 한식이지만 설비는 최신식입죠. 이 정원을 보십쇼. 이 댁 주인이 계실 땐 여기서 카텐 빠아디(가든 파티)두 허셨습죠. 이만한 집은 장안에두 드뭅니다. 변손, 아아 모두 수세식이구, 그리구 수난로(스팀)두 있습죠."

복덕방 영감이 이 집에 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다. 같은 말을 적어도 열 번 이상은 하였으리라.

송영호는 말 없이 서만 있었다. 양친은 하와이에 아직 남아 있고, 자신은 미혼이다. 호텔 방 하나만이라도 거처로 부족할 것은 없다. 그러나 '내 집'이라는 것이 없으면 고국에 돌아온 실감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고국땅에 발을 붙였다는 감격은 없고 낯선 땅의 호텔 어느 한 방에 여장(旅裝)을 잠시 푼 나그네의 심정으로, 어찌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러한 동기를 잊고 있었다. 이 집이 좀더 작아 실질적으로 자기에게는 합당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 집을 놓칠 생각은 없었으리라. 그리고 이 집이 더 커서 태반은 비워 둘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는 이 집을 손에 넣으려고 애썼을 것만 같았다.

"주인을 만나구 싶군요."

송영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복덕방 영감은 까닭 없이 손바닥을 비비며,

"흥정은 제가 붙이기루 돼 있습죠. 합당치 않으면 제가 어떻게 적당히……."
"그래두 좋지만 대체 주인은 무얼 허시는 분이죠?"
"그게, 저어 주인 양반은 지난 가을에 돌아가셨습죠."
"지금 주인 말입니다."
"저어, 아드님은 없으시구, 그리고 마나님두 사일구 직후에 돌아가시구. 지금은 노인 자당허구 아직 색시인 따님허구 주인 양반의 아우님허구 사촌 매씨가 이 집 식구입죠. 이 노인네가……."
그는 좀전에 문을 열어 주던 노인을 눈으로 가리키며
"시중을 들구 있습죠."
캉캉한 노인은 이쪽에는 참견 않고 정원의 풀을 뜯고 있었다.
"어떻게나 노인네가 극성스러운지 이 정원 가꾼 것 좀 보십쇼."
복덕방 영감은 흥정에는 관계 없는 말까지 늘어놓는다.
"그럼 흥정이 된다면 누구와 만나야 되나요?"
송영호는 다시 물었다.
"노인 자당은 너무 늙은신 데다 시속 일은 아무것두 모르시구. 따님은 아직 대학생입죠. 사촌 매씨 되시는 분이 두량을 허시는데."
"주인 양반의 계씨가 계시다면서요?"
복덕방은 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그 양반은 오래 병환중에 계셔서……."
하며 말끝을 흐린다.
송영호는 입을 다물고 또 한번 눈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볼수록 우아한 집이다. 넓은 집에 개도 치지 않는지 조용하기만 하다. 그리고 조용한 것이 어울리는 집이다. 음악을 느끼게 하는 건물—사람이 떠들어서야, 집 자체의 밀어(密語)는 묻혀 버릴 것이 아닌가. 그는 이 집에 살았던,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 관심도 가져지지 않았다.
그는 도로 차에 올랐다. 아까보다도 더욱 피로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성(性)의 도취 끝에 오는 것 같은 흐뭇한 피로였다.

복덕방이 한바탕 떠들고 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선영은 거실로 쓰고 있는 큰 사랑에서 '고야'의 화집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후 이 집 유일의 혈손으로 남은 선영은 여자지만 아버지가 쓰던 큰 사랑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미닫이가 소리 없이 열리며 당고모(堂姑母)인 방골 아주머니가 들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당질녀를 불렀다.

"선영아."

"네."

선영의 눈은 화집에 머문 채 심드렁한 대답이다.

"복덕방이 또 왔다 갔다."

"……."

"그 영감 막 협박조구나.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니깐 몰라서 그런 거지, 알구야 누가 말이라두 붙이게 하겠느냐, 막 땅땅대더라."

"……."

"흉가(凶家)라고 소문이 나서가 아니구 원체 우리에겐 좀 겨워. 사람이 집을 휘어야지, 집이 사람을 휘어 쓰겠니. 아버지께서 계시더라두 식구에 비해 집이 너무 컸어. 후—."

방골 아주머니는 땅이 꺼지게 한숨이었다.

"오래비나 살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막막했겠니. 아녀자만 셋 오롯이 남았으니, 세 알배기 쌍동밤 한 껍질 속에 쌓여 세상 모르듯, 그런 꼴이 되었구나."

"아주머니, 이젠 관두세요."

선영은 말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림장을 바삐 넘긴다.

"나는 자꾸 속구만 있는 것 같더라. 정말루 오빠께서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지, 공연히 우리가 천둥으로 아무것두 모르는 걸 알구 넘겨보구들 그러는지."

"글쎄, 고만두세요."

"아니, 어름어름해 둘 게 아냐. 오늘 이런 것이 왔단다."

방골 아주머니는 치마 허리에 끼워 넣어 두었던 봉투를 꺼내 선영 앞에 밀어 놓는다. 선영은 여전히 화집에 열중한 채이다.

"얘, 기맥힌 말 어린 네겐 허기 싫지만 어떡허니. 알아 두어야지. 꺼내 봐. 은행에서 온 경매 통고(競賣通告)란다."

선영은 봉투엔 손을 대지 않고, 그저 화집에만 시선을 꽂은 채이다. 다만 이제는 그림장을 넘기지 않고, 바른손 식지(食指)로 방바닥에 무의미한 선을 긋고 있었다.

"앞다리두 잡지 않구 집을 내놓긴 어렵지만, 그래두 작자가 있을 때 넘겨야지. 소문두 수상하게 나서 앞으루 쉬 그만한 작자가 나설 것 같지두 않으니……."

방골 아주머니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선영의 가냘픈 어깨가 보일락말락 떨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영은 이내 마음을 가눈 모양이다. 부산히 또 그림장을 넘긴다. 긴 속눈썹에 맺힌 이슬이 줄이 되어 흐를까, 약간 고개를 쳐든다.

방골 아주머니의 못생긴 얼굴에 복잡한 음영이 서렸다가 이내 가시고, 어조만이 걱정에 차서 말이 또 이어졌다.

"그런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미혼이라나. 식구가 한 사람도 없단다. 그저 재산으로 사 두는 모양이야. 가끔 손님 대접이나 허구."

방골 아주머니는 조카딸이 자기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은 다 해 두는 것이다. 듣든 안 듣든, 우선 의무감은 덜어야 되니깐.

"그래 특별히 앞다리를 잡을 때까지 안채를 써두 좋다는구나. 허기야 하인을 둔다 하더라두 사랑채만두 크지 뭐."

"싫어요!"

갑자기 얼굴을 들고 선영이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판잣집이라두 좋아. 새 주인허구 살긴 싫어!"

드디어 괴었던 눈물이 쏟아져 흘렀다. 방골 아주머니도 저고리 고름을 눈으로 갖다 댄다.

"네 심정 왜 모르겠니, 아가. 허지만, 저 노인허구, 저 너희 삼촌을 어떡허니."

"그분들 때문에 더욱 새 주인허구 잠시라두 있기 싫단 말예요. 아무데라두 좋아요. 아주머니, 오늘부터라두 집 보러 다녀 주세요. 전세라두 좋아요."

마구 앙탈이었다. 방골 아주머니는 감당키 어렵다는 얼굴로 말이 없다가,

"글쎄 오늘 하룻밤 서로 잘 생각해 보자꾸나. 당한 일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하며 일어선다.

당숙모가 나간 후 선영은 누마루로 나갔다.

저만큼 보이는 쌍횟자를 아로새긴 담장, 아담한 일각문, 그 주변에 핀 자목단, 그리고 죽순골 할아버지[그녀는 충실한 노복(老僕)을 이렇게 불렀다]가 늦가을이면 파서 방에 들여놓고, 봄이면 앞뜰에 내려 심는 서울서는 보기 드물 만큼 큰 몇 그루의 석류나무, 그 나뭇가지에 피기 시작한 진주홍색 석류꽃, 그런 것들에 새삼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결별(訣別)의 뜻을 안고 볼 때 그 고장 경치는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언젠가 읽은 글귀가 사무치게 실감되었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뜰이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석달 만에 단 하나인 이 집 아들 선영의 오빠가 등산 갔다 떨어져 죽은 후, 4·19 직후에 눈 녹 듯 눈을 감을 때까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인 정충휘 씨의 사업은 번창하고, 새로 딸 같은 후실도 얻어 기출(己出)인들 못 바라겠느냐고 아들 잃은 타격을 달랬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자 자유당에서도 유력한 의원이었던 그는 여러 가지 비위 행위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것이다. 어느 정도 혐의가 풀려 돌아온 것이 이듬해 봄이었는데, 일찍부터 숙환이었던 고혈압이 덧쳐 늦가을 어느 날 발작 끝에 한 마디의 유언도 없이 가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흉가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집 지은 사람은 어느 대지주였었는데 수만 석을 하는 그 지주의 부인이 이 집에 들자 반 년이 못 가서 자살을 한 것이다. 시앗을 보고 울화 끝에 양잿물을 들이켰다는 것이다. 그 지주 자신은 주색에 잠겼다가 아편 중독 환자가 되어 패가하고, 다음에 든 사람이 어느 방직 회사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집에 든 지 석달째에 공장에 불이 나서 소사자(燒死者)가 다섯 사람이나 되었다 한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불길한 역사를 지닌 집이다. 늙어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와, 아주 등신(모자라는)인 삼촌과 아무래도 마음의 피부를 맞부빌 수 없는 당고모와 버려진 것과 다름없이 남아, 죽고 싶은 날이 많게만 된 까닭은 이 집에 있단 말인가.

저주스러운 집, 몸서리 나는 집, 태워 없애 마땅한 집.

선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어렸다. 그는 가만히 마음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주와 불길한 운명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미워할 수 없는 집이었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 속 어딘가를 꽉 움켜 당기고 있는 집이었다. 꿈 많은 소녀 시절을 채워 주었던 탓인지, 몇 달을 두고 내려오는 어둡고 습습한 일상(日常)에도 집 탓을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서울에서는 드물게 석류나무를 크게 가꾼 것을 보고 '석류나무집'이라고 부른 친구가 있다.

선영은 이 이름이 좋았다. 정연한 부연 끝에 날아갈 듯이 휘어 치킨 처마, 난간이 둘러진 누마루 아래 석류나무는 싹틀 때 윤기 흐르는 자주빛 새싹이 좋고, 진주홍 꽃이 아담해 좋고, 가을이면 풍아(風雅)한 열매 모습이 좋았다. 죽순골 할아버지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몇 그루나 되는 나무를 모조리 캐내어, 실내 여기 저기에 놓았다. 석류는 가지에 달린 채 갈라져 둘레가 불그레 물든 하얀 씨알이 보였다.

지금 연못가와 누마루 아래에, 석류는 어느 해 초여름에도 그러하듯 아담한 진주홍빛 꽃을 달았다. 추위에 약해 겨울이면 극진히 보살펴야 하는 나무—그러고 보면 이 집엔 보살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팔십이 넘은 할머니가 그렇고, 온건하고 착하나 반편인 삼촌이 그렇고, 또 외딸로 귀염만 받고 자란 선영 자신이 그랬다. 귀염만 받고 자란 마음이 그랬던 것이다.

오월의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며 지난다. 뜰에서는 장미 문의 장미꽃 잎이 소리 없이 떨어져 푸른 잔디 위에 눈처럼 흩어졌다. 선영은 한숨을 쉬고 난간에 기대섰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클랙슨 소리가 나더니 대문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선영은 도전이나 당한 것처럼 난간에서 몸을 일으켜 보이지 않는 문 쪽을 노렸다. 아무도 문을 연 사람은 없는 모양으로 두들기는 소리는 한층 더 요란해졌다. 선영은 입술을 피가 번지도록 깨물었다.

아무도 열어 주면 안 돼, 무례한 사람들……. 그러나 문 두들기는 소리는 곧 멎었다.

이윽고 까맣게 칠한 승용차 한 대가 차고 옆으로 움직여 가고 있었다. 차가 머물고 차 속으로부터 사람들이 몇 사람 내려왔다. 무어라고 손짓을 하며 앞장선 한복 바지에 노타이 셔츠의 영감이 복덕방인 모양이었다. 그들은 정원 안으로 들어서서 연못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모여섰다.

선영은 난간에서 한 걸음 물러선 채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저 색시가 따님입죠."

복덕방 영감이 그답지 않게 소리를 죽여 송영호에게 속삭였다.

송영호는 복덕방 영감의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시선은 자석(磁石)에나 끌리듯 누마루 난간 앞에 서 있는 소녀에게 못박힌 채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난간 위에는 소복에 검은 머리를 어깨에 드리우고 적의(敵意)와 증오에 몸을 굳힌 소녀가 의연(毅然)히 서 있었다. 송영호는 일찍이 인간의 오만(傲慢)이라는 것이, 이처럼 단적으로 이처럼 풍부하게 이처럼 생생하게 표현된 것을 본 일이 없었다.

난간 위의 소녀는 마치 그 숱한 서까래의 어느 하나라도 빼어 낸다면, 이 아름다운 건물이 실질적으로 해체(解體)되어 버릴 것 같은 의구를 갖게 하듯, 이 소녀가 자취를 감춘다면 이 집의 모습이 아무 손상도 없으면서 바뀌어질 것만 같았다.

송영호는 소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압박을 느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석류나무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오늘은 일찌감치 쉬시죠. 내일은 좀 고되실테니"
하며 전 상무가 일어섰다. 합석했던 흥한광업측 사장과 중역도 허리를 굽힌 자세로 따라 일어선다.
"여덟 시 안으로 떠나셔야 될 겁니다."
전 상무가 다시 말을 잇는다.
"전 여덟 시 이십 분 전까지 이리로 오겠습니다."
그는 흥한광업 민 사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
"사장님은 어쩌시겠어요. 여기서 같이 떠나시는 게 어떠실까요."
"글쎄 전 아무래두 좋습니다. 지시대루 허겠어요."
잠자코 있던 송영호의 이마가 약간 흐려졌다. '지시'란 말이 웬지 신경에 와 닿았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충분히 익힌 국어였지만, 역시 이역(異域)에서 자란 탓인지 살아서 발랄하게 생동하는 말의 진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러나 이 경우 '지시'란 말을 입에 올린 민 사장의 비굴한 태도가 그에게 어느 확신을 주었다. 그는 마음으로 가만히 한숨 지었다. 허전했다. 귀국 이래 적지 않게 되풀이되는 허전한 감정이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는 고국이기에 몽매에도 잊지 않았던 땅이었는데, 돌아온 숙원(宿願)의 그 땅에서, 이역에서 그처럼 가깝고 그리웠던 사람들을 그는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었다.
핏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 서로의 유대(紐帶) 역시 피처럼 엉켜 끊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던 그였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는 어떤 저항(抵抗)을 느끼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은 역시 고국을 모르고 성장한 자신의 특이한 조건 때문일지도 모르겠으나,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 지나친 친절로, 혹은 아첨으로, 대로는 이질감(異質感)으로, 그와의 사이에 알 수 없는 위화감(違和感)을 서리게 하는 것이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투르기만 하여, 감정을 의지의 통제 아래에 누를 겨를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을 상대에 흡수시키기에는 포부가 커서, 얼떨떨하고 껄적지근하다. 그에게는 저도 모르게 언제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은 경계의 자세였으나, 거기에는 경계에 따르는 적의보다 오히려 시니컬한 방관성(傍觀性)이 더 컸다.
송영호는 지금도 역시 방관적인 태도로 잠잠히 서만 있다.
"그럼 민 사장님도 그 시간에 이리루 오시는 것이 제일 간단하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떠나시게요."
전 상무는 사무적으로 척척 처리하고 몸을 약간 비켜, 민 사장에게 길을 내어 주듯 하고, 자기는 한 걸음 그의 뒤로 물러섰다. 앞서게 된 민 사장은 대접을 받은 사람답지 않게 굽실거리며 자리를 밟고 문 쪽으로 걸어나간다. 전 상무는 송영호 쪽으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징검돌 위를 민 사장보다 서너 걸음 뒤지며 천천히 따라 나갔다.

송영호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그들을 배웅하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문득 마음 속을 건너가는 어느 상념 때문이었다.

아직 설흔둘,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지나 보낸 설흔한 해는 결국 그 준비였다고 보는데, 인생이란 삶을 사는 것이지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리라. 그는 요즘 웬지 피로를 느낄 때가 많았다. 익숙지 않은 대인 관계에서 오는 긴장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풀리어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늦추었다 당길 수도 있는 탄력성의 줄[紐]일 수도 있는데, 그 피로는 아주 의식 밑바닥에 밀착되어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 같은 것이다. 지금부터 할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본 뒤 같은 허전감…….

"위험한 망상이야."

송영호는 혼자 뇌고 저미듯 발길을 빨리했다.

연못 가까이 가자 이끼 낀 돌 옆에 피어 있는 석류꽃이 눈에 띄었다. 서쪽에 타는 노을을 받아 석류꽃은 산호처럼 곱게 윤이 흘렀다. 그리고 연못 속에는 땅 위보다 약간 어두운 색의 같은 꽃이 어른거리고 난간을 두른 누마루와 높은 추녀가 낮보다 더욱 깊숙이 잠겨 있었다.

송영호는 발을 멈추고 버릇처럼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고요하다. 꽤 깊고 넓은 못이건만 웬지 붕어 한 마리 보이지 않고, 그저 정연한 부연, 높이 치킨 추녀, 누마루 난간을 잠잠히 어리고 있을 뿐이다.

송영호는 까닭 없이 머리를 좌우로 젓고 그 옆을 떠났다. 다섯 벌 축대를 올라가 신돌 위에 올라섰다. 이윽고 완자 살이 박힌 분합문을 열려 했다.

그러다가 그는 저도 모르게 문틀에 대었던 손을 떼었다. 서쪽 하늘에는 아직도 노을이 타고 있고 그 노을을 받아 분합문 유리는 불을 켜 놓은 듯 밝다. 밝은 초여름의 저녁 속에 집안은 묻히어 있어 분합문 유리는 그대로 거울이었다. 어리는 얼굴은 역광(逆光)을 지고 그저 시커먼 육관으로만 어리어 있었던 것이다.

대단치 않은 일이었으나 그 순간은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시 댓돌을 내려와 좀전에 손님들과 앉아 있었던 장미 문 옆에 흰 페인트를 칠한 의자에 되돌아와 앉았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빼 물으며 쓴웃음이 번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 주일쯤 전 일이다.

"송 사장님 댁을 사셨다며 집들이두 안 허시깁니까?"

사무실로 찾아왔던 어느 광산주가 이야기 끝에 붙여 말하고 '집들이'의 의미를 모르는 송영호에게 설명을 해주곤 다음 일요일에 청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집들이' 잔치라기보다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한 번은 모여 볼 필요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전 상무에게 모든 준비는 맡기고 하루 저녁을 지내기로 하였다.

호기심에선지 혹은 어떤 기대에선지 손들은 불청객들까지 끼어 그날 저녁은 이 고요한 집이

왁자지껄하였었다.
 잔디 위에 여기저기 놓인 테이블에 가득 실린 갖가지 술로 얼근해진 손들을 준비가 된 식탁으로 인도하였는데, 몰려서 댓돌에 올라간 손들은 거기서 좀 붐볐던 것이다. 주인으로서 한옆에 서서, 손들이 풀려 들어가도록 기다리고 있던 송영호는 문득 한쪽으로 모인 분합 쪽으로 눈길이 갔다.
 그는 또렷치 않은 것을 애써 볼 때의 버릇으로 미간을 모으고 눈에 힘을 주었다. 서쪽 하늘에 노을이 타고 있어 그것을 받은 분합 유리는 그대로 거울이었다. 그 거울 속에 어린 군상들—고르지 않은 유리 면에 부닥치는 광선이 어릿어릿하는 까닭인지 모두의 모습이 조금씩 일그러져 있었다. 술에 풀리어 누구나가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거기 일그러져 어려 있는 그림자는 고르지 못한 유리 면에 부닥친 광선 까닭이 아니고, 거기 모인 군상들의 참모습을 우려낸 것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송영호는 어느 압도감이 덮쳐 오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알면서, 무슨 마성(魔性)같은 느낌을 넘어가는 햇살을 받은 집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시니컬한 방관자의 자세가 되어 버린 것은, 그리고 이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미신(迷信)같은 상념을 갖게 된 것은.
  어느덧 노을빛이 가시고 연보라 어둠이 짙어 가고 있었다. 송영호는 담배가 손끝을 그슬릴 정도로 타 들어가는 것도 잊고 집 쪽으로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집에는 불이 들어와 있었다. 저녁이면 사람이 있건 없건 그렇게 그 집에는 불이 방방마다 켜진다. 송영호 자신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이면서 그것이 그는 퍽이나 신비스러웠다.
 이 집으로 옮겨 온 지 보름 남짓, 집에 익어 버리기에는 날수가 적기도 하였지만 통 현실감이 나지 않는 생활이었다. 안채에는 옛 주인들이 그냥 남아 있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는 한 번도 그 집 식구들의 모습을 본 일이 없다. 언젠가의 그 소녀도 그 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집은 늘 비어 있으면서 사람의 손길을 느끼게 하였다. 어두우면 방방에 켜지는 불이 신기스러워, 이 집으로 옮기면서부터 두게 된 중년의 식모에게 물어 본즉
 "안댁 아주머니가 켜라셔서유"
하고, 그 안댁 아주머니의 명령이니 어찌 어기겠느냐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언젠가 초대받은 석상에서 권에 못 이겨 마신 술이 잘못되었는지 집에 들어서자 토한 일이 있었다. 상노 아이와 운전수가 머리를 식힌다, 등을 쓴다, 법석을 하는데 식모가 은반에 약기를 받쳐들고 들어왔다.
 "주체(酒滯)엔 독삼탕(獨蔘湯)이 제일이래유."
 귀찮아 내어맡기듯 받아 마신 것이 약이 되었는지 이튿날 그는 두통이 가셔졌다. 아무래도 민첩해 보이지는 않은 식모라 신기해 하며,
 "아주머니 때문에 살았구료."

치사를 하였더니

"안댁 아주머니가 대려다 주신 거래요"

한다. 그러고 보니 식모는 정직한 것만이 장점같이 보였다.

"안댁 아주머니?"

생각하니 번번히 '안댁 아주머니'다. 이때까지는 무심히 지나쳤지만 부쩍 궁금해져서

"안댁 아주머니 안댁 아주머니 하지만 대체 누구시란 말요?" 하고 물었다.

"아아니, 모르셨어유? 안댁에 계신 아주머니 말이에유. 노인 마님의 조카따님 말씀이에유."

그것도 모르느냐고 마구 내려 뇌는 식모의 태도가 우스워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좋아.'

속으로 그는 웃으며 이 좀 모자라는 식모가 맘에 들었다고 느꼈다.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상대와 대등선(對等線)에 놓을 수 있는 경지가 부러울 지경이라고 생각하며

"노인 마님은 또 누구시구?"

궁금하지도 않은 일을 물었다.

"노인 마님은 노인 마님이시지유. 돌아가신 이 댁 전 영감 마님의 어머님이시지유. 아, 글쎄 이런 말은 좀 황송한 말이지만두유. 그 마님이 먼저 가셔야 일이 제대루 되는 거였지유. 쯧쯧."

숱한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송명호 앞에 그녀는 덥석 주저앉는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유"

하며 쭉 뻗은 통무 같은 다리를 두어 번 쓸었다.

송영호는 웬지 그의 무례가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도 마음이 텁텁해지는 것을 느끼며

"신경통인가 부지"

하고 대꾸를 한다.

"산후 조리를 못했지 뭐예유. 훗배[後陳通] 아픈 건 부엌 바닥을 밟아야 낫는다구 허지 않겠어유."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없는 데로 말이 삐져나가 송영호는 그만 얼굴을 굳혔다. 식모는 눈치 없이 말을 늘어놓는다.

"근데 전 이 댁에서 자라났어유. 충주서 제일가는 댁이였었시유. 마님이 짝을 마춰 주셨는데 글쎄 시집살이가……."

송영호는 와락 화가 치밀었다.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

말끝이 날카로워졌다.

"예?"

"나 좀 자야겠수."

오늘로 식모를 갈아야겠다고 아까와는 달라진 마음으로 획 돌아누웠다.
식모는 부시시 몸을 일으켜 뒤뚱뒤뚱 나가는 모양이었다. 그는 머리맡의 벨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나갔던 식모가 다시 들어와
"부르셨어유?"
한다. 송영호는 맥이 탁 풀렸다. 화를 냈던 자신이 오히려 얼간이 같다고 생각하며
"아주머닌 누가 말해서 우리 집에 있수?"
하고 물었다.
"안댁 아주머니가 사람을 보내셨어유. 전 딸네집에 있었는디유. 사우가……."
송영호는 손을 저어 말을 막았다.
"좋아, 그만 나가 주."
식모가 나가자 그는 정말로 화가 나가 시작했다. 식모가 모자라서 못나게 군 까닭이 아니다. 독단으로 그런 식모를 데려다 놓은 '안댁 아주머니'가 괘씸했던 것이다.
자기 거처도 거처려니와 늙어 갈수록 고국을 사무치게 그리는 어머니의 언젠가는 이루어질 귀국을 위하여 산 집이었으나, 홀몸이고 보니 집이 감당키 어려워, 오히려 이쪽에서 원하여 있게 한 가족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치게 오만한 것 같다. 오만한 것은 성격이니 할 수 없달지라도, 남의 생활의 간섭은 허락할 수 없었다. 따져보아야 될 일이라고 그는 마음먹었다.
"당장!"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머리를 베개 위에 떨어뜨렸다. 귀찮아졌던 것이다.

무던히 지쳐 있었다. 충청북도에 있는 현장까지 세 시간 반, 왕복에만 일곱 시간이 걸리는 셈이라 그날로 돌아온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민 사장은 서둘러 돌아오게 하였다. 불편해서 현지에선 하룻밤도 묵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었으나, 송영호는 무슨 내막이 있는 것 같아 적이 불쾌했다. 불쾌한 여행이라 더욱 지루한 시간이었다. 여행이래야 결국 자신은 공간(空間)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時間)을 지우는 것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루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수은등(水銀燈) 밑에 파아랗게 깔린 자기 집 정원의 잔디를 보았을 때 그는 소생을 느꼈다. 여덟 시 반—긴 초여름 해도 완전히 저물고, 역시 방방마다 불이 곱게 들어와 있었다. 그것은 설레이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피로를 잊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식모가 뒤쫓아 방으로 들어왔다.
"목욕하시유."
송영호는 대답 않고 웃저고리를 벗어 던졌다. 식모는 그것을 주워 걸 생각도 않고 거듭
"대간(고단)허실텐데 목욕하시유"

한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이렇게 되면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식모는 날이 새도록 같은 말을 되풀이하리라. 송영호는 진작 쫓아내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성에 새삼 화를 내며 잔뜩 부은 얼굴로 목욕간으로 들어갔다.

향긋한 냄새가 목욕간 가득히 차 있었다. 수도꼭지를 비틀자 알맞게 데운 물이 쏟아진다. 역시 향기롭다. 물속에 깊숙이 몸을 잠그며 그는 향기에 취했다. 일찍이 맡아 보지 못한 싱그러운 향기였다. 약탕(藥湯)이란 말을 들었던 일이 상기되었다. 이것이 약탕일지도 모른다고 느끼자 이내 '안댁 아주머니'가 머리를 스쳤다. 그녀의 지시였으리라. 그러나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갑자기 일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긴 여잔지는 모르나, 그는 확실히 그녀와 교섭을 가진 일이 있다. 집을 매매할 때였다고 기억한다. 단 한 번도 맞서 본 일이 없는 것이다. 복덕방 영감을 사이에 두고, 둘은 많은 말과 흥정을 한 끝에 의견 합치를 보았던 것이다. 똑똑한 여자란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만만치 않으면서 경우가 밝고, 한 번도 대면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내외를 하면서 할 말은 도도하게 조리 있게 전했다.

어떠한 여자며, 이 집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향취 짙은 물 속에서 피로를 잊어 가며 그는 생각을 이어갔다.

이만한 큰 저택의 흥정을 독단으로 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 집의 중심 인물임에는 틀림없으나,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식모나 복덕방 영감이나 한결같이 이 집 안노인을 '마님'이라고 부른다. 죽었다는 주인은 '영감 마님'이고, 단지 혼자 남은 딸은 '작은아씨'이다. 그런데 이 실력자(實力者)의 호칭은 '아주머니'인 것이다. '안댁 아주머니'는 나이는 먹었으나, 아주 탁 트인 민주적인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혈연적으로 전연 관계가 없는 가정부(家庭婦)에 지나지 않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는 현재의 동거자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기가 우스웠다.

목욕간을 나왔을 때는 그의 기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다.

"이래서 저 반편 식모를 못 쫓아내구 있는가 봐."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는 그런 대로 나쁜 기분은 아니다. 저녁상을 들고 들어온 식모에게 농도 할 수 있다.

"아주머니, 굉장한 목욕물을 데워 놨더군요."

"아, 창포탕(菖蒲湯)말이유. 오늘은 오월 단오라구유. 안댁 아주머니가 데워 놓으라셔서유."

"창포탕?"

"창포를 물에 넣구 데웠단 말이유."

식모는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짐작한 대로 또 '안댁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는 웃음을 씹었다.

되도록 빨리 고국 생활에 익고 싶던 차라 생각하면 더도 없은 동거자를 얻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부터 송영호는 안채 사람들의 동정을 주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채는 빈 집처럼 조용했다. 쌍횟자를 아로새긴 꽃담으로 가리워진 저쪽에서는 어떤 생활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일각문은 항상 닫혀져 있어 사랑 정원을 언제나 말없이 손질하고 있는 죽순골 노인은 어디로 나온 것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안채 사람들은 그 문을 사용 않고, 뒷담에 낸 조그만 통용문을 쓰는 모양이었다.

송영호는 주책없는 식모의 두서없는 말을 추려 그들의 생활을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노망이 든 팔십 노부인과 아름다운 손녀, 오랜 병중에 있다는 삼촌, 그리고 '방골 아주머니'라고 불리우는 소녀의 당고모—그녀는 당당한 정씨댁 딸이며 죽은 주인의 사촌 누이라는 것이다. 죽은 주인이 남긴 것이라곤 별로 없다고 들은 것은 복덕방 영감으로부터인데, 모자라는 식모는 아직도 그들을 상전으로 아는 모양이고 송영호는 어쩌다 이 집 사랑채에 있게 된 식객쯤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안댁 아주머니'의 농간이리라고 짐작이 가면서 송영호는 분개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언젠가 난간에 기대섰던 소녀에 대하여 넌지시 물어 보려고 하였던 송영호는 그만 식모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소녀는 식모에게 있어 공주(公主)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무례하게 물으시는 게 아니유. 금지옥엽(金枝玉葉) 같은 작은아씨르을……."

아주 으젓이 꾸짖었으나 며칠이 지난 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작은아씨는 환쟁이가 되시는가베유. 그림만 밤낮 그리신대유"

하고 제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이리하여 송영호는 그 소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름이 선영(鮮英)이라는 것을 안 것은 우체함에 들어 있던 엽서 겉봉을 본 후였다.

처음엔 조용한 동거자가 대견했으나, 송영호는 날이 갈수록 안채 사람들과 섞이고 싶은 욕망이 커갔다. 자기에 대한 식모의 관점도 망발은 아니라고 느끼곤 쓴웃음을 지었다. 베푸는 쪽은 자기가 아니고, 식모의 생각대로 사랑에 묵으며 안채를 살피고 있는 식객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선뜻 안채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저편의 차도록 몸에 배어 버린 단정성 때문인지, 오랜 세월을 고국을 모르고 온 자신의 어떤 위축된 조심성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버릇없는 반편 식모의 시중(그 시중만은 험잡을 데가 없었다)을 받아 가며 조금씩 고국 생활에 잠기어 갔다.

장미 문의 장미가 온통 꽃잎을 떨어뜨리고, 정원수(庭園樹)가 우거져 갔다. 거리에 파라솔의 꽃이 피게 되고, 웃저고리를 벗어 버린 경장의 계절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송영호는 안채 사람들을 본 일이 없었다.

사업은 장해도 없지 않았으나 순조로운 편이어서, 그만큼 몸도 바빠 남의 일을 오래 두고 주무를

겨를도 없고 하여, 요즘은 같은 집에 그러한 동거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날이었다. 드문 일이었으나 송영호는 외출 않고 집에 있었다. 누마루 난간 옆에 의자를 끌어내 놓고 앉아 하와이의 양친으로부터 보내 온 편지랑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설흔둘이나 된 자기가 거기서는 아기 취급이 되고 있었다. 마마는 네가 그리워 센 머리가 늘었다. 이런 말이 달필로 씌어져, 글씨와 내용의 언밸런스가 우스웠다.

"그래, 어서 모셔 와야지."

그는 입 밖에 내어 뇌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모아 쥐었다. 하와이의 양친 집 뜰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자란 베스가 나란이 웃고 서 있다. 베스의 갈색 머리에 꽂힌 꽃은 ''하이비스커스'였다. 그리웠다. 송영호는 뜻하지 않게 강하게 솟은 향수에 스스로 얼떨해졌다. 하와이에서 그리던 고국 한국—그 그리던 땅에서 두고 온 땅을 그리는 심정—어느 쪽에도 거짓은 없었다. 한국은 좋든 그르든 조국이기에 그리웠던 것이고, 하와이는 나고 자라고 모든 흘러간 생활이 쌓인 고장이기에 그리운 것이다. 하나는 의지였고,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까닭 없이 숨을 한번 몰아쉬고 눈을 들었다. 순간 그는 무의식중에 난간을 누르고 일어섰다.

안채로 통하는 일각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셋 보였다. 한 사람은 이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죽순골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은 키가 큰 젊은 청년이었다. 등을 이쪽으로 보이고 있어 얼굴을 모르겠으나, 넓은 등판이 의지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려는 반백의 노인을 문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이었다.

노인은 허약해 보였으나 좀체로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허약해 보이는 대로 힘은 있어서인지, 혹은 상대방 사람들이 완력을 함부로 쓸 처지가 못 되어서인지, 오히려 두 사람을 밀치고 정원 안으로 나와 선다.

"내 의자는 어디 갔어, 응?"

가래가 걸린 음성이 들려 왔다.

"여긴 이제 선생님 댁이 아닙니다. 나오셔선 남의 댁에 들어오시는 것이 됩니다."

청년이 난처한 듯이 타이르듯 말했다.

"왜?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가 가꾼 정원이야. 내 의잔 어디 있어?"

노인은 손을 허위적거리며 무언가를 더듬는 눈치다.

송영호는 누마루를 두어 걸음 걸어가서 그쪽으로 소리를 쳤다.

"할아버지, 누구신지 들어오시겠다면 들어오셔서 쉬어 가시게 하세요."

숙준골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벼락에나 맞은 듯 놀라, 몸이 눈에 보이도록 떨렸다. 그는 절망적인 성실성이 어린 얼굴로 난간 쪽을 우러렀다.

"아니올시다. 몸이 좀 불편허신 분이시라 바깥엔 나가시지 마시라구 의사 선상님이 말씀을 헙셔서입지요."

처음, 대문 너머로 들었던 그 쇳소리가 아니고 떨리는 노인의 음성이었다. 송영호는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고 삼가는 마음이었다.

"여보시오. 이 정원은 내가 쉬는 곳이오. 날 쉬게 해 주시오."

노인이 송영호 쪽으로 애원하듯 손을 뻗는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양쪽에서 하나씩 노인의 팔을 끼고 일각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송영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이 들어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는 이상한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까닭은 몰랐으나 아무래도 그 노인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노인의 언동으로 미루어 다시없이 사랑했던 모양인 이 정원에 남몰래 나와 있었던 것을 본 일이 있다는 생각은 확신에 가까웠다.

'아니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그러면 어디서?

아무래도 생각은 나지 않았으나, 노인을 본 일이 있다는 생각은 확신에 가까웠다.

며칠이 지났다. 안채 사람들은 역시 소리 없이 숨을 죽이듯이 살고 있었다.

얼크러진 지도(地圖)

"왜 광산학을 전공하셨죠?"

전 상무가 지친 소리로 기계적으로 묻는다. 이번이 설흔 번째다. 그는 이제 응시자(應試者)의 얼굴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 나라의 자원을 발굴하여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설흔 번째 듣는 꼭같은 대답이다. 전 상무 옆자리에서 송영호는 혀끝으로 가만히 하품을 껐다. 갑자기 등살이 발라 온다. 그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비슷비슷한 경력, 거의 같은 태도, 판에 박은 대답, 싫증이 났다. 아무래도 좋다. 몇 사람 제비 뽑듯 추려도 그만일 성싶다. 그는 흥미를 잃고 책상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책상 위에는 입사(入社) 응시자의 명단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직 잉크 냄새가 풍기는 조간이 놓여 있다. 송영호의 시선은 명단을 건너 조간에 가 머물렀다. 신문은 삼면이 위로 가게 놓여 있다. 좀 떨어져 있지만 제목과 인물의 사진이 크다. '인간 문화재(人間文化財)'—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고아(高雅)한 노인이 책상다리 위에 부챗살 같은 것을 펴고 앉아 있다. 제목 이외의 글씨는 작아서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는 데다가 사진도 설명을 읽지 않고는 무엇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구태여 알고 싶지도 않았으나 그는 방심하듯이 노인의 사진에 시선을 꽂고 있었다. 그러자 지난날 안채로 통하는 일각문 앞에서 죽순골 노인과 청년 한 사람에게 저지당하면서도 정원으로 나오려고 애쓰던 노인이 눈에 떠올랐다. 백발이 성성한, 어딘지 정상인 같지 않으면서 이상한 기품을 가진 노인이었다.

'누굴까?'

송영호는 그날도 자기에게 물었듯이 지금도 고개를 기울였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노인—그러나 아무리 몰고 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본 사람인데…….'

마음 속으로 뇌고 스스로 싱거워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노인에게 구애하는지 알 수 없었다.

'보기는 어디서 봤겠어. 어리석게시리.'

어떤 경력을 가진 노인인지는 몰라도 난 지 삼십 년이 지나도록 고국땅을 밟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 있었던 사람을 본 일이 있다는 건 황당한 이야기다. 그 노인의 기품이 노인이라는 어떤 완성(完成)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까닭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그는 입 속으로 뇌었다. 언젠가 읽은 책에 쓰여졌던 구절을 상기했던 것이다.

사람은 처음 보는 풍경, 혹은 처음 보는 인물을 대하면서 그것이 과거 어느 때 보았던 것 같은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까지도 기억하는 것이다. 아무리 따져 보아도 그때가 처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기억에 모든 것들이 생생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人類)가 축적한 경험이 어느 순간, 의식의 틈을 타서 무의식 중에 기억의 형식으로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아마 의식의 이완 상태(弛緩狀態)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었다. 시각(視覺)이 포착한 영상은 처음에 이완된 의식 까닭에 놓쳐져서, 무의

식의 영역(領域) 속에 간직된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무의식의 저부(底部)에 가라앉기 전에, 일순(一瞬) 늦게 돌아온 의식이 그 꼬리를 잡아 밝은 데로 끌어낸다. 그 순간 무의식과 의식이 마주쳐, 사람들은 '아아, 전에도 같은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노인을 어디서 본 일이 있다고 생각한 것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어쩐지 떠름한 심정이다. 송영호는 그야말로 의식을 되찾아 신문의 노인 사진을 고쳐 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흠칫하고 놀라 눈을 들었다. 굵직하고 풍부한 저음이

"우재민올시다"

하고 윙—울렸기 때문이다.

완강하게 생긴 청년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다. 제대로의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까닭도 있겠지만, 청년은 송영호에게 '솟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시험관들 사이의 공기도 좀전과는 완연히 달라진 것 같았다. 노곤했던 방 공기가 신선한 바람을 불러들인 것처럼 한꺼번에 싹 가셨다.

"왜 하필이면 광산과를……."

판에 박은 물음을 되풀이하며 전 상무의 음성은 전에 없이 탄력 있게 들린다.

청년은 즉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난처한 물음을 받은 것처럼 어설픈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가 좀 송구한 듯한 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웃으니깐 송곳니가 옆의 이에 약간 포개져 보여 앳된 얼굴이 되었다.

"왜?"

전 상무가 재차 묻는다. 그때까지는 그저 잠자코 방관만 하고 있었으나 송영호는 그 이상 다른 일을 까다롭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청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송영호는 몸을 앞으로 약간 내어밀며 전 상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대답이 그의 말보다 먼저 나왔다.

"광산과는 제이지망(第二志望)이었어요. 화공과를 원했는데, 실력이 부족했죠."

그리고 밝은 얼굴로 돌아간다. 송영호는 더욱 청년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에에, 실력 부족이라. 허지만 대학 성적은 A학점이 아닌가."

전 상무가 굵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더듬어 읽고 난 후 고개를 들며 말한다.

"글쎄,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청년은 얼굴을 붉혔다.

"가족은, 에에 동생이 하나, 부모님은?"

"사변 때 돌아가셨죠."

"호오."

전 상무는 까닭 없이 책상 끝을 힘을 들여 누르며 윗눈질로 청년을 지켜보았다. 약간 망설이다가

"고학이군?"

"고학이라뇨?"

"아니, 실례가 되었나 보군. 그저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 자력으로 공부한 건 줄 알았지."

전 상무가 말을 얼버무렸다.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만 고학이라구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 공부라두…… 글쎄, 학교쯤 다녔다고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공부라두 했으니깐 괴로움을 삭일 수 있었어요. 일을 하니깐, 괴로운 것을 이겨 내니깐, 나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죠. 고학이 아니고, 글쎄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면 즐거움이고, 보람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에 다시 전 상무가 침묵을 깨뜨리고
"용하네, 사람은 제 하기 나름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도 결심만 잘한다면……"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이 계셨다 해두 저희 집은 옛날부터 무척 가난했으니깐 결국 같은 일을 했겠지만, 같은 일을 했어도 남들이 '고학'이라구 하지 않았겠죠."
말꼬리는 거운 입 속에서 지워졌다. 송영호는 그 어조에서 청년의 지난날을, 모든 외로움과 고달픔과 슬픔을 읽은 것 같았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엄숙한 표정이 대신했다.
전 상무도 한참은 말이 없다가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합격 여부는 엽서로 통지하겠소."
선언하듯 말하고 다시 한 번 이마 너머로 청년의 얼굴을 보았다.
청년은 몸을 고쳐 가지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체조의 한 자세처럼 뒤로 돌아, 확고한 보조로 걸어나갔다. 어딘지 군대식을 느끼게 하는 동작이었다.
"병역까지 치룬 모양이죠?"
옆에서 어느 간부 한 사람이 말을 건넸다.
"제대한 지 얼마되지 않나 봐요. 에에, 한 달 전이군요."
전 상무는 또 한 번 서류를 뒤적인 후
"좀 당돌하죠?"
하고 사장의 얼굴을 살피며 묻는다.
송영호는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부벼 끄고,
"난 저 청년으로 결정했소."
이윽고 자기에게 다짐하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곤 혼자 씨익 웃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역시 어디서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식의 이완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이라……'
입 속에서 뇌고
'하여튼 좀 이상해.'
마음으로 머리를 저었다.
키가 작달막한 다음 번 응시자(應試者)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히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골목 안에 들어서자 길가에서 제기차기를 하던 꼬마들이 와와 재민 앞으로 달려왔다.

"아저씨, 공식이가 아저씨넨 인제 이 동네 안 산다구 해요. 공갈이죠? 네?"
코 흘린 자국이 코밑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는 개구쟁이 하나가 재민의 웃저고리 자락을 붙들며 얼굴을 쳐다본다.
"왜?"
"아저씬 더 좋은 데루 이사 간다나."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구."
"그럼 안 가요?"
"물론이지."
"것바아."
개구쟁이는 득의만만한 얼굴로 동무 아이 얼굴을 건너다본다.
"공식이 자식, 공갈만 해."
"공식이 자식 공갈쟁이."
딴 놈들이 합창을 했다.
"아저씨, 또 돌 뵈 줘."
한 놈이 팔에 매달려 왔다.
"그래, 다음에."
아저씨는 웬지 풀이 없다.
"아니, 직금!"
"오늘은 바빠."
"그래애."
아이들은 불만스러운 듯이 재민을 쳐다보다가,
"야, 담은 누구 차례냐?"
큰 소리로 외치며 저쪽으로 달려갔다.
재민은 멈추었던 발길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웬지 우울했다. 자기가 큰 실수나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기어든다. 쾌활하고 소박한 성격인 만큼 그리 자주 가져 본 일이 없는 자기혐오였다. 좀전에 치룬 입사 시험 광경이 눈앞에 선하다. 속물(俗物)이라는 말을 인격화한다면 그런 타입밖에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태도나 물음이 속취(俗臭)에 가득 차 있던 그 시험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면, 집안 흉을 드러낸 것 같은 자신의 태도…….
재민은 발 끝에 걸리는 길가의 돌멩이를 화풀이나 하듯 힘껏 걷어찼다.
"어머나, 우 선생님! 왜 심술이 나셨어요?"
밝은 음성이 귓전에서 째앵 울렸다. 재민은 정신이 확 돌았다.
골목 안 막다른 집 대문 앞에 애자가 서 있었다. 자기가 세들고 있는 집 옆집 딸이다. 어머니와 단둘이서 외롭게 사는 명랑한 소녀다. E여대 미술과 삼학년이라고 들었다. 죽은 안집 딸하고 소학교 때부터 동창이라 하며, 친구가 죽은 후에도 곧잘 찾아와서 남은 어머니하고 놀다 간다. 그러다가

재민이네 방에까지 발이 뻗쳤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총각 형제가 형편없이 사는 재민네 살림을 거들어 주곤 한다.

그러나 그저 그뿐이다. 재민은 아무 관심도 그녀에게 가져 본 일이 없다. 다만 간간이 그녀의 눈으로 눈길이 간다. 까아만, 새파란 윤기가 돌 듯 맑은 눈이다. 편편한 코, 좀 큰 편인 입, 평범한 얼굴에 눈만이 딴 사람 것 모양 유달리 곱다. 그 눈은 누군가를 닮았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 누구가 생각되지 않아, 그만 생각을 치워 버린 지 오래였다. 그 눈이 반가움을 담고 활짝 열려 있었다.

'아! 선영의 눈!'

그는 하마터면 큰 소리로 외칠 뻔하였다. 그렇다. 그제야 생각이 났던 것이다. 종조부(從祖父)인 죽순골 할아버지가 아직도 있는 정판서 댁의 손녀 선영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었다.

선영—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버릇 받아 온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영의 영상과 더불어 자라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종이나 다름없는 소작인의 자식이면서, 아니 종이나 다름없는 사이였기에 외인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내실에까지 출입을 할 수 있었으며, 자주 접촉하였기 때문에 반발과 애착이 비중(比重)을 가릴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학대를 받아 본 일은 없다. 도시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 집에 있었을 때는 의식주의 고통을 몰랐다. 그 집을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그날로 생활의 고통을 져야 하는 것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아우를 데리고 그 집을 뛰쳐나왔던 것이다. 선영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롭다고 느꼈을 때부터 마음 먹었던 일을 실행했었을 뿐이라고, 그것도 의식의 까아만 밑바닥에서 외치면서…….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허구 기셨어요?"

애자가 그 눈을 치뜨며 묻는다. 재민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잠자코 눈을 길에 떨군 채 다시 발을 옮겼다.

경사(傾斜)

메모지에는 번지수만 적혀 있었다. XX동 44번지…….

재민은 눈을 부릅뜨고 종이 쪽지를 응시했다. XX동 44번지…… 그가 잘 알고 있는 '42'라는 호수는 붙어 있지 않았다. 그 집이 그 번지의 마지막 호수라 하더라도 44번지의 집은 마흔두 채 있을 것 아닌가? 맥이 풀리며 쓴웃음이 입가에 기어올랐다. 그는 포켓 속에 메모지 조각을 구겨 넣고 밖으로 나갔다.

익숙한 동네였다. 구구스럽게 호수를 따질 필요는 없었다. 문패가 붙어 있다니깐…….

거의 비어있는 한낮의 버스로 흔들려 가며 그는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로서는 기이한 체험이었다. 버스에서 앉아 본다는 것도 드문 일이거니와 앉아서 건너편 창 밖이 보인다는 것은 서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키가 큰 그는 서면 버스 창이 그의 허리가에 놓였다.

밖은 째앵한 날씨다. 연두에서 초록으로 옮겨 가고 있는 가로수 밑을 사람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가벼운 차림새들이다. 목적이 있어 걷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걷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전에는 낮길을 걷는 젊은이를 보면 모두가 실직자로만 보여,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갈 데 없이 쏘다니는 외로움들—옷을 스치고 다니면서 아무런 연대성(連帶性) 없는 군중들, 그 속에서 그는 무던히도 외로움을 씹어야만 했다. 붐비는 버스 속에 있으면서 벌판에 서 있는 느낌, 복작거리는 거리에서 실 끊어진 연 모양 공중에 떠 있는 허전함, 그런 것들이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군더더기가 없는 상쾌감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역시 불안했던 것이다. 버스가 한 번 크게 흔들린 후 어느 정류장에 가서 선다. 두어 사람이 내리고, 좀더 많은 사람이 탔다. 그러나 여전히 건너편 창 앞은 비어 있다. 재민의 시야는 창 밖까지 트인 채로 흔들린다.

끊임없는 사람의 물결—날씨 탓인지 오손도손 정다워 보인다. 제각기 걷고 있건만 모두 함께 몰려가는 느낌이다. 걷는다는 동일한 동작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식(意識)의 배경(背景)이 달라진 까닭인가?

'난 지독하게 단순한 놈인가 봐.'

재민은 속으로 뇌고 몸을 고쳐 앉혔다. 다리가 긴 그는 얕은 버스 좌석이 편편치 않다. 거북하게 앉으며, 거북하다는 것이 결국 산다는 실감(實感)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늘 무엇이든지 긍정하고 싶은 심경에 있었다.

차는 내리막길을 달려갔다. 초여름의 바람이 덜미를 씻고 흐른다. 저절로 눈이 감겨지는 맑은 도취 같은 것이 왔다.

"다음은 XX동, XX동 내리실 분은 잊어버리시는 것 없이……."

차장 소녀의 쉬어서 갈라진 소리에 재민은 정신이 돌았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일으키려는데 건너편 창 밖 보도를 걸어가는 한 쌍의 남녀가 보였다. 선영이었다. 차리만큼 기품 있는 옆 얼굴, 시선을 떨군 모습에 초조의 빛 같은 것이 느껴진 것은 자기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순식간에 망각에 어린 영상이었다. 차는 그녀가 걸어가고 있는 반대편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사람과 버스는 엇갈리고, 영상만 착각한 대로 남았다.

버스에서 내려 경사진 길을 오르면서 재민은 마음이 안으로 기어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맑은 날이라 빛과 그림자가 또렷했으나 한낮 가까운 햇볕 아래 그림자들은 모두 실체(實體) 밑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재민은 발 아래로 바싹 달라붙은 자신의 그림자를 짓밟듯 하며 발을 옮겼다.

그는 그런 선영을 본 일이 없었다. 부모의 죽음에도 슬픔보다 분노(憤怒)를 보인 선영이었다. 언제나 싸늘한 무관심(無關心)과 무표정, 그리고 분노나 무관심이나 무표정 같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은 꼿꼿한 긍지였던 것이다.

그 선영이가 힘없이 어깨를 내려뜨리고 시선을 떨구고 가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선영이에게 일찍이 보이지 않던 '여성(女性)'이 아프도록 느껴졌던 점이었다. 같이 걷던 사나이의 모습도 뒤쫓아 되살아 왔다. 선영이가 서 있는 쪽 손을 주머니에 꽂고 있었다. 선영이가 그의 손길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 애련한 모습에 비해, 사나이의 태도는 거만했다. 앞을 똑바로 보고, 옆의 사람을 의식지 않는 큰 가락의 걸음걸이는 재민의 눈에 불이 켜지도록 건방지게 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쥐었다. 질투보다도 분격이 앞섰던 것이다.

찌르릉 뒤에서 자전거 소리가 났다. 길을 비키려는데 자전거 뒤에서 따라오던 아낙네가 반가운 듯이 말을 건넨다.

"아니, 학생 아니유. 요즘은 통 안 보이시데유."

선영이네 사랑채에 든 사람 시중을 들고 있다는 아주머니였다. 장 흥정을 하고 가는 모양으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우리 댁에 가시는 거유?"

수다를 늘어놓지만 실상은 두 번밖에 만난 일이 없다. 얼떨한 얼굴이 되는데, 아주머니는 거푸

"죽순골 노인두 이젠 힘이 부쳐서유. 좀 자주 오슈"

한다. 그제야 재민은

"실은 오늘은 좀 바빠서 못 들리겠어요."

"아니,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식모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혀를 차면서 골목을 꼬부라졌다. 그의 모습이 사라진 후 재민은 포켓에 쑤셔 넣었던 메모 쪽지를 꺼내 보았다. XX동 44번지…….

눈을 들어 바로 앞에 있던 집 대문 위를 쳐다보았다. 44번지 5호. 그는 거기서부터 한 집씩 더듬어 가기로 했다. 구즈레한 골목길을 이리 꺾고 저리 들어갔다 되돌아 나오고 하는 중, 골목을 벗어나 선영이네 집 앞 대문 앞으로 나왔다. 주인의 죽음 이후 지름 길목에 있는 뒷대문만 사용한 까닭에 한 번도 와 보지 않았던 길이었다. 44번지 42호…….

그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흠칫 놀라 발길을 멈추었다. 분명히 송영호라는 문패가 보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뜻밖이었다. 사랑채 주인의 이야기는 입이 헤푼 식모의 입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컷 들었다. 그러나 식모의 말은 주인이 설흔이 넘은 기가 맥힌 부자이면서 아직 장개(장가)를 안 든 괴상한 사람이라는 둥, 또는 통 말이 없어 착한 사람인지 음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둥, 늙수그레한 점잖은 '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젊디젊은 주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게 굽실거린다는 따위였다.

사실 재민은 그간의 사정을 잘 모른다.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방골 아주머니가 재재하게 이야기를 할 리는 없고, 새침한 선영이, 노망난 노부인, 반편인 선영이 삼촌, 그리고 입에서 구린내가 날 정도로 잠자코만 있는 죽순골 할아버지—이런 사람들이고 보니 곡절을 알았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착잡한 심정에 그는 벨을 누르는 것이 망설여졌다. 한참 후에야 무슨 결심이나 하듯 돌기둥에 달린 단추를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식모 아주머니였다. 재민을 보자 이내 호들갑을 떤다.

"아아니, 누구시라구유. 오늘은 안 들리겠다더니 앞문으루 오셨구먼유."

재민은 대답 않고 정원으로 들어섰다.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집 모습, 한낮의 약간 바랜 듯한 하늘 아래 잔잔히 깔린 잔디, 피어 흐드러진 장미 문, 등가 아래 늘어져 핀 보라빛 등꽃송이들, 모든 것이 놓일 곳에 놓여져, 장미꽃 언저리를 날으는 나비들도, 등꽃 밑에서 윙윙거리는 꿀벌들도, 처음부터 조원사(造園師)의 설계 속에 꾸며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재민은 숨을 죽이고 정원 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파아란 잔디 위에 놓인 등의자에 백의의 노인이 유연히 앉아 있고, 그 옆에 시립(侍立)하듯 젊은 청년이 서 있었다. 그것은 완벽(完璧)한 화폭이었다. 두 사람을 다아 익히 알면서, 재민에게는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애초부터 세밀한 구성하에 거기 놓여진 조상같이만 보였다.

그러나 활인화(活人畵)의 구성은 곧 흐트러졌다. 식모 아주머니가 질자배기 깨어지는 소리로 "사장니임"을 연거푸 불러대었기 때문이다.

송영호는 고개를 돌려 재민을 보자 반가운 듯이 손짓을 했다. 재민은 시선을 두 사람에게 꽂은 채,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젊은 사장은 신입 사원의 손을 정답게 잡는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나온 치하에 재민은 얼떨떨해지며 전 상무에게 당부 받은 용무보다도, 우선 두 사람으로부터 외면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석류꽃을 보고 있는 노인에게 허리를 굽혔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얼굴에 의아의 빛이 서렸다.

"?"

그는 완전히 재민을 잊고 있는 것 같았다. 송영호가 놀란 듯이

"이분을 아시오?"

하고 묻는다.

"네."

"어떻게?"

"저의 먼저 주인이시니깐요. 제 종조부는 아직두 이 댁에 계시죠."

"아, 죽순골 노인……."

"네."

"그래애, 그럼 구면들이셨군."

송영호가 화안하게 웃는다. 짜장 반가운 얼굴이다.

"그래서 우 군을 어디서 본 것 같았군요. 입사 시험 때부터."

결코 의식의 장난이 아니었었어—송영호는 속으로 덧붙이고 유쾌해졌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여긴 이분의 뜰이니깐. 모두들 웬 까닭인지 이분이 여기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난 오늘 이분이 당신 자리를 찾으시는 데 협력을 해 드린 게지."

등의자 등에 손을 얹으며 송영호가 말했다. 노인은 흰 것이 섞인 숱한 눈썹을 약간 모은다.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찌푸린 것은, 곁에서 오가는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리쪼이는 햇볕 까닭인 모양이었다.

집에 있어야 할 일이 생겨서……. 이것이 결근의 이유였었는데 아침에 한소동 일어났던 것이 짐작되었다. 죽순골 할아버지도 이젠 힘에 부쳐서…… 하던 식모의 말이 되살아났다. 선영의 삼촌인 충권씨가 허약해 보이면서, 고집을 부릴 때는 힘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저번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었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마음을 돌리기나 하려는 듯이 빠른 말투로 전 상무의 말을 사장께 전했다.

"차가 공장에 들어가 있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송영호는 점심이 다 되었을 테니 같이 하고 가라고 권한다. 재민은 일초라도 빨리 이 자리를 비키고만 싶었다. 그리고 식은 머리로 여러 가지를 고쳐 보고 싶었다.

'내 일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구시렁거리면서 사절의 핑계를 찾으려는데 충권씨가 갑자기

"그래, 경빈이가 가라는 길로 가야 했던 거야"

하고 벌떡 일어섰다. 송영호는 적이 놀란 모양이었다. 얼떨결에 재민의 팔을 움켜잡았다.

"늘 하시는 말씀이지요."

재민은 부끄러운 짓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파란이 많은 반생이셨나 봐요."

"무엇을 하시던 분인데?"

"독립 운동자셨대요."

"호오,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 심한 고문으로 실성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 상실증?"

"그것두 있구요. 저두 알아보셨다가 몰라보셨다가 하시니깐요. 그저 치매(痴呆) 상태라구 해야겠지요."

"아무것두 기억 못 하시나요?"

"예외두 있지요."

조카딸인 선영이와 경빈이라는 친우인 듯한 이름과, 그리고 혜련이라는 여인의 이름과…….

그러나 재민은 웬지 그 말을 하기 싫었다.

"오늘은 이 노인 뫼시고 주식을 들려는 참인데."

송영호는 말끝을 흐렸다. 불안해진 모양이다.

"우군두 함께 합시다."

재민은 그들과 함께 있기로 마음먹었다.

"폐를 끼치겠습니다."

말하고 그는 가만히 노인의 뒤에 가 섰다. 송 사장은 만족한 듯 미소하고 노인의 앞자리에 가서 앉는다. 평범한 말이 오갔다.

"사회에 좀 익은 것 같아요?"

"글쎄요. 애초부터 거기서 붐비며 자랐으니깐요. 입사 후 오히려 거센 사회로부터 피신한 셈이 되죠."

"아니, 우리 회사에."

"아직 일 같은 것을 안 하구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말이 끊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볕이 따갑게 느껴진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거리를 찾으려고나 하는 것처럼 노인 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노인은 잠잠히 앉아 있었다. 깊이 패인 주름의

어느 하나에도 그의 심지의 곡선(曲線)을 더듬어 볼 수는 없었다. 순수하리만큼 무표정한 얼굴이다. 그러면서 어떤 중후함이 서려 있다. 무릇 인간적인 것을 다아 쓸어 내어 버린 모습—그러면서 그 폐허(廢墟) 같은 모습에 남아 있는 것은, 역시 인간적인 것을—어느 인생을, 감지케 하였다. 저도 모르게 송영호는 숨을 몰아쉬었다. 엄숙한 무엇에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다. 침묵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꽃 언저리에서 윙윙거리는 꿀벌 소리가 이제 시끄러울 지경이었다. 재민은 뿌리치고 가지 못한 자기의 심약(心弱)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우울한 심정에 좀전에 본 선영의 모습이 떠올라 왔다. 이 치매의 노인과 피로 이어진 선영, 그래서 이 노인을 대할 때마다 이처럼 가슴이 아픈지도 모른다.

갑자기 노인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다.

"앗, 혜련이! 위험해, 저리로 뛰어내려가. 내가, 내가 여기서 막을 테니."

노인은 허덕거리다가 털썩 주저앉는다. 송영호는 이번에는 짜장 놀란 모양이었다. 자신도 의자에서 일어서 있었다.

재민은 힘없이 변명하듯 뇌었다.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사실 노인의 신경은 뭉개진 대로 흥분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대개는 그저 온화한 '바보'였던 것이다.

"허지만 그저 그것뿐이에요. 처음엔 모두 놀라지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두 아니구—그저 본인이 뒤에 좀 지치시지요."

재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말대로 발작이 가라앉은 노인은 축 늘어져 의자등에 머리를 기댔다.

송영호는 좀처럼 경악에서 깨어 날 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혜련'이었기 때문이다. 여인의 이름으로 드문 이름은 아니었지만 돌연한 일이라 역시 섬찍했던 것이다.

그는 무서운 것이나 보는 것처럼 노인의 눈 감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대뇌의 기능을 잃은 치매의 그 얼굴에는 오히려 예지(叡智)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식모의 미련한 소리가 가까워 왔다.

"긴지(진지) 다 됐어유. 자시러 오시래유우."

얼룩진 풍경(風景)

광화문이 보이는 데까지 오도록 박창근은 말이 없었다. 그의 보조는 한결같이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았다. 자기 체구에 맞는 가락으로 자꾸만 걷는다. 옆의 사람을 전연 고려하지 않는 걸음이었다. 그래서 선영은 줄곧 걸음을 빨리해야만 했다. 언제나 창백한 얼굴이 상기되어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싱싱하게 보이게 했다.

창근은 광화문까지 가지 않고 못미쳐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길가에 머문 노점 수레 위에 빨간 딸기가 쌓여 있고 옆에는 역시 끌고 다니며 파는 얼음장수 앞에 조무래기들이 모여 아이스크림을 핥고 있었다. 선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옆엣사람을 전혀 무시한 채 큰 사락으로 걷고 있는 창근의 뒤를 따라 또 한 번 골목을 꼬부라졌다.

허술한 이층집이 나타났다. 굴같이 뚫린 입구에서 바로 직선으로 나무 계단이 이층으로 통해 있었다.

들어간 곳은 다방이었다. 기름을 바른 마루가 창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비닐로 싼 의자는 대부분이 스프링이 튀고 짚이 빠져나와 있었다. 커튼은 드리워져 있었으나 길에 면한 이층 창 가득히 광선이 들어와 다방 안은 더욱 구주주하게 보였다. 그래도 장사는 되는 모양으로 쓸쓸치는 않을 정도로 테이블은 차 있었다.

창근은 미리부터 앉을 자리를 맡아 놓은 것처럼 걸어 들어가던 걸음걸이를 그대로 옮겨 창가로 간다. 창문은 열려 있었건만, 그 자리는 담배 연기가 엷게 낀 안개같이 서려 있고 남자들이 세 사람 무언지 열심히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창근은 인사도 없이 네 개 마주 놓인 의자 중의 빈 자리에 가서 털석 앉았다. 그제야 한 사람이 고개를 돌려

"야, 널 기다리느라고 여태 앉아 있었던 건 아냐.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단 말야"

하고 담배를 부벼 끈다. 다른 두 사람은

"권위는 권위셔.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게 해보자구 30분이나 늦게 왔었는데"

하고, 하하 웃었다.

선영은 그 자리로 다가갈 용기가 없어졌다. 마음 같아서는 그만 쫓아 계단을 되내려가고 싶었으나 그런 기력도 없었다. 그런 자신을 비참하다고 느낄 여유도 돌아오지 않고, 그저 얼굴만 달아올랐다.

창근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흔히 젊은 사람이 동행한 여성을 소개하기 전에 보이는 계면쩍은 태도와는 다르다. 그것은 동행자를 무시하는 태도였다. 좀전에 웃었던 나이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 선영 쪽에 눈을 주지 않았다면 창근은 그녀를 잊고 말았을지도 몰랐다.

이리하여 선영은 거북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네 사람 사이의 오가는 말이 당외자(當外者)가 들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라서가 아니라 헛된 심심풀이가 한없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소일하는 데 끼어든 꼴이 되었던 것이다.

선영의 마음은 자꾸만 안으로 기어들었다. 창근을 원망하는 마음에 앞서 자신을 책하는 뉘우침이 컸다. 생각하면 창근은 한 마디도 같이 가자고 한 일이 없었고, 말없는 것은 동의(同意)의 뜻이라고 읽은 자기는 오히려 창근을 괴롭히고 있다는 미안감이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선영으로선 일찍이 가져 본 일이 없는 것이었다.

그늘졌던 창으로부터 조금씩 햇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쪽으로 난 창이어서 오후로 들어선 햇발은 각각으로 길어져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유월의 폭양 속에 있었다.

"아아, 덥다. 이젠 여름이 다 됐어."

한 친구가 노타이 셔츠의 가슴을 펄렁거리며 말하자 그것이 신호나 된 것처럼 모두들 일어섰다.

거리로 나오자 창근이 부드러운 소리로

"그럼 오늘은 안녕. 내 일간 찾아갈께"

하며 싱긋 웃었다. 이제는 가라는 말이었을지 모르나 선영은 이 한마디로 눈물이 핑 돌았다.

왔던 길을 역시 버스도 타지 않고 되돌아가며 선영은 그와 헤어진 후면 언제나 갖는 아쉬움을 이날도 가졌다. 언제부터 가지게 된 느낌인지는 몰라도 만나면 안타깝고 떨어져 있으면 못 견디는 이 아쉬움은 무엇인지 몰랐다. 그녀는 창근과 그리 말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죽은 오빠의 친우로 자주 드나들던 창근을 처음 본 것은 국민학교 때였다. 기껏해야

"오빠 있니?"

가 아니면

"야, 선영이 오랜만이야. 잠깐 새 커졌구나."

그리고

"선영이 몰라보게 이뻐졌구나"

쯤이었다. 그렇게 말하던 창근은 대학생이었다. 즉 말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선영이가 깜찍한 미소녀로 자라 농을 걸수조차 없는 새침데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면서 창근은 선영을 볼 수조차 없었다.

선영이 창근과 가까워진 것은 오빠가 죽은 후부터였다. 사변을 통해 창근은 변해 있었다. 변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옛날보다 변했다는 것인지, 애초에 위인이 남과 달라 있었다는 것인지 몰랐으나, 하여튼 선영이 가지고 있던 인상과는 다른 사람이 선영의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친우의 죽음에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슬픔을 보인 사람이 창근이었다. 그는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알뜰한 정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어딘지 좀 알 수 없는 데가 있었다. 알뜰하면서도 무척

무성의할 때가 많았다. 감정에만 얼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도 얼룩이 심했다. 집안이 기울면서부터는 각별한 친절을 보이는 사람은 무슨 속셈이 있나 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려는 사람에게는 분격과 경멸을 안게 된 선영이었건만 남이 보아 가장 불손하게 보이는 창근의 태도는 한 번도 따져 본 일이 없다. 스물두 살에 그녀는 이미 마음 한 구석이 나이 먹고 있었는지 모른다.

"40세의 여자가 남자에게 '여자'일 수 있는 것은 그 상대편 남자가 그녀가 스무 살 때를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비단 이런 미묘한 기미는 여자와 남자 사이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일지도 몰랐다.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격의없이 그 앞에서 자기일 수 있다고 선영이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실상은 그녀는 누구 앞에서보다도 창근 앞에서 비굴하리만큼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딘지 뻐근한 그런 감정은 오히려 그녀를 포근하게 싸 주는 것같이만 느껴졌던 것이다.

창근의 현재의 생활을 그녀는 외적(外的)으로도 내적(內的)으로도 잘 모른다. 처음 집에 왔을 때는 법과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시를 쓰고 있다고 들었었다. 법과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시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었던 나이이기도 하였지만 애초 관심이 없었다. 얼마 지나선 군복 차림으로 나타났었다. 군인답지 않게 앉으면 등뼈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것 같은 흐느적거리는 자세가 되어, 그것이 눈에 무척 거슬리기도 하고 이상도 하였다.

선영이 고등학교 삼학년이 되던 해 봄에 그는 군복을 벗고 왔다. 오랜만에 보건만 잊지 않고 꼬리를 치는 선영이네 개들과 잔디 위에서 그는 마구 까불어대었다. 군복 차림의 나른해 보이기만 하던 그는 군복을 벗은 그때 철사 같은 강인성(强靭性)이 보이는 몸놀림으로 무슨 체조나 하는 것처럼 마구 뛰었다. 이윽고 긴 혓바닥을 늘이고 핫핫거리는 개들과 어울려 자기 옆으로 왔던 그를 선영은 왜 무슨 까닭인지 오래 기억하고 있다. 땀 냄새가 확 끼쳤다. 강렬한 취기였다. 스팀 위에 모르고 오래 얹어 놓았던 가죽 장갑에서 나던 냄새 같다고 선영은 생각했다. 메슥메슥 구토가 느껴지면서 그는 코만 자극하지 않고 좀더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야릇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으나 그저 막연히 '징그럽다'고 느꼈다. 웬지 그가 불결하고 미웠다.

그 후 창근은 한참 동안 발을 끊었다. 알고 보니 발을 끊은 것이 아니고 선영이 쪽이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빠 집에 온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창근은 우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나 어머니는 '서글서글하고 우스운 소리 잘하는 명랑한 젊은이'라고 호감을 갖는 모양이었다. 일평생 집에만 갇혀 있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자극에 대하여 너무 순진하고 민감한 까닭에 대단치 않은 말까지도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선영은 어른들을 경멸했으나, 하여튼 이 심규(深閨)의 부인들 앞에서 제멋대로 지껄일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어느 정도 말주변도 좋고 너스레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은 했다. 능글 맞은 사람이라고 역시 불쾌한 인상을 버릴 수 없었지만.

이렇듯 창근은 언제나 선영의 눈이 그를 살필 수 있는 건너편에 서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강 같은 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距離)로 말미암은 원시적(遠視的)인 착각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심리적(心理的)인 강은 어쩌면 무릇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영원한 평행선—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비적(秘蹟)이 있는 것이다. 어느 신비로움에서 이 대안(對岸)은 순시에 접근하여 한 점으로 모인다. 같은 선에 서있는 동성(同性)사이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비적은 무릇 생물의 축제(祝祭)이며 근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릇 비적에 두려움과 아픔이 있듯이 누구나가 이 앞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모양이다.

선영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 괴로움, 아쉬움은 환경의 급변에서 오는 것이라는 선입주(先入主)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괴로움 때문에 환경의 급변에서 오는 타격은 오히려 둔해지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는 생각조차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속에 소중한 것이나 안고 있어서 빠른 동작으로 그것을 깨뜨릴까 저어하기나 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따가운 햇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욱한 느낌, 발만이 독립된 의지를 가진 거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옆을 스쳐 갔다. 모두들 목적이 있어 똑바로 걸어가는 것같이 보였다. 느릿느릿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걷는다는 동작을 취하면서 그 동작 자체에는 아무도 유의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선영의 눈은 줄곧 땅 위에만 떨구어져 있었다. 가로수 잎을 새는 햇살 때문에 나무 그림자는 포도 위에 표범의 껍질처럼 얼룩져 있다. 그림자는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나타났다. 선영의 추억의 풍경(風景)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한결같이 창근을 중심으로 돈다. 그렇게도 사랑해 주었던 오빠의 추억도 꼭 창근에 얽힌 것만 떠올라 오는 것이다.

그때 창근은 조그만 출판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늦가을인데 코트도 없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 눈이 쾡 뚫려 있었다. 격심한 고통을 치르고 있는 얼굴이었다.

오빠 방에 앉아 있던 선영은 처음 보는 얼굴만 같아 무섭다고 생각했다. 오빠가 물었다.

"어떻게 됐지?"

무슨 일인지 서로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창근은 대답 않고 볼룩한 윗막이 주머니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오빠의 얼굴은 갑자기 환해졌다.

"야, 나왔구나!"

창근은 역시 말없이 선 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다. 무관심한 태도로 보였으나 라이터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선영은 그의 흥분을 비로소 알았다.

그것이 그의 최초의 시집 <초극(超克)>이었다. 지금도 선영의 책꽂이에 소중하게 꽂혀 있다. 선영의

마음에도 언제나 꽂혀 있는 것이다.

—그늘에서 용기를 잃었던 식물들이 그 처참한 개화(開化)를 하는 것 같은 그리움과 행복이 있었다—

선영은 웬지 그의 어둡고 우울한 흥분을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창근은 오빠의 좋은 친구는 못 되는 모양이었다. 오빠는 그 때문에 적지 않게 속을 썩히기도 한 것 같았다. 시집이 나오던 다음 해 초겨울의 어느 날, 그는 역시 코트도 걸치지 않고 훌쩍 찾아왔다.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다.

시무룩하게 앉아만 있더니만 불쑥

"이만 환만 주어야겠는데"

한다. 선영의 앞이라선지 요구한 사람보다 더 거북해 하며 오빠는 언뜻은 대꾸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산부인과에 보내야겠어."

창근은 태연하게 이어 말했다. 무슨 의민지는 잘 몰랐으나 추한 것이 느껴져서 선영은 일어서서 오빠 방을 나왔다.

오빠는 끝내 그 일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의 사생활에 짐작이 가서 선영은 그가 야수(野獸)같이만 느껴졌다.

누군가가 어깨를 스치며 지난다. 선영은 환상에서 깨었다. 눈앞에 고갯길이 비스듬히 뻗어 있다. 오빠의 유체(遺體)가 앰뷸런스에 실리어 올라간 길이다. 앰뷸런스에는 아버지와 선영, 그리고 몇 사람인가의 수색 대원에 섞여 창근이 앉아 있었다. 며칠을 씻지 않은 때묻은 얼굴에 눈만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도 노여움의 빛이 더욱 짙었다. 그리고 선영의 가슴에도 슬픔보다 노여움이 더 불타고 있었다.

창근은 이튿날부터 심히 앓았다. 닷새에 걸친 유체 수색에 지쳐 있었기도 하였지만 바위에서 미끄러져 다친 상처가 말썽을 부렸던 것이다. 열에 뜨면서 오빠의 이름만을 헛소리로 부르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부터 그는 선영의 가슴 속에서 딴 사람이 되었다.

요즘도 그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선영은 잘 모른다. 산부인과로 처리가 되었는지 여자의 이야기도 들은 일이 없다. 남들이 품행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지만 자기에게는 덤덤하리만큼 그저 점잖기만 하다. 어쩌면 이 안타까움은 그런 그의 태도에 대한 불안감일지도 모른다. 차갑고 고상하고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고—그래서 자기는 여자일 수 없다는 것인가.

생각이 여기 미치자 그는 스스로 흠칫 놀랐다. 마치 마음 속이 가시물(可視物)이어서 남에게 엿보임을 당한 거나처럼 당황했던 것이다.

선영은 떨구었던 눈을 들었다. 고갯길을 누군가가 이리로 내려오고 있었다. 눈익은 얼굴이다.

그러면서도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새침하게 굳어졌다. 비치듯이 맑은 살결, 깊은 눈빛, 곧은 콧날 아래 꼭 다물어진 입술—그것은 그대로 하나의 완성, 하나의 끝을 느끼게 하는 얼굴이었다. 고갯길을 이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선영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재민은 오늘 따라 어떤 변화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고 느꼈다. 전체의 선이 어딘지 허물어져 보였다. 단정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느낌이…….

그들은 고갯길 복판쯤에서 마주쳤다.

"댁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낮은 소리로 말을 건넨다.

"아."

선영은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말쑥한 차림새로 변한 재민은 허술한 차림새 때와 같은 겸손한 표정으로

"적조허구 있었습니다."

평범한 인사말밖에 못하고 머뭇거린다.

"뭘……."

선영의 태도는 여전히 차다.

재민은 나쁜 짓이나 한 것 같은 얼굴로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좀전보다 좀더 빠른 걸음으로 비탈진 길을 걸어 내려갔다. 뒤를 선영의 눈이 쫓아오는 것 같았다. 오늘따라 달라 보이던 눈이……, 다른 어디선가에서 본 일이 있는 것 같은 눈이…….

투영(投影)

유월 오후의 태양은 강렬하였다. 고른 잔디 위에 마구 쏟아지며 하아얀 불꽃을 일으킨다.

송영호는 식후의 느른함 속에 몸을 풀어 놓은 채 등가(藤架) 밑 흰 페인트를 칠한 정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등으로 만든 카우취[寢椅子] 위에 정 노인이 길게 누워 눈을 감고 있다. 새하얀 옥양목 고의 적삼은 그의 여윈 몸에는 너무 품이 넉넉하여 수의(壽衣) 같은 느낌을 주었다. 단정한 얼굴은 초여름 온기에도 싸늘하게 희기만 하여 생명이 통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습은 시체로 보이지는 않고 잔해(殘骸)라는 말이 더욱 적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다. 여러 번 이 노인에게서 느꼈던 것이지만 이때 역시 송영호는 갚은 감명과 평화라기에는 좀 아픈 것이 섞이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가 버린 것인지, 혹은 버림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나 인생은 그에게서 가버리고 잔해만 남아 오히려 더욱 인생을 느끼게 하는 모습으로 노인은 고요히 눈을 감고 있다. 가고 만 날들을 아쉬워하는 회포도 오늘이 행위(行爲)해야 할 초조도,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도 불안도 없이…….

모든 것이 고요했다. 두 사람 위는 꽃송이를 내려 피는 등꽃들로 온통 꽃 천정이 드리워지고 꽃을 찾는 나비들과 벌떼들은 부산했으나 그런 날벌레의 섬세한 날개의 움직임은 오히려 고요를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다. 정적은 강렬한 햇빛 아래 응고되어 만지면 손에 닫는 물체(物體)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송영호는 좀전에 신입 사원 우재민에게 말했듯 이날 오후를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향의 태양 못지않게 타면서 그곳처럼 색채적이 아니고 오히려 하얀 해[白日]를 느끼는 것은 웬 까닭인가. 지대(地帶)의 차이인가, 지형의 차이인가,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의 감성의 차이인가.

방심 상태에서 막연히 두서 없는 상념을 쫓고 있던 송영호는 갑자기 응고되었던 정적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무슨 큰 음향이라든가 야단스러운 동작이 보여서가 아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둘레의 정적은 확실히 깨어지고 있었다. 그는 놀라 눈을 들었다.

저만치 안으로 통하는 일각문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런 데에는 주의(注意)가 떨어져 있었다. 무척 작게 보였다. 그리고 남이 작게 보인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심정이 상대보다 우위(優位)를 의식 속에 잠재시키는 경우라 송영호는 소녀를 애처롭다고 느꼈던 것이다.

강렬한 햇빛 아래건만 소녀의 윤곽은 또렷지 않다. 그저 아련히 슬플 정도로 아름답다고 느꼈다. 봄날 멀리 피는 꽃처럼 형태를 확실치 않으면서 정감(情感)만 가슴에 스며드는 꽃 모습—그런 느낌이었다.

일순에 지나간 상념이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집을 보러 오던 날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못한 그 누마루 난간 위의 소녀였다.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

무슨 말인가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소녀는 일고(一考)도 않고, 아니 그를 의식조차 하는 것 같지 않은 태도로 똑바로 노인 옆에 가 섰다. 낮으나 잘 울리는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단호한 명령조이다. 애처로운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송영호는 어리둥절했다. 유해(遺骸) 같은 삼촌의 장엄해 보이기까지 하는 무게에 비해 소녀는 하얀 나비처럼 가벼워 보인다.

"일어나세요!"

소녀가 되풀이했다. 노인은 눈을 떴다.

연보라빛 꽃 천정 밑에 떠 있는 소녀의 얼굴을 보자,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열 같은 것이 떠오른다.

"어……, 혜련……."

소녀가 세 번째 야무지게 말을 던졌다.

"일어나세요."

노인은 인형극의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몸을 일으킨다. 조카딸의 얼굴에 시선을 못박은 채 그는 불안정한 자세로 섰다. 소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걸으세요."

노인은 위태위태하게 한 발을 떼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노인을 부축하려 들지도 않았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묘한 연극이었다. 송영호는 이제 이 소녀에게 처음 보았을 때 같은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 한껏 버티는, 그녀로서는 필사적인 자존심이 귀엽다고 느꼈다. 갑자기 둘레가 새로운 색채로 채색되어 가는 것 같았다. 여태껏 식객(食客)같이만 느껴지던 자기의 위치가 이제 주인으로서의 본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을 저도 모르게 느끼자, 그는 두 사람 속에 끼여들었다.

"가기 싫어하시는데 더 노시다 가시게 하시죠."

선영은 고개를 쳐들고 송용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타고 있는 눈빛이다. 그러나 고개를 쳐든 것은 그의 키가 커서 쳐다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높이를 보이려고 한 것이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녀는 한참을 꼼짝도 않고 상대를 쏘아보았다. 눈 속에 타고 있는 것은 꺾인 자존심의 상처와 증오, 그런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했겠으나, 송영호는 긴 속눈썹에 그늘진 맑은 눈에 그저 애상(哀傷)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가 머뭇거린 것은 선영의 준열한 힐난의 눈초리 때문이 아니고, 그 노여움의 무력함이 애달퍼서였다. 그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끌려가는 석상과 그 옆을 따르는 소녀—그것은 희랍의 신화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 같은 장면이었다.

비극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진부하리라. 뒤를 애써 캘 것도 없이, 그 모습들은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 같았다.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등가 가까운 연못의 물이 바람도 없는데 잔주름을 잡는다. 붕어들이 튄 것이리라. 제법 탱자만큼 커진 석류알들이 물주름에 일그러졌다. 송영호는 긴 한숨을 쉰 것을 저도 모르고 있었다.

송영호가 집 속으로 들어간 것은 황혼 무렵이었다.

"긴지(진지) 잡수시유. 긴지 식어유."

식모 아주머니가 질자배기 깨지는 소리로 외치지 않았던들 그는 좀더 확고한 종말을 알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어느덧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잔디가 파아랗게 깔려 있는 정원이었다. 연못이 있고, 장미문이 있고, 등가가 있고, 바로 이 집인 모양이었다. 그는 누마루 난간에 기대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뜰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서둘러야지."

누군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서둘르지 않아두 석류가 익을 무렵이면 오실걸."

"참 그래."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누가?"

대답이 없었다.

"누가?"

그는 메아리처럼 같은 말을 물었다.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다.

"주인이, 이 집 주인이……."

"주인은 나야."

"아냐, 이 집 주인은 따로 있어."

"무례한 소리를. 주인은 나야."

"하하……."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는 화가 나서 몸을 솟구쳐 웃음소리 나는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뜰 아래 선 석류나무에 매어달린 숱한 석류알들이 일제히 입을 벌렸다. 하얀 이빨 같은 석류씨가 드러났다. 석류알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던 것이다.

"주인은 저기……."

그러나 송영호는 가리키는 곳을 돌아볼 사이가 없었다. 질자배기 깨어지는 소리 같은 식모 아주머니 소리에 낮잠이 깨었던 것이다. 어쩌면 '주인은 저기……' 하던 소리는 잠이 깨면서 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오싹 오한이 났다. 그는 꾼 꿈에서부터 되도록 빨리 달아나려고나 하듯 잽싸게 몸을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다. 언제나처럼 빈 방에까지 불이 켜저 있었건만 이 날따라 집 속이 어둡게 느껴진다. 상을 받고 앉고서도 식욕이 동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방이 어두워."

그는 불쑥 말하고 이내 후회했다. 이 수다쟁이 식모한테 말을 거는 날이면 골치가 아플 정도로 된 말 안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어김없이 식모는 신이 난 모양이다.

"혼자시라 그러시유. 아 참, 멋때매 혼자 계시는 거유. 불의악처(不義惡妻)라두 소자[孝子] 자식보다 낫다지 않아유. 사람은 반씩밖에 제 빛을 갖지 못허구유, 또 제 열두 못 갖는 게에유. 그러니께 이렇게 밝은 방이 어둡게 생각키구, 따슨 방이 춥기만 하는 게유. 과부되어 젤 견듸기(견디기) 어려운 건 어둡구 치운 방이라니깐유."

송영호는 찌푸린 채 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밥알이 모래알만 같았다. 몇 술을 뜨지 않고 그는 말없이 식탁 앞에서 일어섰다. 식모는 하던 말을 다 못하고 쯧쯧 혀를 차며,

"방골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유, 찬맛이…… 저는 통 솜씨가 없어서 탈이예유."

식모 입에서 방골 아주머니란 말을 듣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으면서 그는 아직 그 방골 아주머니라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어떤 여인인지 모르나 무척 총명하고 남자 못지않은 결단력과 의지를 가졌으리라는 것은 집 흥정 때 벌써 안 일이지만 대가풍의 범절과 솜씨 같은 것도 넉넉히 짐작이 간다. 그러면서 신비스럽다거나 그윽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고 어딘지 흉흉하고 불길한 사람같이만 느껴지는 것은 웬 까닭인지 몰랐다.

외국에서 자란 까닭으로 오히려 모국 풍습이 생소한 탓이라고 새겨왔는데, 이 날만큼은 그 방골 아주머니라는 사람이 무슨 음모가같이만 느껴져 불쾌했다. 꿈속에서 들은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이 되살아와 귓전에 울렸다.

"은은하게나마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굴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가 주인처럼 들어앉아 버린 것인지 모르지."

송영호는 입 속에서 중얼거렸다. '따로 있다'는 그 주인이 방골 아주머니였다고는 듣지 않았지만 꿈을 끝까지 꾸었다면 꿈속의 자기는 '저기'를 돌아보았을 것이고, '저기'에 방골 아주머니라는 여인이 서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확신(確信)이었다.

다음날부터 송영호는 또 사업에 골몰하게 되었다. 흥한광업뿐 아니고 또 다른 몇몇의

소광주(小鑛主)들이 참가하여 송영호의 사업은 부푼 것이 되지만, 또 그만큼 복잡하고 투기성도 띠게 되었다. 자신도 광산과를 전공한 것이 그래도 이 투기성을 위태로움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였으나, 금욕 물욕에 들뜬 이 소광주들이 '국가 자원 개발'이니 '광업 진흥으로 경제 재건'이니 하고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데 머리가 저어해졌다. 그는 귀국 초보다 우울해지고 그만큼 무거움도 갖게 되었다.

여름이 되어도 그는 산에도 바다에도 못 가고 있었다. 전 상무가 잠깐이라도 더위를 피해 바다에라도 갔다 오라고 권했으나 그는 대꾸가 없었다. 가을에는 양친을 귀국케 하고 국내를 돌 생각이었으나 남에게 그런 말을 미리 하기도 싫었던 것이다.

그는 일이 끝나면 곧장 석류나무집으로 돌아와 호젓이 시간을 보냈다.

"우리 댁 주인님은 만날 누군갈 지다리고(기다리고) 있는 것 같당께, 만날……."

식모가 죽순골 할아버지한테 한 말이었다. 식모의 말을 송영호가 들었다면 그는 씁쓸히 웃고 속이 텅 빈 식모도 때로는 통찰력을 가지는 모양이라고 혼자 뇌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기다리는 자세였지만 그는 그것을 의식 못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의 동의어(同義語)일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단순히 내일만이라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니깐.

하여튼 그의 일상(日常)은 우선 평온하였다. 지루하게 단조하였지만 사업이란 맹렬한 생산 내지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밸런스 된 생활일지도 몰랐다.

선영은 물론 정 노인도 그 후 그는 보지 못했고 죽순골 할아버지는 말을 잃은 사람 모양 그저 일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들고 온 식모 눈이 몹시 부어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아주머니, 눈이 왜 그렇게……."

말도 마치기 전에 식모가 울음을 터뜨렸다.

"안댁 노마냄이, 노마냄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언제?"

"오늘 낮에."

식모는 소리를 내어 울며 넋두리를 시작했다. 어느 바람이 들이치느냐던 댁의 옥골 같은 마냄이 임종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가시다니……. 이런 되풀이였었는데 알아본즉 선영은 학교에 가고 없었고, 방골 아주머니는 찬거리 사러 배우개(동대문 시장) 장에 가고, 작은 아드님인 정 노인은 뒤뜰에서 언제나처럼 넋잃고 앉아 있는 사이에 운명을 한 모양이라는 것이었다. 방골 아주머니는 장 흥정을 해 돌아와서도 즉시로는 노부인 방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숨이 진 것은 어느 때라고 할 수도 없으나 하여튼 사람이 알았을 때는 싸늘하게 굳어 있더라는 것이다.

방골 아주머니가 주인님한테는 알리지 말라 했지만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질 때까지 아껴 준 노인의 죽음이 섧다고 식모는 펑펑 울었다. 송영호는 노여움 같은 것이 자꾸만 솟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귀를 기울여 보아도 곡성도 들리지 않는 집은 고요만 하고 그 고요 속에 그는 이 집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증오를 또렷이 느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는 증오인지 그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과 자기의 관계란 그저 매매자(賣買者)에 불과하다. 판다기에 산 것이고 강매(强買)를 한 것도, 또 횡령을 한 것도 아니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후리쳐 깎아 산 것도 아니다. 원래는 흥정이 끝난 후 판 사람이 집을 내놓고 산 사람이 집들이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관계였었다. 안채에 그냥 살게 한 것은 집이 큰 까닭이었고, 또 귀국 후의 정주(定住) 여부는 아직 미정이나 가을에는 양친들이 돌아올 예정이어서 번거로운 대차(貸借) 관계를 맺기는 싫고 해서였다. 약간의 선의(善意)는 있었으되 사갈시(蛇蝎視)당할 이유는 없다. 썩은 봉건 사상에 뼈까지 썩어 버린 사람들의 이유 없는 우월감과 자존심—그런 것이 구역질났다.

그는 난폭하게 냅킨을 벗어 식탁에 던지고 말했다.

"아주머니, 안으루는 이 문으로 가우?"

의식하지 않았지만 큰소리였던 모양이다. 식모는 움찔하고 울음을 그쳤다.

"안으루 들어가는 문 말이요."

그는 거듭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 바람에

'방골 아주머니가 알리지 마라셨는데'

하려던 식모는 말을 삼키고 앞장을 섰다.

안채는 사랑채의 두 배쯤은 컸다. 밤이면 빈 방에까지 불이 들어오는 사랑채와는 달리 초상이 났건만 몇 방을 빼놓고는 어두움에 묻혀있다.

무엇인가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송영호는 몸을 굽히며 웬지 꿈속의 그 소리같이 자기는 절대로 이 집의 '주인'은 될 수 없다고 느꼈다.

아무도 그가 들어간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대체로 초상집이라기보다 초상을 치르고 난 집 같았다. 주검은 없고 죽음만이 남은 집, 그런 느낌이었다.

육 칸쯤 되는 대청에는 그래도 자리가 깔리고 그 위에 정충권씨의 석상 같은 모습이 앉아 있었다. 천정에 달린 샹들리에에는 모조리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것은 전깃불처럼 휘황하지 않고 촛불같이 어둠침침했다.

그것은 기이한 광경이었다. 둘러친 병풍 열곡이 유명(幽明) 접경이라면, 밝음이 어두움 양편에 주검이 하나씩 마주보고 있는 것이었다. 숨이 끊어진 주검과, 숨쉬고 있는 주검과—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것은 숨쉬는 아들이 아니고, 아주 숨이 끊어진 어머니가 아닐까 싶었다.

송영호의 가슴에서 노여움이 사라지고 깊은 측은의 정이 솟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열려 있었으나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던 안방에서 어느 부인이 나와 의아한 듯 고개를 기울여 이쪽을 살핀다. 송영호는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발을 옮겼다.

"실례인 줄 알며 조상드리러 왔습니다."

불빛을 등에 진 부인의 얼굴은 온통 그늘뿐이었으나 그는 이 여인이 방골 아주머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랑채의 송영호입니다. 얼마나……."

그의 어휘에는 아직 '망극'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는 조상에 대한 우리 풍속을 몰랐다. 모자라는 말을 보충하듯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상상과는 달리 방골 아주머니는 여장부형은 아니었다. 중키에 삽삽한 인상을 주는 태도였다.

"고맙습니다. 빌려 든 댁에서 상사가 나서 그저 송구해서. 실은 고약한 일입니다만 조용히 모르시게 일을……."

"원, 별말씀을. 오히려 섭섭합니다. 이웃두 사촌이라는데 한 집이니만큼 한 식구라구 할 수두 있지 않겠어요."

"……."

방골 아주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숙였다. 양가의 여인다운 착잡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송영호는 느꼈다.

"그럼 분향이라두……."

송영호가 말하자,

"아직 성복(成服) 전이지만."

방골 아주머니가 말하고 자리에 인도하였다. 무엇이 성복인지 성복 전이면 무엇을 하고, 후면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송영호는 "전이지만" 하는 데 무슨 특전을 느끼고 향상 앞에 꿇어앉았다.

정충권씨는 그가 옆에 가도 누군가를 분간 못하고 단정하게 앉아있었다. 분향을 마쳤으나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데 밖이 떠들썩하더니 몇 사람의 남자들이 몰려들어왔다.

"아니, 갑자기 그러셨단 말이지."

"뇌일혈일까."

"혈압은 높지 않으셨다는데."

"그럼 심장 마비?"

"머 결국 노쇠지."

이런 속삭임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대청으로 올라왔다. 한 음성이 귀에 익어 있어 송영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게 외쳤다.

"우 군!"

그러나 재민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병풍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오열이 그의 입을 새어나왔다. 뒤따라 앉은 청년도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부시시 일어섰다.

방골 아주머니가 다가와 가만히 말했다.

"박창근 씨. 오늘은 좀 여기서."

"선영이가……."

"네?"

"지금 의사 선생이 와 계셔요."

"정신을 잃어버려서."

송영호는 자기가 전신경을 귀 모으고 있는 것을 깨닫자 피식 웃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다가 조상 예절을 잘 몰라 다시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사자(使者)밥이 되었는뎁쇼."

누군가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통금 예비 사이렌이 짐승의 울음처럼 길게 울렸다.

상복(喪服)

정원 안에 들어서자, 송영호와 재민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발을 멈추고 우뚝 서 버렸다.

파아란 잔디, 파아란 나무들, 온통 초록에 묻힌 가운데 목백일홍(木百日紅)이 타는 듯 피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친 눈에 무슨 기적같이, 위안같이 어렸다. 넘어가는 해가 분합 유리창마다에 불을 켜 놓고 있었다. 인기척은 없는데, 화려하고 설레이는 광경이었다.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광경이어서, 거기 차 있는 음악(音樂) 같은 느낌이 불안(不安)을 안겨 주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어느 불가해(不可解)한 것에 대한 외포(畏怖)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의 입에서는 한가지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산길에 시달렸던 피로 까닭뿐만은 아닌 성싶었다. 그들은 잠시를 그렇게 서있다가 발을 옮겼다.

댓돌 앞에서 돌아가려는 재민을 송영호는 굳이 붙들었다. 지쳐 있었으나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동거자(同居者)라고는 하였으나 생면도 한 일이 없기는 하였으되 그래도 사람이 죽어 나간 뒤이고, 난생 처음 겪은 장례라든가, 흉흉(兇兇)한 모든 절차와 구슬픈 한국의 묘지, 매장 등을 목격한 뒤이고 보니 충격과 흥분이 컸다. 그들은 새벽에 출발하여 충청북도에 있는 정씨가의 선영까지 갔던 것이다.

사장의 청이기도 하였지만, 재민도 갑자기 덮쳐 온 피로로 아무데고 주저앉고 싶은 터라, 그대로 사장의 뒤를 따라 마루에 올랐다.

"대간허시겠으유."

식모 아주머니가 댓돌 아래로 돌아 나와 맞았다.

"어서 목욕허시구, 몸부터 푸셔야지유. 방골 아주머니가 약탕(藥湯) 뎁혀 놓라셔서유. 알만큼 따끈히 물이 더워 있어유."

송영호는 대꾸 않고 먼저 윗막이를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누마루에 혼자 남아 재민은 난간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야릇한 하루였다. 며칠을 잘 잠을 다 못 잔 끝에 영구를 따라 떠난 것이 일곱 시—무던히도 흔들리는 차 속에서 지루한 길을 오갔던 것이다. 아주 기울어져 버렸다 해도, 대대 잠영(簪纓)의 명문이라 선산은 그대로이고 위토(位土)도 넉넉하여 산에서의 제절에는 옹색을 몰랐다. 다만, 혈육의 애끊는 호곡 하나 없이 모든 것은 그저 의식(儀式)만 갖추어졌던 것이 허전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개를 자아내었다.

여인은 산에 갈 수 없다는 옛 풍습을 방골 아주머니는 주장하여, 산 송장인 정충권씨를 제치고는 단 하나의 혈육인 선영은 산에 가지를 않았던 것이다. 조모가 작고하던 날 실신한 후, 이내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선영은, 방골 아주머니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먼 길을 갈 수는 없기도 하였다. 재민은 새하얀 복(服)옷 차림의 선영이 눈물 없이 보인 슬픔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종조인 죽순골 할아버지의 어리석은 충성심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식모의 말대로 약탕인 듯 향긋한 물에 몸을 잠그며 송영호 역시 기이했던 하루를 상기하고 있었다. 어떤 인연으론지 한 사람의 죽음을 보내고 오게 된 사연이 새삼 신기로웠다. 그도 또한 선영의 애련한 모습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의 어떤 압박, 두 번째 보았을 때의 미소로운 심정, 이런 것에 겹쳐 사무치게 아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하와이에 두고 온 '베스'에게는 일찍이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어느덧 그는 피로를 잊었다.

두 사람이 목욕을 마치고 나자 따끈한 삼차가 들어오고 한참 후에 온돌방으로 상이 들어왔다. 모두가 식욕을 당기게 하도록 정성껏 마련된 찬이었다. 방골 아주머니는 어쩌면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장지에 가지 않았던 것이나 아닐까도 싶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송 사장은 재민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웬지 외로웠던 것이다.

그들은 의자를 누마루로 가지고 나갔다.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은 여름의 무성한 초록 위에 은빛을 씌우고 정원은 그대로 물 속에 잠긴 것같이 보였다. 그것은 그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느끼게 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제가끔 그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길어 내려고나 하듯 말이 없었다. 얼마를 그러고 있는데 안으로 통하는 일각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역시 소리 없이 어느 흰 그림자가

들어섰다. 바라보고 있던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난간에 손을 얹고 일어섰다. 흰 그림자는 정충권씨였던 것이다.

정충권씨는 망설임 없이 곧장 잔디밭으로 들어가 흰 정원 벤치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는 거기 앉지 않고, 우뚝 서서 두 손을 벌리고 달을 우러렀다. 언제나처럼 품이 헐렁한 수의(壽衣) 같은 흰옷은 달빛을 받아 음영이 뚜렷하여 언제나보다 더욱 그의 모습은 석상(石像)같이 보였다.

노인은 그런 석상의 한 포즈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으나 그것은 몹시 조명효과(照明效果)를 낸 무대에 선 희랍 고대극의 광대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클라이맥스에 달한 무대에 흘린 것 같은 기분으로 떠 있었다. 사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연극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느꼈던 것이다.

얼마만큼을 노인은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른다. 연극의 한 막[一 幕] 정도의 시간을 느끼게 한 후, 그는 서서히 두 손을 내렸다. 그리고 그가 즐겨 앉는 벤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양으로 그 옆을 떠나, 가만히 일각문 쪽으로 걸어갔다. 처음처럼 소리 없이 일각문이 열리고 흰 그림자는 사라졌다.

"흑."

두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갔다. 어떤 허전감 속에서 담배를 더듬어 물고 불을 당겼다. 한참 후에야 송영호가 입을 열었다.

"완전히 인간에서 떠나 버린 저 노인이 왜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나는 저 노인을 볼 적마다, 무언지 포착할 수는 없는, 글쎄, 가장 깊은 영혼이라고나 할까—그런 것을 느껴요. 나도 모르는 심정이지만."

재민은 잠자코 담배만 빨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글쎄, 모두들 산 송장이라구 하더군요. 저두 잘 표현은 못허겠습니다만 사람에게 사는 가치(價値)가 있다면 죽은 사람이 남긴 것 역시 귀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구 저분의 경우, 모든 것이 비밀에 쌓여 있구 보니, 저분의 인생이 남긴 것은 주검과 진배없는 스스로의 육체뿐이니깐요."

송영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또 침묵이 흘렀다. 달빛은 점점 더 처절(悽絶)하도록 맑아 갔다. 재민이 다시 탄식하듯 입을 열었다.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 "

송영호의 눈이 앞을 재촉했다.

"그분의 수난(受難)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모르는 지난 숱한 수난이 아니구, 현재의 수난—즉 죽지 못하다는 형벌일 겁니다. 죽음에의 의지(意志)를 가질 수 없는 치매(痴呆).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허물고 부서진 육체라는 옥(獄)에 갇힌 인간—처참에서 오히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거예요."

송영호는 말없이 달빛이 깔린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사연이 그 표백(漂白)되어 버린 공백의 정신에 깃들어 있었는지는 모르나 노인의 모습은 언제나 인생(人生)이란 어떤 통한사(痛恨事)라는 느낌을 준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이란 이미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듯 미처 못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 역시 못지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어느 편일까?"

그는 속으로 뇌었다. 그러자 정충권씨에 대한 호기심이 마구 솟아올랐다. 송영호는 담배를 부벼 끄고 물었다.

"도대체 어떤 경력을 가진 노인이지요?"

그리고 까닭없이 보인 열의(熱意)를 이내 뉘우쳤다.

"이 댁 돌아가신 주인의 계씹니다. 총명하고 정열적이면서 착하셨다구 종조부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저런 분이 아니군요?"

"수재라구 했대요. 지금 저러시는 것두 질병(疾病) 까닭이 아니구 상태(狀態)일 것이라구 저는 봅니다."

"곡절이 있으시군요?"

"파란만장—동분서주허셨답니다. 동경 유학생 시절부터 투신한 민족 운동으루—북간도 독립군, 상해 임시 정부와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구요."

"그러셨군요."

"일본 본토에서, 대륙에서 무던히 활약허셨대요. 그래서 형님 속을 푹푹 썩히셨대요. 형님은 일제 고관이었으니깐요. 결국 붙들려 심한 고문을 받아 저 모양이 되셨답니다."

"갸륵하신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통 말을 잊으신 것 같지만 '혜련'이란 이름을 곧잘 부르십니다."

"나도 일전에 들은 일이 있어요. 그리구 적지않게 반가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혜련이시거든요. 하하……."

송영호는 가볍게 웃었다.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아니, 나는 개똥이라는 이름이라도 우리 어머니헌테 불리워진다면 아름답다구 생각헐 거예요."

"무척 아름다우신 분인 모양이죠?"

"하하……. 내게 있어서는 세계에서 제일이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소유자라구 친구들이 놀린 일까지 있어요."

재민은 미소를 머금다가 문득 쓸쓸한 생각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다섯 살 때 잃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기했기 때문이다. 한번도 느껴 보지 않았던 송 사장에 대한 부러움이

아련히 퍼졌다.

"사장님은 행복허세요."

"왜?"

"어머니가 계시구……."

"미스터 우는 어머니가?"

"얼굴두 모르죠."

"그건……."

송영호는 민망스럽다는 듯 말끝을 흐렸다. 이웃집인 듯한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재민은 깨우침이나 받은 듯 의자에서 일어섰다.

"피로허시겠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송영호도 이제는 붙들려 하지 않았다.

재민은 합승 속에서 내릴 때까지 졸았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꿈을 꿀 만큼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한 달이나 집을 비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실 그는 선영의 조모상 때문에 닷새를 석류나무집에서 묵었던 것이다.

동생 재웅은 그 날도 형이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지 곤히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서 문 열리는 소리에 소스라쳐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런 동작이 이 며칠을 혼자 지냈던 동안의 불안을 엿보이게 하여, 재민은 가슴이 아팠다. 측은의 정이 구름처럼 이는 것이었다. 송 사장으로부터 그 어머니에의 향심을 듣고 온 까닭인가. 그는 오늘따라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를 잃은 이 아우가 애처로웠다. 그런 자기를 억지로 누르고

"자아식, 놀라긴 왜 그렇게 놀라!"

하며 재웅의 어깨를 탁 쳤다. 닷새나 집을 비운 뒤면서 사탕 하나 사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며

"무서웠었니?"

"형두……. 어린애루 아나 봐."

재민은 씩 웃었다. 열아홉 살, 어린애는 아니었으나 형에게는 곧잘 응석을 부린다. 여북 의지할 곳이 없어 이런 형을—재민은 눈시울이 뜨거워 오는 것이었다. 센티멘탈, 그 '센티멘트'를 웃음으로 헤치며

"그래, 장가들여 줘야겠다."

그 말에 재웅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여드름 투성이의 얼굴을 들고

"그 동안 애자 누나가 날마다 와 줬다우. 오이김치랑 갔다 줬어. 밥두."

"그래."

"형허구 의논할 일이 있다나."

"무슨?"

"직접 만나 말하겠대. 낼 만나 줘, 응?"

그 동안 무척 신세를 진 모양으로 재웅의 눈은 거의 애원하듯 간절하다.

"그래."

"꼭? 형이 먼저 찾아가, 응?"

"그래."

"안 가려구."

"……."

"그럼 나 내일 아침 애자 누나보구 형이 다방에서 만나겠다더라구 할께."

"그럴 필요 없다니깐."

"형……."

여느 때 같으면 치근치근하게 군다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나, 재민은 가만히 노타이 셔츠를 벗었다. 재웅은 재쳐

"나 그럴께. 형이 바쁘니깐 그냥 나가. 학교 가다 내가 누나헌테 들릴테니."

귀찮아서 재민은 그 이상 뻗댈 수가 없었다.

"무슨 다방이랄까?"

"난 다방 이름 잘 모른다."

재웅은 울상이 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무릎을 탁 쳤다.

"참, 형 회사 옆에 다방 하나 있지. 이름이 뭐드라…… 그래, 그래, '가로등(街路燈)'이야. 점심 시간에 그리로 나오랄께."

재민은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 가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다음날 아침 재웅은 아무 말 없이 학교로 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열두 시 오 분쯤 되었을 무렵 회사로 전화를 걸어 왔다. 숨이 차 있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밖 어느 공중 전화를 쓰는 모양이었다.

"형! 형! 누나가 열두 시 십 분까지 '가로등'에 가 있겠대."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탁 전화를 끊었다. 재민은 떨떠름히 웃고 책상 위를 대강 정리한 후 사무실을 나섰다. 열두 시 십오 분쯤이었다.

'가로등' 가까이 가자 그는 문득 발을 멈추었다. 다방 문 앞에 애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땀기 없는 얼굴과 고른 숨결과 고요한 몸매가 갓다다른 것이 아니고 한참을 한곳에 서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었다. 재민에게는 의외의 일이었다. 그는 애자가 다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즉시로는 떠오르지 않아, 그는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면서 희한한 듯이 애자를 머문 자리에서 훑어보았다. 애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스케치북을 옆에 끼고 있는 것이었으나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그 흰 원피스는 생각 밖으로 잘 어울렸다. 납다데한 얼굴에 펑퍼짐한 코—평범한 얼굴에 그 고운 눈이 깜작거리며 재민을 부신 듯이 본다. 재민은 발을 다시 옮겨 놓으며 엉뚱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었다.

그 흰 원피스가 성장이 아니고, 상복(喪服) 같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애자가 흰옷을 입은 것을 처음 보는 탓인지, 갓치르고 온 상사(喪事)에서 아직 정신이 풀려 나오지 않은 까닭인지 알 수 없으나, 어쩔 수 없는 실감인 것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많이 기다렸군요."

"아니, 갓왔어요."

애자는 상냥하게 웃었다. 가운데가 욱은 얼굴이라 옆에서 보면 턱이 코만큼 나와 있었으나, 드러난 이는 희고 고르다.

"그 동안 폐를 끼쳤다구요."

"괜히 재웅이가 그러는 거죠."

"겸손을 다 할 줄 알구. 하하!"

재민이 웃었다.

두 사람은 마음이 탁 틔어지는 것을 느끼며 다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원(夏怨)

밖의 양광이 강렬했던 탓인지, 다방 안은 유난히 어두웠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자리를 물색했다. 열대어가 노닐고 있는 커다란 네모 수조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보였다. 재민이 앞서 그리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도 한참은 말이 없었다. 애자가 무척 어색한 표정으로 끼고 왔던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다방 소녀가 가까이 왔다.

"무엇을 드시죠?"

"뭘 허시겠어요?"

재민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어려운 대답이나 하듯, 애자는 한참 만에야

"홍차"

하고 윗눈질로 재민을 본다. 수조 속에 설치된 형광등 빛으로 맑은 눈이 여느 때와는 다른 광채로 반짝거렸다. 재민은 마음이 한 걸음 그녀에게로 다가서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눈으로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그는 물었다.

"아뇨."

"그럼 항상 준비하고 다니시는군. 좀 봐두 좋아요?"

"아이, 싫어요."

"겸손하실 건 없구."

"엉터리예요."

애자는 사양하면서 오히려 보이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러나 재민은 그 이상 추궁하려 들지 않았다. 재웅이 없으면 언제나 어색해 하는 애자와의 대좌(對坐)가 또 조금씩 겨워지기 시작했으나 뜨거운 햇볕 아래 밖에서 오래도록 서서 자기를 기다린 듯한 애자가 애처로웠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는 해석하고 싶지 않았다.

재웅이와 어울려 시시덕거리는 애자를 지독한 '아프레'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느낌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웠다. 쑥스러워져서 이럴 때 모두들 담배를 피우는가보다고 쓴웃음이 번져 나오려 하는데 차가 날라져 왔다. 막혔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는 찻잔을 들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그리 뜨겁지도 않은 차를 불면서 마시고

"내게 하고 싶다는 말이 있으시다구요?"

하고 애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건너다보았다. 애자는 컵을 입에다 댄 채 망설이듯 말이 없다가, 테이블 위에 컵을 조용히 놓았다. 컵 속의 차는 조금도 줄지 않고 있었다.

애자는 눈을 깔고 또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린다. 유달리 긴 까닭도 있겠지만 짙고 검은 속눈썹이 짧고 펑퍼짐한 코끝에 거의 닿고 있었다. 재민은 성가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들어야 될 얘긴가요?"

스스로 무뚝뚝하다고 느껴지는 어조로 말하고 그는 구두 끝으로 테이블 다리를 가볍게 찼다.

애자는 당황한 듯 얼굴을 들어 눈을 크게 떴다. 맑고 고운 눈에 어항 속 녹색 해초(海草)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형광등 빛이 그대로 어렸다. 재민은 좀 심했다는 생각으로

"내가 뭐 도움이 될 수야 없겠지만"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애자는 그러한 그의 말투에 매어 달리듯 눈으로 말을 하려고나 하는 것처럼 재민의 얼굴에 시선을 못박고 있다가, 밑도끝도없이 불쑥

"저 학교 그만둘까 하구요."

절박한 어조였으나 애초 관심이 없는 재민에게는 와 닿는 것이 없었다.

"학교를 그만두다니."

아무 반응도 없는 말을 하고 그는 덤덤히 애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애자는 또 눈을 깔았다. 그러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나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한 번 질끈 눈을 감고 뜨더니 빠른 말투로 지껄이기 시작했다.

"집이 엉망이에요. 엄마는 날마다 아침부터 나가셔서 지쳐서 저녁에 들어오시지만 별 수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 엄마뿐 아니구 망한 사람이 그드륵하다드군요."

애자의 말에는 두서가 없었지만 가려 들어 본즉, 어머니가 증권을 하다가 홀랑 망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것, 어떡해서든지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인 자기를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것, 이런 주석이 끼기 때문에 시간이 먹혔다. 결국 홀어머니가 외딸 때문에 바둥대다가 더욱 빠져 나오지 못하는 구렁 속에 떨어져 갔다는 이야기였다. 흔히 듣는 이야기이면서 언제 들어도 좀 안됐다는 느낌이 듬직도 한데, 재민은 아무 감정도 동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한참을 이웃에 같이 사는 동안 이웃간에는 돈푼이나 있는 과부로 알려져 있는 것을 역시 믿어 온 까닭인가. 재민은 할말이 없었다.

첫째 애자네 집 사정을 그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말수가 적은 그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외에는 그리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동네의 쑥덕공론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애자의 어머니가 퇴기(退妓)이며 애자도 어엿한 정식 남편과의 딸이 아니고 큰 집이 있는 어느 부자와의 곡절 끝에 태어난 딸이라는 것, 그 부자라는 사람이 달걀 노른자 같은 실속 있는 살림을 차려 주었다는 것, 기생이지만 착실하여 영감이 차려 준 살림을 그대로 잡고 딸 교육에는 남달리

열성이라는 것—이런 소문들이었으나, 이런 말을 모조리 듣고 있는 재웅은 한 번도 형에게 그런 말을 전한 일이 없다.

건넛집 동식이가 밤에 오줌을 싸고, 키 쓰고 소금 얻으러 와서 장작으로 맞는 시늉을 받았다는 둥, 구멍가게 집 언챙이 할아버지가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양이 꼭 토끼 풀 먹는 것 같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듣건 말건 다 하는 재웅이는 웬일인지 애자네 그런 사연만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단 한 번 형에게

"형, 기생 지친 것이라는 게 뭐유?"

하고 물은 일이 있다. 흥미가 없는 대로

"지친 기생이라는 거겠지. 자식두 별소릴 다 물어."

재민은 무심히 지나쳐 버렸지만 재웅은 심각한 얼굴을 하였었다. 그날 그는 안집 마누라가

"기생 지친 것이 시큰둥스럽긴."

씹어 뱉듯이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눈치가 안집 마누라는 애자 어머니에게 돈을 꾸러 갔다가 거절당한 모양이었다.

"남자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는 거야. 큰집네는 빼어난 미인이라는데 저 쌍판대기에 반했다니. 쯧쯧쯧."

안집 마누라는 무척 심지가 틀린 모양으로 이렇게도 말했다. 재웅은 더 들을 수가 없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나,

'남자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는 거야.' 라는 말이 언제까지나 마음에 남았다.

그러나 재민은 이런 모든 것을 통 모르고 있다. 그저 어느 사립대학 응용미술과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 청치도 않는 참견이 성가시다는 것, 돈 있는 홀어머니의 외딸로 자라 무척 호강을 하는 모양이라는 것, 그래선지 명랑을 지나 수다스럽다는 것, 그런 정도가 애자에 대한 지식이었다. 생각다 못해 자기를 의지하려는 애자가 애처롭다고 느끼면서도 동정보다는 당혹(當惑)이 앞섰다.

그런 정도밖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애자가 기대 오는 것은 재민으로서는 역시 성가신 일이었다. 그는 눈을 껌벅거리며 건성으로 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조반을 설치고 나온 허기가 심해 와 눈을 들어 시계를 찾았다.

대폭의 알 수 없는 추상화가 걸린 벽을 더듬어 시선을 움직여 굵은 구슬을 꿰어 커튼처럼 드리운 옆 기둥에 걸린 시계를 찾았다.

열두 시 사십 분—꼬박 삼십 분 이상을 넋두리를 들은 셈이다. 등살이 배겨 왔다.

그는 역겨운 눈으로 애자를 쏘아보았다. 애자는 눈을 여전히 내려 깔고 있었다. 흰 원피스에 감싸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남녀간의 마음의 낌새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애자의 그런 절박한 태도가 결코 닥쳐올 생활의 위협 때문이 아니고, 좀더 감미로운 감정의 고백이라고 한눈에

알아차렸으리라. 그러나 재민은 그런 눈치를 채기에는 너무나 그 방면에 어둡다. 그리고 초심(初心)한 누구나가 그렇듯 자기의 감정, 선영에의 아픈 사랑은 특별한 것, 이 세상 나고 처음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던한 재민으로서는 드문 일이었으나 그는 오히려 얼마큼 냉혹한 눈으로 사치스러운 애자의 차림을 훑고 있었다. 빈궁 속에서 나서 사람이 된 재민에게는 사치스럽게 성장한 소녀가 생활의 위협을 호소하는 것이 가소롭다고 저도 모르게 느껴졌던 것인지 모른다.

사람이란 악인이 아니라도 동류(同類)에게 오히려 잔인할 때가 있다. 물론 전연 자신도 자각지 않은 감정이었으나, 하여튼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면상이나마 '궁핍'이었던 것이다.

시장끼가 심해 갔다.

그러나 선뜻 애자에게 점심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인색해서가 아니고, 어색한 대좌가 그만큼 연장될 것이 싫어서였다. 그는 또 시계 쪽으로 시선을 가지고 갔다. 한 시면 덮어놓고 일어서리라 마음 먹었던 것이다.

열두 시 사십오 분—한 시가 되려면 아직도 십오 분, 체념하듯 앉음새를 좀 편케 하려고, 쿠션에 기대려는데 구석진 자리에 놓인 플로어 스탠드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좀전까지는 빈자리 옆에 불을 끈 녹색 세이드만이 보인 곳이다.

젊은 남녀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남자는 외면하듯 고개를 꼬아 담배를 물고 있고, 여자는 긴 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세로 남자의 얼굴을 치켜보고 있다. 흰 옷차림이었다. 오싹하도록 아름다운 옆얼굴—재민은 저도 모르게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 선영이었던 것이다.

새하얀 옷은 녹색 불빛을 받아 차라리 투명하게 보였다. 이쪽에서 보면 온통 그늘이면서 선영의 얼굴은 박꽃같이 희다. 재민은 꿰뚫듯 그쪽으로 시선을 못박았다.

마주앉아 있는 남자가 누구인가는 이내 알아 낼 수 있었다. 연거푸 담배를 피워 댄 모양으로 연기 속에 잠긴 옆 얼굴은 박창근의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어쩌다가 연기가 걷혔을 때, 재민은 그가 잔뜩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재민은 가슴이 마구 뛰어 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름할 수 없는 노여움이 솟아올랐다.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창근이 선영을 뜨겁게 포옹하고 사랑의 환희에 넋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어쨌을까?

선영은 그런 것에 익어 있는 모양이다. 녹색 불빛으로 푸른 기가 도는 검은 머리가 흰 원피스의 어깨에 스칠까말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애처로움과 엄숙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 완전한 아름다움 속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 숱한 칠흑(漆黑)의 머리뿐이 아닌가 싶었다.

선영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르나 멀리서 보는 그 모습은 오래도록 한 포즈를 지녀야 하는 경우같이 고정된 자세가 그대로 흩어지지 않았다.

"우 선생님 회사에라두 취직을……."

애자의 음성이 멀리서 들린다고 느낀 순간 그녀의 말이 뚝 끊어졌다.

재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개를 애자 쪽으로 돌렸을 때 그는 맑고 큰 눈 가득히 고인 눈물을 보았다. 원망의 눈초리가 아니고, 아픔과 애달픔의 눈빛이었다.

재민은 마음이 비틀거려지는 것을 넌지시 눌렀다.

"차 드시죠."

어색한 말이 때늦게 나왔다. 애자는 말없이 찻잔을 든다.

"취직하구 싶다구요? "

이미 늦어 버린 대꾸를 그는 또 주워 대었다. 그것은 마주앉은 애자에의 대꾸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선영이 자기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을 억지로 밀어내려는 노력이었다. 당연한 일로 애자는 말이 없다.

식어 버린 차를 반쯤 마시고 입술을 꼭 다문다.

자존심과 싸우는 표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서서 나가 버리지는 못했다.

그러한 자신이 자질구레하다고 생각했는지 재민이 너무 거만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들어올 때와는 다른 얼굴이 앞에 있었다.

재민은 거의 무의식중에 말을 건넸다.

"점심 안 허셨죠? 같이 허실까요? "

전신으로 선영을 느끼며 그는 일어섰다.

애자도 보이지 않는 줄로 매어 달리기나 한 것처럼 따라 일어선다.

밖으로 나가자 서기(暑氣)가 확 끼쳤다. 하아얀 불꽃 같은 한여름의 햇볕이 그림자조차도 열기로 졸여 붙인 듯 높고 얕은 건물을 비롯하여 오가는 사람들까지 그림자를 오그려뜨린 채인 것이 흥분된 눈에 이양(異樣)하게 어려 왔다.

재민은 현기를 느꼈다.

현기를 느낀 채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우 군 아니요? "

돌아보니 송영호가 웃으며 서 있다. 선글라스 까닭인지 인상이 달라 보였으나 흔히 험악하게 보이는 선글라스가 그를 오히려 소탈하고 명랑하게 보이게 했다.

"점심하셨수? "

송영호는 묻고는

"동행이 있으신 모양이지만 안 허셨으면 함께 허셔도……."

그는 애자를 어떻게 보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미소를 띄웠다.

"점심은 먹었습니다."

재민은 엉뚱하게 대답하고

"그럼"

하며 발을 옮겼다.

송영호는 무슨 잘못이나 한 것 같은 야릇한 느낌을 안은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다방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민 사장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고백(告白

열두 시 삼십 분까지 만나자던 민 사장은 한 시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떡 먹듯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도 익어 온 송영호였으나, 이날 따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깐 민 사장이 산[鑛山]으로 떠나던 이튿날 오전에, 그를 증권 시장 근처 다방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우정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침 같은 방향으로 그 시간에 갈 일이 있어 그를 역까지 배웅해 준 것이 오후 여덟 시 사십 분, 오십 분 발의 열차를 탈 예정이었으니깐, 이튿날 오전이라면 산에 닿았을까말까 한 시간이다. 송영호는 비슷한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웃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러 준 사람은 틀림없는 민 사장이었다고 우겼다. 무슨 타의(他意)가 있어 고자질을 할 관계에 놓인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게 그를 본 것을 화제에 올린 까닭은, 그 다방에서 일어났던 약간 민망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다.

즉 민 사장이 어떤 중년 부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마구 '놈'자를 놓는 욕지거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능란한 다방 마담이 슬며시 둘을 내실로 통하는 듯한 문 저쪽으로 이끌어 나갔기 다행이었지, 아니더면 구경 좋아하는 서울 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혀 버려, 얼굴 들고 나다니지도 못했으리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였다.

분명히 역까지 바래다 준 사람이 서울에 있어 그런 봉변을 당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아, 끝내 부정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의심하게 된 것은 오히려 그의 전화를 받고부터였다. 이틀 전 민 사장은 지금 돌아오는 길이라면서 전화를 걸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산에서 돌아오면 그 길로 헐레벌떡 뛰어오던 그가 이틀씩이나 석식은 태도를 보인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송영호는 별반 놀라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식의 갈피 속에 끼어 있던 찌꺼기 같은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시켜 놓고 들지 않은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 의자 사이를 나오려다가 문득 시선이 파아란 세이드를 씌운 스탠드 아래 자리로 갔다.

순간, 그는 흠칫 놀라 발을 멈추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이 낀 그곳에 파아란 불빛을 받아, 환상 속에 나오는 모습 같은 선영의 옆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마주앉은 남자는 어디서 본 듯하면서 얼핏 생각이 나지 않았다. 연거푸 담배를 피워댄 모양으로 연기는 실내에서도 무슨 기류(氣流) 같은 것을 탄 것이나처럼 이쪽으로 서서히 퍼져 나오고 있었다.

잔뜩 미간을 찌푸린 남자나, 그를 그저 지켜보는 선영이나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송영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떴던 자리에 도로 가 앉아 있었다.

길고 흰 목을 길이대로 뻗쳐 상대의 얼굴을 우러러보듯 쳐다보고 있는 선영의 자세에는 조용한 대로 격정(激情)이 보여, 그것이 송영호의 가슴에 어떤 충격을 주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압박감과도 다른 감정이었다. 언제나 정원에서 실성한 삼촌을 단호한 어조로 나무라면서 앞세워 나가는 것을 보며 느꼈던 미소로운 친근감이라든가, 귀엽다고 생각하던 너그러움도 아니었다. 뜨거운,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와 얼굴을 달케 하는 것이었다. 질투—일찍이 모르던 감정이었다. 같이 자란 '베스'가 수영복만 입은 채 다른 청년과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도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닥친 이 감정에 압도되어 송영호는 장소와 시간을 잊었다. 자기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던 난폭(亂暴)이 백지장보다도 얇아진 자제력(自制力)을 뚫어 제치고 치달아 나올 것만 같아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는 그의 시선 닿는 곳에는 여전히 담배 연기에 쌓인 한 쌍의 활인화(活人畵)가 보였다. 그러나 그 활인화는 드디어 흩어지고 말았다. 청년이 일어서서 싫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몸놀림으로 의자 사이를 걸어나갔기 때문이다. 청년은 나가자는 말도, 간다는 말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선영의 몸짓은 확실히 뜻하지 않았던 일을 당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얼핏은 일어나지도 못했다.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선영은 힘없이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섰다. 송영호도 역시 의식지 않고 자리에서 떠나 있었다. 선영이 마악 다방 문을 나서려 할 때 다방 소녀가 그 뒤를 쫓는 것이 보였다. 이윽고 또렷한 소리가 쨍 울렸다.

"찻값 내고 가세요."

"……? "

뒤돌아본 선영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의아의 표정이었지만 다방 소녀에게는 교만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찻값 말이에요. 차 들구 돈 안 내구 갈 작정이에요? "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방 안의 여러 시선이 그쪽으로 몰렸다. 선영은 역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얼굴로 소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뜻밖에도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아아니, 이이가 공짜루 참……."

소녀가 비명처럼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쫓는 모양이다. 다방 안에 앉아 있던 손님들 중의 몇 사람이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일어나 그쪽으로 몰려갔다.

송영호는 그들을 헤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은 번화가이다. 벌써 사람이 모여들고 있었다. 말을 잃은 듯 그저 잠자코 서만 있는 새하얀 모습에 매어 달리듯 삿대질을 하고 있는 땅딸한 소녀, 구경거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송영호도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똑바로 그들 쪽으로 뛰어가 아무렇게나 포켓에서 쥐어진 대로 꺼낸 돈을 세어 보지도 않고 소녀에게 건넸다.

"찻값이다."

숨찬 소리로 외쳤을 때, 모여든 사람 너머로 비어 가는 택시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택시이……."

차가 머무는 것을 보자, 그는 왁살맞게 선영의 팔을 끌어당겼다. 차 문이 닫힌 후에도 송영호는 허덕거리고 있었다.

"어디로 갈깝쇼? "

운전사가 묻는다. 그는 진작부터 계획이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우이동."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는 어려운 일이나 치르고 난 뒤처럼 숨이 나갔다. 포켓에서 담배를 한 가치 꺼내 물고 불을 당겼다.

선영은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 모습에는 어쩔 수 없이 정충권씨를 연상케 하는 것이 있어 송영호는 마음이 흐려 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끼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차는 미아리 고개를 넘자 속도를 낮추었다. 좁은 길에 차가 붐비고, 사람이 욱실거렸던 것이다.

사람의 걸음걸이보다도 느리게 움직이는 차창 밖으로 송영호는 새삼 생활을 보는 느낌이었다.

지붕에 잡초가 우거진 쓰러져 가는 고옥에 커다란 잡화상 간판이 붙은 가게에 너절하게 상품들이 널린 것이 서서히 뒤로 물러간 후 양재기 가게가 나타나고, 다음에는 몇 가지 안 되는 호미랑 삽 같은 것을 매어 단 농구점(農具店)이 궁상맞게 눈에 들어왔다. 그나마 쓰러져 가는 집도 차지를 못한 행상인들이 길섶에 소쿠리 짐을 풀어 놓고 늘어앉아 있었다. 찌들은 런닝셔츠만 걸친 새까맣게 그을은 아이들이 손으로 돌려 만드는 아이스크림 장수를 둘러싸고 콘을 핥고 있나 하면, 몇 개 안 되는 수박을 늘어놓은 수박 장수는 그리 크지도 않은 수박을 잘라서도 파는 모양으로 자른 과육(果肉)에 흰 종이 조각을 붙이고 있는 것도 보였다.

구차한 삶들이면서 활기에 차 있는 것이 대견스러웠다. 송영호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였으나 한결 마음이 가라앉아 오는 것을 느꼈다.

붐비는 길이 끝났다. 차는 도로 속도를 찾았다. 차체의 동요가 갑자기 심해지는 순간, 선영의 옆구리에서 스케치북이 굴러 떨어졌다. 스케치북은 굴러 떨어지면서 반으로 탁 갈라지듯 열린다. 그러자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눈에 띄어 들어왔다. 비너스의 데생이었다. 골똘하게 입체(立體)감을 낸 그림이다. 마구 흔들리는 차 바닥에 떨어져 흔들리는 그 그림을 보며, 송영호는 기묘한 상념에 사로잡혔다. 웬지 그의 눈 앞에서 그림이 아닌 비너스의 그 아름다운 육체가 부서지고 있는 것 같은 환각이었다.

어지러운 환각이다. 그는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비비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몸부림치듯 입을 열었다. 밑도끝도없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미국 남부에서 들은 얘깁니다. 남북 전쟁 전 때의 대농장주(大農場主)라면 봉건시대의 영주(領主)나 다름없었다나요. 그러니깐 그들의 딸들은 공주죠. 그 공주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범절루 길러져서, 스커트 자락이 발꿈치를 약간이라도 드러낸 정도루 짧다면 야단 법석이 났다는 거예요. 단정치 못하다는 거죠. 그러는 그들이 흑인 여자 노예 앞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감지 않은 알몸으루 지내기 예사였다는 겁니다.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두 방 안에 놓인 가구의 눈이 부끄러워 몸을 가리는 사람은 없으니깐요. 무관심이죠."

왜 그런 말을 꺼낸 것인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송영호는 말을 뚝 끊었다. 하고 싶은 말이 출구를 찾아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목 밑에서 복작거리고만 있어 오히려 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었다고 어렴풋이 느끼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요컨대 그는 서투른 고백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기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증오(憎惡)란 역시 관심(關心)의 한 표현이니깐 애정의 변형(變形)으로 보겠다고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소년처럼 흥분하고 있는 그는, 그저 안타까움만이 앞섰고 섣불리 끄집어 낸 이야기가 엉뚱하고 합당치도 않은 것에 오히려 선영의 경멸을 거듭 산 것이나 아닐까 하고 더욱 혼란만을 느끼는 것이다. 그는 앞뒤가 닿지 않는 말을 또 허둥지둥 주워 섬겼다.

"그들에게는 생활이 없었죠. 노예들의 피땀으루 거름한 땅에서 노예들이 거둬들인 작물(作物)루 호강을 하구만 있었던 거니깐요. 그리구 호강이란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은 오히려 선영을 다치는 말이라고 이내 깨닫고 그는 또 말문이 막혔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또 한 가치 빼어 물고 불을 당겼다가 바로 꺼버렸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한 말을 뉘우쳤다가 또 다른 말을 골랐다가 하며 서두를 필요는 전연 없었다. 선영은 처음부터 아무 말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선영은 자기가 지금 까닭없이 미워만 하면서 한 번도 말을 나누어 본 일도 없는 사람과 동승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없었다.

타다가 사그라진 여심(女心)의 폐허(廢墟)가 그 내부에 펼쳐져 있었다. 원한도 노여움도 없었다. 그저 허허로운 심정에 외로움만이 번졌다. 너무 나이 어려 맛본 이 허무는 그가 여지껏 앉아 있던 다방 구석 자리에 서려 있던 연기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면 밖으로 흘러나가 버릴지도 몰랐으나, 그녀는 더욱더욱 굳게 마음을 닫고만 있었다. 닫혀진 마음에 비치는 것은 역시 닫혀진 자기 마음뿐이었다. 어리석은 사랑을 하고 잃었다는 실감은 없고 노여움보다, 미움보다, 슬픔이 앞섰다. 그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툭하면 추잡한 여자

관계로 말썽인 박창근이 자기 앞에서는 여인 혐오증(女人嫌惡症)에나 걸린 것처럼 찌푸리고 있는 참뜻을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일방적인 감정이고 보니 짓밟혔다는 말도 해당되지 않았다.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응석'일지도 몰랐다. 창근은 언젠가 선영이 스스로의 '응석'을 깨닫게 될 것을 저어한 것이나 아닐까? 쾌속도로 달리던 차가 약간 속도를 낮추었다고 느낀 순간 운전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우이동 어디지요? "

물음을 받고 송영호는 흠칫했다. 목적지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 상태의 선영을 방골 아주머니의 꿰뚫는 듯한 눈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역시 흥분해 있는 자기가 데려다 줄 수는 없다고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에 의해 아무렇게나 말한 것이 우이동이었던 것이다.

"우이동 어디지요? "

운전사가 재차 묻는다.

"곧장 가 주시오."

곧장 가면 어디에 이르는지도 모르고 그는 또 아무렇게나 말했다. 그저 공기 맑은 둘레를 드라이브하다가 되돌아가면 돌아가는 동안에 선영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는 비로소 누그러진 마음으로 차창 밖에 눈을 던졌다. 그러자 저만큼 화려한 색채가 깔린 지역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가 어디죠? "

그는 운전사에게 물었다.

"어디 말입시요? "

운전사는 고개를 빼어 앞을 보곤

"장미원입지요. 우이동, 처음이신가 보군요"

한다. 송영호는 그곳에서 내리려고 순간적으로 결정했다.

"장미원에서 내려 주시오."

눈앞에 깔리는 화려한 색채에 취해서가 아니고, 그 꽃 모습들을 보자 송영호는 옆의 선영을 잠깐 잊었다. 그의 망막에 어려 오는 꽃 모습에 겹쳐 어머니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의 기억에 산재(散在)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여러 가지였지만, 언제나 그 배경은 꽃들이었다. 꽃 옆의 꽃다운 어머니—자랑스럽다고 생각한 것은 어머니가 꽃다운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어머니의 정성어린 결과로 된 것이었고, 또 아름다움으로써 그저 정서를 돋구었다는 것보다는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그것을 생활로 하였던 점이었다. 옆에 소롯이 선 사람이 있었다. 뜻밖에도 선영이었다. 송영호는 무슨 생명의 한 끝에 닿기나 한 것 같은 환희를 느끼며 지극히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꽃을 보니깐……. 어머니 생각이 나는군요. 우리 어머니는 중국에서 아버지와 항일 투쟁을 하시다가 하와이로 건너가셨다고 듣구 있어요. 그리구 하와이에서 시작하신 것이 꽃농사였다는 겁니다. 나중엔 다른 사업을 허시게 되셨지만 결국 밑천이라구 할까요? 그 밑천이 꽃장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제 눈에는 아름다운 분이지만, 젊었을 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우셨대요. 그 고운 손을 날카로운 장미 가시에 마구 찔리며 꽃을 가꾸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꾸시는 꽃은 어머니처럼 아름다웠다구 같은 교포 할머니에게서 들은 일이 있어요. 어머닌 꽃을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저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보람을 느끼셨을 것이라구 생각합니다. 그리구 또 한 가지 내가 어머닐 존경하는 건 어머니는 열심히 사셨다는 점이에요. 어머니에게 있어선 아름다움을 가꾸셔서 생활의 의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구 생활함으로써 아름다움을 가꾸신 거니깐요."

그는 한 마디 한 마디를 입에서 끌어내려고나 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윗입술을 가볍게 잡아당기며 느릿느릿 말했다. 어려서 하던 버릇인 것을 그는 의식 못하고 있었다.

"난 꽃 속에서 자랐지요. 꽃을 팔아 생활을 한 것이지만, 하나하나가 놀라운 아름다움으로만 보였지 상품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어머니의 영향이지요."

대꾸를 기대치 않는 독백 같은 뇌임을 그는 또 계속하였다.

"첫번 꽃이 피었을 때 젊은 우리 아버진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에 오래두룩 입술을 대고 우셨대요. 우리 어머닌 눈을 감은 채 화안하게 미소허시구……."

그 어머니 때문에 여러 번 가진 여성과의 기회에 끝내 타올라 보지 못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겨웁도록 아들에게 얹는 사랑에는 어딘지 체념 같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아들을 언젠가는 아들의 여인에게 넘겨 줄 것을 미리 당겨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한 번도 타올라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자기를 송두리째 던져 태워 보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사모의 말은 그대로 선영에게 바치는 말이라고 송영호는 아프게 느꼈다. 하아얀 한여름의 흙 위에 폭양을 받아, 약간 지친 것 같은 아름다운 꽃 모습은 문득 슬픔 같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아름다움이란 슬픈 것이라고 한 어느 시인의 말이 상기되어, 송영호는 서른이 넘은 자기 나이를 잊고 감상 같은 것에 잠기는 것이었다.

선영은 끝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장미원에 서서 석류나무에 달린 산호빛 석류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끼던 아버지를. XX당의 주요 간부이며 양심 없는 정치인, 악랄한 경제인으로 악명이 높던 그였으나 그녀에게는 부드럽고 한없이 관대하고 맹목적으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장소와 심경이 아니더라도 송영호처럼 퍼더버리고 아버지 자랑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골똘했다는 아버지의 일면은 결코 그의 장점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고, 잘못하면 그만큼 제것만 아끼는 이기주의자로 흉을 한 가지 더 얹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그는 죽었다. 그리고 죽음이란 남의 용서를 받는 수단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망각(忘却)이라는

은전만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망각이라는 생각이 스치자, 그는 자기가 서 있는 지점을 정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너무나 부질없는 과거의 군더더기가 욱실거리고 있는 지점이었다. 잊는다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점—그리고 그 욱실거리는 것들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기라는 것을 선영은 깨닫고 몸서리쳤다.

"더웁군요. 돌아가실까요? "

송영호의 말에 그녀는 자기로 돌아왔다.

"네."

처음 듣는 부드럽고 맑은 음성이었다.

기다리게 했던 차에 다시 오른 그들은 한참을 잠잠히 앉아 있었다. 이윽고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송영호였다.

"구월 중순께 부모님이 귀국허시기루 되셨어요. 난 선영씰 어머니께 보여 드리는 것이 지금부터 즐겁군요."

뜻이 있는 말을 그는 뇌고 나서 선영의 얼굴에 가만히 시선을 부었다. 선영의 얼굴에 가느다란 동요가 일어나 지나갔다.

"집이 넓으니깐 부모님이 돌아오셔두 우리에겐 겨워요. 예부터 사람이 집을 휘어야지 집이 사람을 휘게 되면 안 된다면서요? "

선영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집 임자가 온다. 집 임자가 온다. 우린 떠나야지, 떠나야지.'

옆에서 송영호가 말을 이어갔다.

"우린 뛰어든 사람이구, 그 집의 정말 임자는 선영씨니깐요. 하하……."

선영은 여전히 자기의 상념을 쫓고 있었다.

'가을에는 정말 집 임자가…….'

차는 어느덧 붐비는 그 너절한 길을 빠져 나와서 고개를 넘고 있었다.

나선(螺旋)

"좀 들어 보세요."

송영호는 커트한 유리 대접을 들어 정충권씨에게 권했다. 반응이 없을 것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인 이상 소상(塑像)을 앞에 하고 있을 때와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소상이 아니라는 것은 송영호가 입에 대어 준 그 유리 대접의 액체가 꼬르락 소리를 내며 줄어들어 간 것으로만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노인은 꼭 필요한 용량(容量)을 채워야 하는 무슨 기계나처럼 한 대접을 다 마시고야 입을 떼었다.

송영호는 빈 그릇을 자기(磁器)로 된 정원 테이블 위에 놓고 자기 앞에 놓였던 같은 모양의 그릇을 들어올렸다. 골패 모양으로 엷게 썬 과일과 실백이 떠 있는 볼그레한 액체였다.

'더우시지요? 방골 아주머니가 오미자 화채 좀 드시라구 내보내신 거에유.'

주책바가지 식모가 놓고 간 것이었다. 처음 마셔 보는 음료(飮料)는 새큼하고, 설탕을 무더기로 넣은 모양이었으나 쌉쌀한 맛이 아스랗게 남아 있었다. 신비한 맛이라고 송영호는 느꼈다.

훨훨 타는 햇볕이었다. 차고 새큼하고 쓴 맛이 깊은 곳에 가라앉은 단 액체는 타는 햇볕을 보며 마시는 음료로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닐까 하고, 송영호는 정충권씨가 하듯 한 그릇을 쭉 들이켰다. 코카콜라처럼 남에게 강요하는 음료가 아니라고 그는 또 속으로 뇌었다. 그리고 정충권씨를 건너다보았다. 대수롭지 않은 화채 한 그릇을 앞에 하고 느끼고 따지는 점이 너무 지나친 것은 실은 반응 없는 상대를 대신하여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씁쓸히 웃었다.

사실 그는 이 주검과 진배없는 노인과 마주앉아 권태를 느끼는 일이 없었다. 자주 말을 걸게 되는 것도 그를 이른바 '산 송장'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보는 쪽이 본 그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송영호는 언제나 정충권씨에게서 어떤 '드라마'를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 느낌은 어쩌면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본질적인 것을 감득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 그리고 살았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것이니깐. 정충권씨의 입은 바로 전에 상당량의 액체를 삼킨 것이 거짓말같이 느껴지도록 소상의 빛 없는 입술처럼 가볍게 단정하게 다물어져 있다. 그의 손은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공허한 거나처럼 의자 옆에 늘어뜨려져 있다.

송영호도 빈 그릇을 제자리에 놓고 등의자에 깊숙이 기댄다. 무성한 등잎이 두껍게 드리웠다 하더라도 한여름의 햇볕은 불꽃이다. 파아란 잔디가 활활 타며, 그래도 파아랗게 있는 것이 신기스럽다. 타는 태양열에 시들은 나무도 보이지 않았다. 죽순골 노인의 꾸준한 정성이 오히려 그 불

같은 태양열을 탐욕스럽게 취하여 강렬한 생명력을 돋구게끔 한 것인가. 햇빛에 반들거리는 매끄러운 목백일홍(木百日紅)이 태양빛이라고나 할까 불타듯 피고, 화단에는 다알리아, 여름 국화들이 피어 흐드러졌다.

송영호는 일요일이면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말없는 노인과 마주앉아, 방골 여인의 순 한국식 대접을 받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우울을 달랠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어 그려 오던 조국—그것은 자신의 어느 감동(感動)의 근원적(根源的)인 무엇이었던 것이다.

막상 돌아와, 더욱이 험한 산일에 손을 대고 보니 현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무수한 상처를 입음으로써, 그리고 배반을 받음으로써, 그는 사람으로 커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초의 배반이 사람을 인생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역설일지 모르나, 적어도 그것으로 인생에 연좌(蓮座)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이 귀찮아 그저 내던지고 싶을 때가 적지 않았다.

금광 · 탄광 · 철광 · 석회광 · 무슨 보석 원석광 등등, 무수한 자본 없는 소광주들이 송영호를 찾아온다. 모두들 들떠 있다. 사업이 아니고 광란이라는 느낌을 준다. 지극히 근시안적(近視眼的)인 욕심으로 득실거리는 무리들…….

송영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고 사랑하던 조국……. 가난한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해 보겠다고 어려서부터 맹세하고, 어질고 아름답고 신앙 깊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나라가 가난이라는 천형(天刑)을 받고만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신이 준 것인데 아직 찾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리라고 마음 다진 어린 결의(決意)가 광산학을 전공케까지 한 것이 아니었던가.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렇다! 이것이 경험이라는 것일 거야. 아니, 계단이라는 말이 옳을지도 몰라. 뛰어올라간다 하더라도 칸을 딛고 가야 되니깐.'

마음으로 뇌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적한 정원에 앉아 있는 탓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를 삼인칭(三人稱)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경험(經驗)에서 선택(選擇)하는 것, 그것이 자기 길이어야 할 것이다. 경험으로 상처 받아 쓰러져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기에게 덮쳐 오는 가혹한 것만 가지고 운명(運命)이라 하지만, 그리고 '그는 행복한 운명을 지니고 살았다'는 말은 일찍이 들은 일이 없지만, 운명이란 그런 것이 아닐 것 같다. 특히 자기처럼 이국에서 태어나 그곳에 동화 못 하고, 그렇다고 조국에 돌아와서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영원한 방황인, 영원한 동경자(憧憬者)란 아무리 생활고라든가 낙오(落伍)의 쓰라림을 모른다 하더라도 운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기의 과제(課題)란 운명에의 도전이요, 싸워 이기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다. 운명을 감수하기도, 또 거기에 애착하기도 싫다고 그는 마음으로 외쳤다.

"그리루 가면 위험해, 혜련! "

정충권씨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손을 허우적거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송영호는 흠칫 놀라,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노인의 눈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불타는 태양도 앞에 선 송영호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크게 뜬 눈은 텅 비어 보였지만 그 텅 비어 있는 눈에 그의 과거가, 그의 인생의 드라마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송영호는 이 치매의 노인의 공허한 눈이 그대로 선영의 그 아름다운 젖은 눈을 영상케 하는 것을 보고 어떤 혼란을 느꼈다.

노인의 발작이 끝나기 전에 처음부터 숨어서 지켜 보고나 있었던 것처럼 어디서부터인지 죽순골 노인이 나타나 정충권씨 옆에 와 섰다. 그는 입 속으로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송영호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으나, 노인은 휘젓던 손을 늘어뜨리고 몸을 뉘였다. 그는 격심한 운동이나 한 뒤처럼 지쳐서 실신한 사람같이 몸을 뻗는다. 언제나와 같은 경위였다. 죽순골 노인도 언제나처럼 말이 없다. 그는 말없이 망설이고 있었다. 송영호가 알아차려

"그만 쉬게 하시오. 한잠 주무시구 나시면 회복되실테니."

죽순골 노인의 주름 잡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하였으나, 일각문 쪽으로 걸어가던 그는 전에없이 두어 번 비틀거렸다.

일각문은 전처럼 닫혀 있지 않았다. 열려 있었지만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여전히 정충권씨와 죽순골 할아버지밖에는 없었다. 방골 아주머니를 송영호는 낮의 햇빛 아래에서 본 일이 없고, 선영 역시 그 후 일 주일이 지나도록 만난 일이 없었다.

더위는 저녁이 되어도 가시지 않았다. 해사하고 우아하며 사치스럽게 지었으면서, 현대적 시설은 하나도 갖추지 않은 집이라, 편리한 주택에서 살아온 송영호에게는 좀 겨웠다. 신경을 건드려 견딜 수 없는 선풍기를 하는 수 없이 돌리며 식욕 없는 상을 앞에 하고 있노라니, 식모 아주머니가 차를 갖다 놓고 넙죽 앉는다.

송영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언제나 너무 성급히 들어오는 식후의 차다. 겨울이면 식을 것이고 여름이면 미지근해질 것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는 맹추 같으니……. 어서 갈아 버려야겠다고, 더위로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짜증스럽게 생각하는데

"주인님, 저, 안댁 작은아씨 말이에유우."

아닌 밤의 홍두깨 격이라 송영호는 눈을 크게 떴다. 식모는 싱글벙글 하면서

"작은아씬, 환쟁이라나유. 그래 이번에 무슨 회당(회관)이라든가 한 데서 그 그림, 벽에 부쳐 뵈인데유. 점랑회(전람회)라나유."

"점랑회? 전람회가 아뇨? "

송영호는 수저를 소리가 나도록 탁 놓았다. 식모는 잘못을 한 것으로 알았는지 울상이 되며

"그 그림 점랑회래유."

"그래 언제, 어디서라지요? "

"내일부터래유. 무슨 회장이라나유."

송영호는 맥이 탁 풀렸다. 부산히 먹고 싶지도 않은 밥을 몇 술 뜬 후에

"아주머니, 안에 들어가서요, 방골 아주머니께 어디서 그 전람회가 있나 좀 물어 봐 주세요."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갔던 식모는 풀이 죽어서 나왔다.

아직 미숙한 아이들의 그림 장난을 바쁘신 분이 보실 거야 있겠느냐고 방골 아주머니가 말했다는 것이다.

덕택으로 다음날 오전을 송영호는 바쁜 마음으로 지냈다. 신문사마다 비서를 시켜 현재 몇 군데서, 또 어디서 미술 전람회가 열리고 있나 물어보게 하였던 것이다.

전화를 맡아 건 것은 여비서였지만 옆에서 재민은 적이 흥미가 동했다. 사장이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그러했지만, 그도 오늘 어느 전람회에 초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간밤 열 시 가까이 애자가 찾아와

"내일부터 신문회관에서 전람회가 있어요. 여태꺼진 학교별로 그룹을 짰지만, 이번엔 재학생이면 아무나 출품해서 함께 전시하기루 했어요. 물론 심사는 엄중했죠."

은근히 시위를 하고

"낼은 초일이라 회장에서 간단한 모임을 갖게 했어요. 선생님, 꼭 나와 주세요. 오후 한 시부터예요."

하며 초대권을 놓고 간 것이다.

재민으로선 도시 관심도 흥미도 없었지만 재웅은 신이 났었다.

"형, 꼭 가야 돼요. 애자 누난 그래 뵈도 굉장히 실력가야. 앞으론 돈두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회화과(繪畫科)보다 응용 미술과가 장래에는 실속이 있을 것이라구 모두들 그러거든."

애자 일이라면 공연히 신이 나는 아우가 재민은 측은했다. 외롭게 자라 언제나 남의 관심 밖에서 살아온 고아가, 형에게로 향하는 마음 쓰임인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굴절(屈折)되어 가는 감정과 관심이 고마워 그것으로 삶의 탄력을 얻고 있는 것이 가엾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재웅을 위하여 회장에 가리라고 마음먹었다.

여러 번의 전화 끝에 여비서가 사장에게

"신문회관에서 열린답니다. 오후 한 시에 리셉션이 있다구요"

하고 보고하는 것을 듣고 재민은 더욱 희한한 생각이 들었다.

한 시를 약간 앞두고 사장이 재민을 불렀다.

"우 군, 그림 좋아하시오? "

밑도끝도없이 물었다. 재민은 웬지 아무 부자연도 느끼지 않으며

"잘 모르니깐요."

"모르기로는 나두 매한가지지만, 우리 미술 전람회에 같이 가 봅시다. 우리집 선영씨가 출품을 했으니깐."

순간, 재민은 얼굴이 화끈 달았다. 우리집 선영씨—우리 안집 선영씨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집 선영씨—친밀한 어조다. 친밀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출품을 했으니깐 하는 것을 보면 그 작품의 제작 과정도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재민은 까닭 모를 위축을 느낀다. 어려서부터 젖어 버린 열등감일지도 모른다. 사장이 라이벌…… 우습다. 그는 마음의 자세가 고쳐지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럼 저두 뫼시구 가게 해 주세요"

하고 찌그러진 얼굴로 웃었다.

사장은 그런 경우 흔히 남들이 하듯 꽃다발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민은 더욱 압박을 느낀다. 경멸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더라면…… 하고 우울해졌다

회장에는 사람이 들끓고 있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인 것은 작가들이 모두 대학 재학생인 까닭일 것이고, 중후하면서도 어딘지 멋이 든 중년들이 상당히 섞여 있는 것도, 역시 출품자들이 학생인 까닭에 스승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였다.

밝은 데서 갑자기 들어간 까닭에 벽에 전시된 작품들은 색맹(色盲)검사의 미채(迷彩)처럼 온통 어룽진 물감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알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생명력의 팽창이랄까. 작가의 사상이라든가 말하고자 하는 바보다 물감 자체가 강한 발언(發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송영호는 선영의 작품을 보고 싶었으나 꽉 들어선 사람들에게 막혀 입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더라면 군중을 헤치고 목적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들의 전람회라선지 손을 대지 않은 과자랑 콩, 오징어 같은 것이 얹힌 테이블을 가운데 하고 젊은 청년이 무어라고 열띤 스피치를 하고 있고, 모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호도 청년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두터운 안경을 쓴 청년은 빠른 어조로 열심히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말이 청중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저어하는 것같이 보였다. 초조해 했던 것이다.

"에……, '앨트밀라'의 점토층(粘土層)의 어두운 벽면에 새겨진 '마카로니'상으로 꿈틀거리는 손가락의 장난 틈에서 문득 어느 사물의 형태가 떠올라, 그것은 예술의 어린 탄생(誕生)의 날이 되고, 이 '마카로니'가 산야를 방황하고 있던 벌거숭이의 야수가 인류로 변모해 가는 귀중한 흔적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삼만 년을 지난 인류의 아이들은, 아니 어른까지도 역시 이 손가락 장난의 '마카로니'를 썰물이 드러낸 모래 위에 남기고, 혹은 끈적끈적한 진흙의 한 무더기에 손가락을 처박고

싶은 그 충동을 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술이란 시각(視覺)을 위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는 하되 회화 예술이 촉각(觸覺)의 이 영역(領域)을 분류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초(原初)의 충동 속에 있던 촉각적 운동의 형태화는 오히려 변화에 찬 필촉(筆觸)이라는 회화의 영역에 한층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필경 어디서 읽은 것이거나 들은 것임에 틀림없는 생경한 이론이어서, 뒤에 앉아 있던 사람들 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구석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작품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므로 청년이 한층 더 소리를 높여

"찬란한 그 대장식화가 공적(公的)인 교리를 타이르는 천상적(天上的)인 환영과 무한(無限)에 대한 인류의 숙망을 완수하는 일면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 때문에 한번은 확실히 감각을 진동시킨 일도 있지만, 그것은 표층(表層)의 자극에 머무르고, 오히려 기교의 상용 때문에 일종의 감각의 퇴폐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그것은 확실히 갈채의 박수가 아니고, 야유의 그것이며, 말허리를 끊으려는 동작이었다. 분위기는 그 박수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일어나 제각기 혼자서, 혹은 몇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작품 앞으로 흩어져 갔다.

송영호는 재빨리 사람 틈을 누벼 선영의 작품을 찾기 시작했다.

선영의 작품은 채광이 좋지 않은 동편 벽에 걸려 있었다. 사십 호의 유화였다.

솔직히 말하여 송영호에게는 난해한 그림이었다 나선형이 기조로 되어 있는 그림이었다. 전체적 느낌은 무엇보다도 강렬하다는 한 마디에 그쳤다. 강렬한 원색이 푸짐히 쓰여져 있으면서, 금빛이라든가 은빛 같은 것이 섞인 것 같은 요미(妖迷)스러운 광채가 번득거렸다. 현대적이라기보다 첨단적이다. 그러면서 고풍(古風)스러운 느낌도 갖게 한다. 석류나무집의 그 음악적인 우아한 집에서 사는 사람과 무연(無緣)하지는 않다는 실감이 똑바로 와 닿았다.

조용하고 우수에 차 있는 그 청아한 선영의 그림에 생명력이 약동하면서 비장한 긍정(肯定)이 느껴지는데, 송영호는 숙연한 감동을 느꼈다. 어지러운 나선은 우주(宇宙)를 상징한 것인가. 번득이는 금빛과 은빛(기실 그 그림에는 금빛도 은빛도 쓰여지지 않고 있었다)이 삶의 영광이라면, 강렬한 노란빛은 비비꼬이는 고뇌의 신음인가. 즐거운 버밀리온, 불안한 카드뮴 옐로, 그런 것이 회귀(回歸)하는 곳, 우주, 그 긍정에는 아픔이 뼈저리게 깃들었다.

송영호의 발은 그 앞에 못박인 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민이 선영을 찾아 옆에 와 섰을 때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선영도 옆에 선 채 말이 없다. 그의 얼굴은 전에없이 상기되어 있었다.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백(告白)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수줍음에는 짐을 푼 것 같은 안도(安堵)도 섞여

있었다.

나란히 서서 서로 덤덤한 송영호와 선영을 보며 재민은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장의 청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굳이 선영을 찾아 그 옆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저도 모른다. 자학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엇인가를 확인(確認)함으로써 마음의 판정을 내려, 어느 질곡에서 벗어나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재민 옆에 어느덧 애자가 와 서 있었다. 역시 상기된 얼굴이다. 그러나 선영의 표정과는 다르다. 선영은 자기 하나만의 이유로, 즉 대상 없는 고백 끝의 흥분으로 상기한 것이고, 애자는 그 고백을 어느 대상을 향하여 한 것이며 애타게 그 반응을 기다리는 초조와 기대의 홍조였던 것이다.

송영호가 자기에게 쏠리는 시선을 느껴 옆을 돌아보았을 때, 두 소녀는 동시에 그의 눈에 어려왔다.

그윽한 신비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얼굴과 펑퍼짐한 평범한 얼굴과—아주 이질적인 얼굴들이었건만, 방심 상태에서 갓돌아온 송영호의 눈에는 두 소녀가 쌍둥이처럼 꼭같이 보였다.

그는 얼떨하여 두서너 번 눈을 껌벅거렸다.

그러자 아주 딴판의 소녀가 둘, 그 앞에 있었다.

한가지로 흥분한 홍조된 얼굴이었던 까닭의 착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쓰게 웃는데 누군가가 모인 사람을 헤치고 두리번거리다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경리과에 있는 사원이었다.

땀으로 번질거리는 얼굴에 새로 솟는 땀이 자꾸만 흐르고 있다.

그는 다급한 어조로

"사장님, 큰일났습니다. 어서 가셔야겠어요."

"무슨 사고라두? "

송영호는 그리 당황하지 않고 물었다.

"네, 민 사장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둘이 다."

"둘이 다? "

"네, 빨리 가 주세요."

이십 분 후 송영호는 K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두 사람의 사원이 묵묵히 서 있었다.

때묻은 흰 벽, 비어 있는 침대가 스산하다.

무거운 침묵이 무슨 물체처럼 방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기를 삼십분, 송영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씩 권한 후에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

하고 물었다.
"네, 좀 오래 걸릴 거라구요. 먼저 X레이부터 찍느라구."
"무사할까? "
"글쎄, 부인 쪽은 내출혈이 심하다니깐요."
"흠."
또 침묵이 흘렀다.
송영호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자기 위치였다. 민 사장이 어느 과부의 돈을 동업이라는 이름 아래 거둬 가지고 약속한 광산에는 투자하지 않고 증권을 샀다가 그만 다 날린 까닭에 그 과부에게 시달리고 시달려 피해 오다가 그날 노상에서 딱 마주쳤다는 것이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끝에 나중에는 나 죽여라, 우리 모녀 죽는 것 보아라고 여자는 악을 쓰다가 민 사장의 멱살을 잡았는데, 민 사장이 창피하여 뿌리치는 바람에 둘은 어울려 보도에서 차도로 굴러 쓰러졌다는 것이다.
닥쳐든 것이 추럭이라 나중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경위였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 그는 다 타지도 않은 담배를 시멘트 바닥에 팽개치고 신경질적으로 발로 뭉개 껐다. 그리고 좀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담배를 한 가치 꺼내 물었다.
정말로, 정말로 정이 떨어지고 싫증이 났다. 이 사회에, 이 사회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누군가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그는 자주 다리를 바꾸어 꼬았다. 사원들은 공연히 송구하여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복도를 이리로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소란하더니 누군가가 방으로 바쁜 걸음으로 뛰어들어왔다.
들어온 사람은 병원의 직원이 아니고 같이 왔다가 어느덧 어디론가 가버린 재민과 화려한 꽃무늬의 원피스에, 옷 빛깔에 맞는 목걸이까지 한 성장한 소녀였다. 이윽고 이내 송영호는 그 소녀가 좀전에 전람회장에서 선영과 나란히 서 있었던 그 소녀임을 알았다.
애자는 눈이 들떠 있었다.
속눈썹이 긴 맑고 고운 아름다운 눈 가득히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기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
아무도 말이 없었다.
누군가가 또 방으로 들어섰다.
흰 가운을 입은 삼십 세 가량의 청년이었다.
가운 앞섶은 끔찍하게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안됐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나 지극히 담담한 어조로
"유감입니다. 가족에게는 연락이 되셨는지요? "

재민이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내디디며 물었다.

"두 사람이 다 잘못됐나요? "

청년 의사는 재민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남자 분 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부인 쪽은 워낙 출혈이 심해서……."

송영호는 재빨리 애자에게로 달려가 그녀를 두 팔로 안았다.

갑자기 핼쑥해진 애자는 두 발을 무엇에 걷어채인 것처럼 거짓말 같이 쓰러져 갔던 것이다.

명암(明暗)

정원에 들어서자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다.

으스름—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창 유리에는 아슬하게 저녁 노을이 비껴 있었다. 파아란 잔디는 그저 한 장의 푸른 천을 펴 놓은 것처럼 가라앉아 보이는데 두드러지게 새하얗게 떠 보이는 흰 페인트 칠의 정원 의자 위에 언제나처럼 소상으로만 보이는 정충권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송영호의 발을 그 자리에 못박게 한 것은 그날 따라 푸르름과 흰색의 대조가 유달리도 뚜렷했던 탓만이 아니었다. 정충권씨 옆에 흰 원피스의 소녀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그는 얼핏 선영으로 착각하였으나, 이내 그녀의 목이 선영과는 달리 몹시 바른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런 대로 실망은 오지 않고 잊었던 아픔 같은 것을 느꼈다.

노인과 소녀는 옷자락이 겹칠 정도로 다가 있었으나 무던히도 먼 거리에 서 있는 것같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풍겨 나오는 것은 한가지로 외로움 그것이었다. 서로 부비면 가셔질 외로움을 지척간에 있으면서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노인과 소녀 사이의 거리, 그것은 늙고 젊었다는 세월을 두고 따질 것인지, 혹은 인생을 산 그 체험(體驗)의 무게를 두고 재일 것인지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 거리는 애초부터 무(無) 그것이어서 좁힐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송영호는 귀국 이래 차츰 버릇이 되어 버린 자신의 굴절(屈折)하려고만 하는 감정을 겨워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번져 나오는 것을 아스라이 느꼈다.

기도(祈禱)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평상시에는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신앙 깊은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았다면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였으리라. 인생이란 우스꽝스러운 연극에서 맡은 배역을 그리 적절하게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감정이었다.

그는 노을이 사라져 가는 하늘같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흰 군상(群像) 옆으로 다가갔다.

잔디를 밟는 구두는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애자는 곧 그가 가까워 옴을 알았다.

동쪽으로 얼굴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역광(逆光)의 얼굴은 그대로 그늘이었으나, 몸 전체에 반가움과 송구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좀 더듬는 것 같은 어조로

"낮에 회사에 갔더니 안 계셔서…… 우 선생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제서야 송영호는 자기가 애자를 불러 놓고 잊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 '남이 눈 똥에 주저앉는다'는 점잖치 않은 속담을 들은 것은 주책배기 식모로부터였었지만, 애자 어머니와 민 사장 사이에 자기가 끼여들어 가게 된 것은 그 점잖치 못한 속담 그대로라고 생각되기만 하여, 성의가 없기도 하였겠지만

애자 자신을 경시(輕視)하고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어 미안쩍은 마음이 들었다.

송영호는 어설퍼지려는 태도를 짐짓 쾌활한 어조로 덮으며

"낮엔 참 실례가 많았어요. 갑자기 상공부에 갈 일이 생겨서……"

말하고 나선 겨드랑에 진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애자와 약속한 시간, 그는 전람회장에 있었다. 일 주일에 걸친 전람회가 끝나는 날이었다. 폐장 시간은 다섯 시라고 듣고 있었다. 그는 열한 시 반에 신문회관에 들렀던 것이다.

끝날 선영의 그림이 다시 한 번 보고 싶었다. 첫날에 느꼈던 감동은 그 동안 겪은 뜻하지 않았던 사건들 때문에 알쏭달쏭해졌지만, 캔버스에 표현된 형상은 잊었으면서도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인상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그는 선영의 그림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선영 자신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때마침 선영은 회장에 있었다. 회장은 마지막 날이라 출품자의 대다수가 와 있어, 초일처럼 붐볐다. 그 잡답 속에서 언저리에 어느 정적(靜寂)을 자아내면서 선영은 방심한 듯이 어느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약간 기울어진 채 길이대로 뻗쳐 있는 희고 긴 목에 숱이 많은 검은 머리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의 체취와 체온으로 물씬거리는 회장 안에서 거기만은 공기가 희박해진 것처럼 그 모습은 써늘해 보였다.

조용히 서서 아무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세 같기도 하여 송영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윽고 그는 나중 생각을 좇았다. 그는 똑바로 그녀 앞으로 가 서서 가만히 선영의 이름을 불렀다.

"선영씨."

선영은 조금도 놀라지 않은 조용한 태도로 소리 난 쪽을 돌아다보았다. 조용한 것은 그녀의 천성이었지만, 송영호에게는 그 태도가 자기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같이 보여져 한결 용기가 났다.

그러나 돌아본 선영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긴 속눈썹이 좀 위로 치켜졌을 따름이다. 거기에 구애 않고 그는 덮어 말했다.

"피로허셨겠어요. 오후엔 그림 반출두 허셔야 하구 지치실 테니 좀 쉬두룩 허시죠."

대꾸를 기다리지 않고 그는 선영의 뒤로 가 섰다. 같이 나가자는 몸가짐이었다. 뜻밖에도 선영은 말없이 발을 옮겼다. 두 사람은 햇볕이 쨍쨍 쪼이는 거리로 나갔다. 선영은 자신의 의사를 잃을 만큼 피로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녀는 기다리고 기다림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에 나가 있었다.

박창근이 한 번은 들르리라고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그러나 창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제작은, 고백(告白)은, 허공에 던져졌던 것이다.

그런 선영을 옆에 하며 송영호는 소중한 무엇을 지키고 가는 심정이었다. 그는 신문회관 뒤 주차장에 자기의 승용차가 머물고 있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선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둘은 말없이 내리쪼이는 햇볕 밑을 걸었다. 선영은 어느 방척(放擲)을 느끼면서. 또 송영호는 현실(現實), 일찍이 모르던 현실이, 어디에곤 어느 때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한문 앞까지 이르렀을 때 사이렌이 울렸다.

열두 시—그제야 송영호는 이마에 내솟은 땀방울을 감각했다.

"차를 붙들까요? "

마치 목적지가 있는 것이나처럼 송영호가 물었다.

"걷겠어요."

선영은 잘라 말하고, 그들은 또 걸었다.

신촌으로 뚫리는 샛길로 꺾어들어 한참을 걷다가 송영호는 문득 발을 멈추었다.

홍실을 양 옆으로 걸어 내린 검은 간판에 부용루(芙蓉樓)라는 금문자(金文字)가 쓰여진 집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여 그의 눈을 끈 것은 그 집이 아니고, 푸른 칠을 한 중국식 난간이 쳐진 이층에 일렬로 놓여진 여러 개의 화분에 타는 듯이 피어 있는 '하이비스커스'의 꽃들이었다.

하이비스커스—남국의 꽃, 타국 안에 있는 고향의 꽃…….

그는 그 앞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 송영호는 그 집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이윽고 단호한 어조로

"들어가세요"

하고 선영을 앞세웠다.

선영은 역시 무의지의 사람처럼 그의 말을 따랐다.

하이비스커스—하와이의 부용꽃은 부용루 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한산한 음식점 안에는 구석진 자리에 중년 남녀가 한 쌍 앉아 있을 뿐 꽃도 다른 사람도 눈에 뜨이지 않는다.

"어서 오십시오."

스무 살 안팎의 중국 청년이 유창한 한국말로 맞이하며 안에서 나왔다.

"이층엔 자리 없소? "

송영호가 말했다.

"있습죠."

"그럼 꽃이 보이는 방에."

"저어리로 올라가십쇼."

중국 청년이 가리키는 허술한 나무 계단을 그들은 밟고 올라갔다.

이층은 텅텅 비어 있었다. 이름난 요릿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이 요기나 하고 가는 집인 모양이다.

송영호는 하이비스커스가 보이는 자리에 가 앉았다.

살쪽 밑을 길게 길러 포마드를 더덕더덕 바른 중국 청년이 한참 만에 물수건을 들고 왔다.

"뭘 잡수시겠어요? "

나약한 말투가 그대로 서울말이다. 암만해도 좀 야릇한 억양이 섞이는 모국어를 하는 송영호는 입가에 쓴 웃음이 번진다.

"뭐가 있지? 젤 맛있는 것."

"뭐든지 있습죠. 탕수육 · 팔보채 · 냉채, 에…… 중국냉면."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것을 누르고 그는 몇 가지 요리를 주문했다. 청년이 내려가도 선영은 물수건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물수건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집에 걸맞게 구질구질하고 질펑했던 것이다. 그녀는 난간 앞에 놓여 있는 하이비스커스의 꽃을 보고 있었다. 곱다는 느낌뿐 아무런 감회도 없다. 송영호 역시 같은 꽃을 보고 있었다. 곱다는 생각보다 갖가지의 추억이 거기 어려 온다. 반가웠다. 고향의 꽃, 하와이의 베스의 머리에 곧잘 꽂혀지던 꽃. 그는 시선을 선영의 얼굴로 옮겼다.

조모의 죽음 이래 줄곧 입고 있는 흰옷 차림의 그녀의 머리에 마음 속으로 하이비스커스의 꽃을 꽂아 본다. 단려한 흰 얼굴에 그 꽃은 좀 수다스럽다. 그는 마음으로 다시 그 꽃을 그녀의 머리에서 빼어 버렸다. 그러자 꽃 이야기를 하려던 의사가 사그라졌다.

그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영씬 비행기 타신 일 있으세요? "

선영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쪽 고른 이를 드러내며 생긋 웃었다.

"촌색시지요? "

"심규(深閨)의 영양이지요."

"중국집에, 그리 친하지두 않은 남성허구 들어온……."

"친한 남성이라구 해주시지. 하하……."

송영호는 마음이 부풀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선영과 대화(對話)를 가졌던 것이다. 그때껏은 이쪽 말은 모조리 가운데 벽에 부딪쳐 저쪽에까지 닿아 본 일조차 없었다. 선영은 언제나 그 말이 닿지 않은 곳에 비켜 서서 증오에 찬 눈으로 오만하게 노려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증오란 역시 관심의 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얼굴에는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보이는 장난스러운 표정마저 번져 있었다. 그런 일은 그녀 자신에게도 알 수 없는 변화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송영호가 좀더 이성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런 변화 속에 모멸(侮蔑)을 느꼈으리라. 어느 열등감의 전환처—선영이 박창근으로 하여 언제나 안아야 되는 착잡한 감정에 가까운 무언가를

이 이국 태생의 나이 찬 청년이 선영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여성 속에 숨어 있는 잔인성이 친밀감을 주는 표정으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기만이라 할지라도 송영호에게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조국에 돌아온 이래 급속도로 어른이 되어 간, 고쳐 말하면 침울해진 그는, 깊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평안만 하고 명랑만 하던 고향의 시절에 돌아가는 것 같았다.

송영호는 식탁보도 덮여 있지 않은 더러운 탁자 위에 두 팔을 얹어 좀더 선영의 얼굴과 가까워지면서

"난 열세 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죠. 전쟁이 끝나던 햅니다. 선영씬 아까 '촌색시죠'라고 하셨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엔 혼돈 속에 살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손짓을 마구 한다. 바라보는 선영의 마음에는 더욱 여유가 생겼다.

"동화(童話)의 세계에서 아주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하면서, 과학에 코끝을 처박기 시작하는 나이였죠. 구름이란 신비스러운 것, 우리 위에 있는 것, 이런 생각이 어린 머리에 박혀 있으면서 또 학교서 배운 구름의 정체(正體), 즉 구름이란 기상(氣相)과 수증기의 장난이라는 과학적 지식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두 상극허지 않구 말이죠."

요리는 좀처럼 들여오지 않았다. 잘 팔리지 않는 집이 늘 그렇듯 준비부터 해야 됐던 모양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사실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애초부터 식욕이 없었던 탓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며 난 정말 놀랐어요. 구름, 구름, 그 구름은 우리가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구름이 아니더군요. 우리의 눈 아래 크게 적게 저마다의 무게로 떠 있는 구름들은 그대로 섬같이만 보이고, 그 섬과 섬 사이에 찬란한 무지개가 걸리곤 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현실(現實)이 있더군요."

송영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감동이 어린 마음에 너무 컸어요. 떠 있는 구름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덧없는 것이라 할지라두 한때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 속에 파고든 것, 그것만으루 흐뭇했고, 또 현실이란 가시적(可視的)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송영호는 말을 끊고 선영의 눈을 가만히 쳐다본다. 긴 속눈썹이 드리운 눈은 깊고 거기엔 이제 장난스러운 빛은 없었다.

"난 내 나름으로 유치한 신념(信念)을 갖게 되고, 그것을 좇게 되었지만, 과학자란 자칫 잘못하면 무척 옹졸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어될 때가 있어요. 사물(事物)을 너무나 또렷이만 보려는 사람, 사물을 확대시키거나 혹은 변모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

선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인간의 우매를 걷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눈에 낀 비늘을 벗기는 사람들…… 전 존경해요."

송영호의 얼굴에는 오히려 고뇌 같은 것이 스쳤다. 그만큼 그는 기뻤을지도 모른다.

"허지만 예술가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질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죠."

"전 예술가라곤 할 수 없으니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이란 광영(光榮)이 아니구 저주(詛呪)라구 합니다. 어려워 모르겠지만."

요리가 날라져 왔다. 맛도 형편없는데다가 두 사람은 다 식욕이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고부터는 서로 말수가 적어지고 그들은 곧 그 부용이 피어 있는 집을 나왔다.

상공부에 갔었더라는 거짓말을 애자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 모양이어서 송영호는 이내 평정으로 돌아갔다.

애자에 대한 감정이 너무 담담했기 때문에 말만으로도 실수의 수습이 되었던 것이다.

"안으루 들어가실까? "

송영호가 물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이런 정원 참 처음이에요. 여학교 대 유수(幽遂)라는 말을 배웠지만 이미지가 떠올라 오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유수란 형용사를 실감했어요."

애자는 말을 마치고 정원을 둘러본다.

"내가 설계한 건 아니지만 나두 이 정원에 끌리어 이 집에 살게 됐죠."

송영호도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우 군이 같이 왔다구요? 그럼 그는 돌아갔나요? "

"아니, 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하고 애자가 일각문 쪽을 가리켰다.

"인사를 드리고 오시겠다구."

순간 송영호는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느꼈다. 애자 어머니의 죽음 후 사흘 만에 민 사장 역시 세상을 떠나자, 당사자끼리의 문제는 죽음이 해결해 준 격이 되었지만, 천애 고아가 된 애자를 버려 둘 수는 없었다. 물론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다. 다만 야릇한 경위로 터무니없는 역할을 맡아야 됐던 것이다. 상처를 입은 짐승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음으로써 그 상처를 고치며 산다고 한다. 그러나 송영호에게는 핥음을 받아야 할 상처가 없다.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은 가해 의식(加害意識)이 민 사장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피해에 앞섰다. 묘한 마음의 음영이다. 그리하여 그는 뜻하지도 않았던 애자의 보호자가 되고 만 것이다.

애자는 살던 집에 식모와 둘이서 남았지만 그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젊은 처녀에게 집까지 마련해 줄 마음도 내키지 않았거니와, 젊은 여학생이 호주로서 집칸을 지니고 경영한다는 것도 위태로웠다. 두 장례를 치르느라고 경황도 없었지만 애자에 대한

방안은 서지 않고 있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오라고는 했지만 만났어도 할말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던 차에 안채로 통하는 일각문이 앞으로의 통로를 열어 준 것이다. 송영호는 칠칠하고 범절 높은 방골 아주머니에게 애자를 부탁하리라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창 유리에 비꼈던 노을이 사라지자 언제나처럼 사랑채 방마다 불이 켜졌다.

애자는 황홀한 듯이 그 음악적인 아름다운 집에 눈을 주고 있었다. 발바닥이 촉촉이 젖어 왔다. 정충권씨는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일각문 쪽으로부터 사람이 나타났다. 애자는 눈에 뜨이도록 흠칫 했으나 나타난 사람은 재민이 아니고 죽순골 노인이었다. 언제나처럼 말을 잃은 사람 모양 그는 주인에게 허리만 굽히고, 누워 있는 정충권씨 옆에 가서 가만히 노인의 상반신을 일으킨다. 정충권씨의 눈은 감긴 채였으나, 그는 죽순골 노인에게 몸을 내맡긴 채 잔디 위에 일어섰다. 두 노인은 어울려 일각문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두 안채루 들어갑시다."

송영호가 애자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뉘 댁이신데요? "

"우리 안댁. 미스 정이 앞으로 사시게 될 댁이지요."

"제가요? "

"싫으시다면 헐 수 없지만 미스 정이 사시던 댁은, 실은 지금 남의 집이니깐요."

이 말은 애자에게 충격을 준 모양이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그때껏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재민을 따라 석류나무집으로 가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늘어놓아, 재민의 마음을 언짢게 했었다.

"우선 집을 팔겠어요. 제겐 너무 크니깐요. 그돈으루 알맞은 장소에 아트 디자인 부띠크를 하나 내겠어요. 그러면 생활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구, 내년이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깐 그럭저럭 잘 될거예요."

차마 한 집에 살자는 말은 못했으나 애자는 잠시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아픔을 잊었었다.

그 집이 남의 집이라니—애자는 일각문까지 가는 도중에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다. 몸이 남의 몸 같았던 것이다.

방골 아주머니는 약간 모로 선 자세로 송영호의 청을 듣고 나서 천천히 애자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으스름 속이었으나 송영호는 비로소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단호한 의지력의 소유자답지 않은 조촐한 몸집은 상사 때 안 일이었지만, 얼굴 역시 튀어난 이마며, 찌블찌블한 눈, 잘 다물어지지 않는 두툼한 입술, 모두가 우둔하여 민첩하고 눈치 빠르고 솜씨 있고 깔끔한 살림살이와 만사에 화안한 범절을 가진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인다.

송영호는 말을 하면서도 어리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방골 아주머니는 한참을 반은 감긴 것 같은 그 찌블거리는 눈으로 애자를 훑어보았다. 미련해 보이는 입술에는 맺힌 데가 조금도 없었으나, 송영호는 차츰 이 부인에게 외포(畏怖) 같은 것을 느꼈다. 반쯤 감긴 것 같은 찌블거리는 눈이었건만, 이상하게 날카로운 빛이 홱 스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서였다.

방골 아주머니는 또 모로 얼굴을 돌리고,

"사장님의 청이신데 어찌 제가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깍듯한 고운 서울말로 대답했다.

"미스 정, 내가 너무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루 생각하겠어요. 아까참 마음이 끌리는 집이라구 허셨죠? 이 집에게 끌려들어 사는 사람들이 모인 셈이죠. 그리구 친구도 계십니다."

송영호는 애자의 대꾸를 듣지 않고

"선영씬? "

하고 방골 아주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저녁에 무슨 모임이 있다구 했습니다. 전람회가 끝난 뒤라 모여서 수고풀이라두 허려는가 봅니다."

"그럼 나가셨어요? "

송영호의 어조에는 저도 모르게 실망이 어렸다.

"아직 나가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림 액자를 돌려 오느라구 마악 들어왔어요."

"애자씨허구 같이 계시게 될 테니깐 인사라두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방골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러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기 전에 선영이 먼저 대청으로 나왔다. 역시 흰옷 차림이다. 그녀는 대청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약간 놀란 모양으로 창문 옆에 우뚝 선다. 그 뒤에 재민의 늘씬한 모습이 보였다.

"인사하시죠, 정애자양. 사정은 방골 아주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선영씨와 같이 계시게 될 분입니다."

송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밝지 않은 광선이었으나 선영이 미간을 모으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그는 당황을 느끼며 애자 쪽을 돌아보았다. 애자의 얼굴에도 역시 경계와 적의 같은 것이 감돈다. 그녀의 시선은 선영을 넘어 재민에게로 뻗었다.

이윽고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전, 전 딴 데로 가겠어요."

애자가 더듬으며 말했다. 송영호는 '왜?' 하는 물음이 나오지 않았다. 애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았던

것이다. 어설픈 공기가 흘렀다.

아무 움직임도 없는 사람들이 조상처럼 서만 있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 송영호는 그런 것을 참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불안 상태는 선영의 움직임으로 쉽사리 깨어졌다.

"실례합니다. 전 시간이 없어요."

또렷이 말하고 댓돌의 신을 찾았다. 다섯 벌 높은 댓돌을 채 다 내리기 전에 방골 아주머니의 얕으나 단호한 음성이 울렸다.

"선영아! 인사하구 가거라. 오늘부터 같이 살 우리 식구다! "

착종(錯綜)

재민이 집에 돌아간 것은 일곱 시 전이었다. 네 시경에 회사를 나간 사장이 나가면서 오늘은 별일 없을 것 같으니 일찌감치 돌아가 쉬어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웅이 기쁨을 참지 못하는 얼굴로

"형, 아직 시간이 있어"

했을 때 처음엔 얼핏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때껏 아침의 재웅의 말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재웅은 매어 달리듯

"형! 애자 누나가 낼 떠나게 됐다구 송별회를 하재. 일곱 시 반꺼진 돌아와 줘요"

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는 애자의 송별회 때문에 일찍 돌아온 것이 되고 재웅은 그것만으로 행복해 보였다.

재민은 펌프 가에서 세수를 하며 방에서 새어나오는 재웅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아아,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 본 심정……

변성기의 야릇한 소리가 노란 셔츠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연계(軟鷄) 수탉이 처음 홰를 치는 것 같은 괴상한 느낌을 주었다. 재민은 며칠 전 그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여드름을 짜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 씁쓸히 웃었다. 열일곱, 그 괴상한 소리와 여드름은 우람하게 자란 아우의 건강한 몸에 담기고 남은 것들이 넘쳐 나온 느낌이어서 씁쓸하나마 그의 웃음에는 대견함이 섞였다. 그는 일찍 돌아와서 잘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애자의 집은 이삿날을 하루 앞둔 집 같지 않게 흐트러진 데가 없었다. 손질을 잘 가 있는 자개 세간도, 대청에 놓은 응접세트 같은 것도 그대로였다. 조촐하면서도 연연한 살림짜임에 재민은 언젠가 재웅이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형! 기생 지친 것이 뭐유? '

여자만의 살림인데도 남자의 체취가 농후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인상은 재민에게는 무던히 어색하여, 그는 푸욱 몸을 감싸는 안락의자에 잠기듯 앉으면서 집 둘레를 돌아보았다. 옆집에 살면서 그는 애자 어머니의 장례식 때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고, 초상 때는 온통 뒤집혀진 인상만을 받았던 것이다.

스무 칸이나 될까, 단촐한 식구로는 휘기 어려울 만큼 제법 큰 집이었다. 노르께하게 결은 고운 대발이 문마다 드리워지고 낡은 대로 품질이 좋은 세간들이 놓인 방은 조청빛으로 길이 들어 있었다. 화류 문갑 위에는 꽤 값이 나가 보이는 장식품도 놓여 있고, 문갑과 같은 결의 조각된 화류 화대

위의 약간 일그러진 이조백자 항아리 가득히 여름 국화랑 다알리아 같은 꽃이 꽂혀 있다.

응접실로 쓰여지는 모양인 대청에는 한 켠에 기명절지(器皿折枝)의 가리개가 있고, 가운데에 고운 사기 그릇들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찬장, 그리고 반대편에 아주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으로 된 신식 가리개가 보였다. 재민의 눈에는 너무도 풍유한 모습들이라 애자 어머니가 돈에 몰려 그 지경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차려 내 온 상도 역시 만반 진수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성찬이어서 그는 좀이 쑤시는 심정이었다. 십여 년이나 있었다는 용경 어머니라는 식모는 기를 쓰듯 음식을 장만한 것 같았다. 억지로 권을 받아 앉은 수방석 위에서 재민은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성찬을 앞에 하고 오히려 식욕이 없었다. 묵직한 옛풍의 은수저도 익숙지 않아 손에서 자꾸만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았다.

흰 원피스에 아플리케한 에이플런을 액세서리처럼 둘러 맨 애자의 얼굴에는 고아가 된 슬픔도, 내일이면 집을 내 주어야 할 시름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닭찜을 재민 형제에게 권하며 명랑하게

"미네바 백화점에 취직된 얘기 내가 했었던가? "

하고 재웅을 쳐다보았다.

"취직? "

재웅은 닭다리를 뜯다가 큰소리로 외치고 형의 표정을 살폈다.

"잊어버리구 있었군. 미네바 백화점 실내 장식부 있잖아? 거기 지배인이 찾아왔었어. 접때 전람회 때 내 작품을 봤다나. 그래서 점내 장식이랑 윈도우 것두 좀 맡아 해봐 달래. 물론 지금두 전문가가 있지만 사람을 늘리겠다구. 졸업꺼진 몇 달 남았지만 졸업 전이라두 학교 다니면서 일을 봐 주면 좋겠다구."

"그래, 요즘은 응미과(應美果)만 나오면 막 팔린다더라. 퍽 현대적인 직업이지 뭐야."

재웅은 신이 났다.

"그럼 이살 가지 않아두 되지 않아? "

애자가 한숨을 푹 쉬었다.

"이 집은 남의 것이 된걸 뭐. 오막이라두 오래 살구 보니 정두 들었지만 허는 수 있어? 우선 몸붙일 데가 없으니 그리루 갈 수밖에."

그러면서 그녀는 처량한 기색이 없다. 타고난 순응성(順應性) 때문일까. 생활 양식만은 부유층의 그것으로 자랐건만 선영처럼 언제까지나 낡은 것에 눌리어 있는 느낌은 없다. 눌려질 만큼 쌓인 것을 애당초 갖지 못하는 까닭일지도 모른다고 재민은 펑퍼짐한 평범한 얼굴을 고쳐 보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끼는 것이었다.

"그래두 모르는 집에 어떻게 가서 살려구."

재웅이 제 일처럼 걱정하자

"피난 간 셈만 잡지. 1·4 후퇴 때 난 열 살이었지만, 웬지 신만 나더라. 어른들은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변화가 있구, 스릴두 있구, 후후……."

애자는 활짝 웃었으나 맑은 눈에 피가 모여들었다. 재민은 비로소 따뜻한 마음으로 애자를 자기 가깝게 느꼈다. 언젠가 다방 '가로수'에서 돈 걱정을 하던 애자의 화려한 차림에 이상한 잔인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 상기되자, 그는 무딘 자기 감각이 쑥스러웠다. 어쩌면 이 집에 늘어져 있는 이 화려한 물건들은 갖다 버려졌다는 의미에서 쓰레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상념은 재웅이 말한 '기생 지친 것'이라는 말을 저변(低邊)으로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사람은 기생집에서 쓰는 돈을 누구나 '기생집에 갖다 버렸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단칸방에 놓인 쓰레기나 진배없는 초라한 헌 책상이랑, 첫 월급으로 간신히 산 중고 캐비넷, 우그러진 양은 취사 도구 같은 것이 오히려 값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억지 같은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과는 반대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수방석도, 묵직한 옛풍의 은수저도 서먹하지 않았다. 젊은 왕성한 식욕도 돌아와 있었다.

그러면서 의식 깊은 어느 곳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가는 것을 그는 어찌할 수 없었다. 폐원(廢園)의 모습이 눈에 떠올라 오는 것이다. 이름은 몰라도 새하얀 고귀한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버려진 광경이었다. 가꿀 사람을 잃은 꽃은 여위어만 가는데, 그때껏 눈에 뜨이지 않던 잡초가 땅에서 솟듯 나기 시작하자 이내 왕성한 생명력으로 무성해 간다. 곱던 꽃은 점점 여위고, 우거져 가는 잡초는 잡초대로의 존재를 과시하는 꽃을 피우는 것이다. 세월이 흐른다. 꽃은 잡초에 묻히고 폐원을 덮는 것은 잡초뿐, 그러나 어쩌면 이 폐원의 원주인은 그 잡초였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 포장한 거리에는 지금 잡초의 한 포기도 볼 수 없지만, 이 거리가 서기 전에 이 거리를 차지했던 것은 잡초들이었듯이—상념이 이렇게 비약하면 마음이 놓여야 될텐데 재민은 아련한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선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 예감과 같은 상념은 어느 정도 옳은 것이 되어 갔다.

석류나무집으로 옮긴 애자는 처음부터 서먹한 기색이 없었다. 몰린 자리에서 바로 맞서는 어떤 종류의 동물처럼 당돌했다. 어머니의 생활 태도, 그녀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어머니의 생활 태도를 그녀는 미워하면서 배워 몸에 붙였던 것일는지 모른다.

건물 자체의 음악성을 살리기 위하기라도 하려는 듯 사람이 소리를 죽이고 살던 석류나무집에는 아침부터 밝은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

라든가

"학교에 갔다 오겠어요"

라든가 하는 예사로운 인사말이 집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고요 속에서 무슨 대사(臺詞)나처럼

두드러졌다.

애자는 수다쟁이 식모하고 어울리고, 벙어리처럼 말이 없는 죽순골 노인하고도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송영호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곧잘 정충권씨와 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충권씨는 선영의 말을 어기지 못하듯 애자의 말에도 순순히 따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두 소녀의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즉 선영은 삼촌이 일각문 이쪽 정원에 있는 것을 보면 단호한 태도로 끌다시피 하여 안채로 들어가게 했고, 반대로 애자는 노인을 되도록이면 정원으로 이끌어 내려 했다.

송영호도 애자와 있을 때면 긴장이 풀렸다. 농담도 오갔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집에 살면서 멀리멀리 있는 선영이 더욱 의식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송영호는 일각문 곁에서 애자와 어울려 웃고 있는 방골 아주머니를 보았다. 방골 아주머니와 웃음, 두 가지는 합쳐질 수 없는 것만 같았는데……. 영호는 어안이 벙벙하다기보다 어떤 엄숙한 것을 본 느낌이었다. 생명력의 팽창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교할 것은 되지도 않는다고 느끼면서 그는 언제부터인가 애자를 대할 때마다 선영을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이때 '살고 있고, 또 살려고만 하는 생명'의 강인성과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다 '꽃'이어야만 할 숙명을 지닌 존재의 연약함을 느꼈다.

그는 어떤 쪽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순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심정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가 대지 위에 확고하게 발을 딛고 있는 데 대하여, 다른 하나는 가냘픈 꽃줄기를 의지하며 하늘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위태롭고 슬픈 것인가? 하여튼 내려오는 대가에서 어엿이 빛을 보고 자란 선영은 언제나 어딘지 우아한 음영을 지니고 있고, 기생의 딸로 이른바 '그늘'의 아이로 자란 애자에게는 강한 햇볕을 쪼이며 그것을 이기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있었다.

'살아야 된다'는 위대하고 평범한 상식(常識)과 '두드러져야 된다'는 좁고 외로운 길과—그리고 이때 송영호는 어쩔 수 없이 상식의 편에 서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외로운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자신을 또렷이 깨닫는 것이었다.

미네바 백화점의 장식부의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는 애자는 얼마전에 끔찍한 참극으로 고아가 된 느낌은 없고, 탄력에 차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였다.

송영호는 요즘 와서 가끔 뜻하지 않았던 일에 부닥쳐 어리둥절할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나가 보니 여비서와 자기 자리 사이에 놓였던 나무로 만든 가리개 대신 아주 소쇄한 꾸밈새의 그림 가리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의아스러운 표정을 여비서가 재빨리 읽고 웃으면서

"오늘 이른 아침에 애자씨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녀는 아직도 애자와의 즐겁던 대화가 그대로 상기된다는 얼굴이었다.

"흠."

송영호는 말하고 그림에 시선을 보냈다.

사슴과 기화 요초(琪花瑤草)와 구름—그런 것을 도안화한 멋쟁이 가리개였다. 세련되고 아담하고 즐거운 그림이다. 그는 문득 전람회에서 본 선영의 그림을 머리에 떠올렸다. 나선이 주축이 된 그 추상화는 문외한인 그에게는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무엇인가 감동을 주었었다.

물론 본격 회화를 이 응용 미술품과 비기는 것은 오산이라기보다 모욕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즐겁기만 하고 곧 이해할 수 있는, 즉 '아아, 사슴과 꽃과 구름의 그림이구나'하는 이 화면은 그저 그뿐, 망막(網膜)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는 느꼈다.

그리고 이 망막보다 더 깊은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애자의 작품은 석류나무집의 그 알 수 없는 요기(妖氣)를 띄운 방이라든가, 누마루 벽 같은 데도 걸리게 되었는데, 그런 데서처럼 장식(裝飾)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치곤 결국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느낌을 줄 때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런 일로 송영호와 애자의 사이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사이란 외견 아래서 급속도로 가까워져 갔다.

석류나무집에서의 이러한 애자의 생활 태도는 재민에게 우선 안도를 주면서 한편 착잡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하였다.

사람이란 시간적인 달력[曆] 위의 연령보다 경험이라는 생활 연령(生活年齡)에 의존할 때가 더 많다. 그는 애자와 어울리는 사장을 볼 때, 자기와 사장과의 육 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그대로 전도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얼마 동안 선영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선영의 성격으로 보아 애자와 한집에 산다고 적의를 가진다거나, 또 친숙해진다거나 하는 일은 생각키지 않았다. 선영은 자기가 관심하지 않는 일에는 대범한 성격이었다. 그리고 어느 모로나 이질적인 애자에게 그녀가 관심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재민은 또 죽순골 노인이 자기의 종조부라는 것을 애자가 아는 것이 싫었다. 그것은 그가 뜻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애자 속에 있는 자기의 환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애자의 위치에 관한 문제라고 그는 귀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재웅이

"애자누나 접대 미도파 앞에서 만났는데 아주 달라졌더라. 놀러 오래니깐 바빠서 못 온다나. 뻐기더라"

하며 불만해하는데 동감이 가는 것 같았다. 질투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전람회에 동행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는 달랐다. 그때 느낀 것은 남성으로서의

그것이었고, 지금 느끼는 것은 계급을 의식한 그것이었다. 그만큼 그는 민감해져 있었는지 모른다. 그때의 사장의 태도는 절박하고 진지했고, 지금의 그것은 여유가 있고 즐거워 보이면서 장난스러운 데가 있었다.

그러한 감정상의 명암은 팔월이 거의 다 갈 무렵 회사에서 놀러 간 청평에서 더욱 짙어졌다.

민 사장의 뒤치닥거리가 아니더라도 금강 부근에 새로운 철광맥을 발견했다는 어느 광산주와의 결탁으로 송영호의 개발 사업은 더욱 바빠져서 더위를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 여름이 다 가려고 하고 보니 그대로 보낸 것이 섭섭하여 하루를 사원들과 물놀이를 간 것이었다.

이 사원 위안을 겸한 놀이에서 제일 떠들고 즐거워한 것은 사원이 아닌 애자였었다. 곰곰이 보면 그녀의 태도에는 과장과 부자연한 데가 있었으나, 재민의 눈에는 경박하고 어느 때보다 '기생의 딸'로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에게서 관심이 떠나 있는 것같이 보이는 그녀가 어쩐지 아쉬운 듯도 한 야릇한 심정으로 재민은 노천에서 굽는 불고기 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가난하게만 자란 그는 청평이란 이 분명히 한국땅임에 틀림없는 고장이 외국이나처럼 어색스러웠다. 팔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라고 했지만 노염이 심해 수온도 높고 햇볕도 째앵하여 물놀이에는 적합한 날이었지만, 그는 웬지 서먹하고 을씨년스러웠다. 꽃같이 버려진 비치 파라솔이라든가, 형형색색의 화려한 색채의 수영복, 선글라스, 솔밭 사이에 산재하는 방갈로풍의 휴식처, 수상 스키—잘못 찾은 번지 같은 그곳에서처럼 자유스러워 보인 일이 없는 사장이 먼먼 거리의 사람만 같았다. 수영 팬츠만 입은 사장은 미끈한 육체를 가진 호남자였다. 해에 타서 주근깨가 솟은 외국인들과는 또 다른 외국인이 재민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매어 달리듯 날치는 애자는 자기와도 또 송영호와도 먼 거리에 있는 어색한 존재만 같았다.

송영호는 수상스키에 능란했다. 애자가

"나두 했음……"

하자

"퍽 쉬워. 내가 가르쳐 주지"

하고 모터 보트 쪽으로 걸어갔다. 언제부터선지 그들은 친숙한 말을 쓰고 있었다.

우선 시범으로 송영호가 한 둘레 여울 안을 돌고 나서, 이번에는 보트의 조종실에 앉고 손짓으로 애자를 부르는 것이 보였다. 노오란 수영복 차림의 애자가 보트 옆으로 다가가자 그는 일어나 서서 그녀의 발에 스키를 신겨주고 보트 끝에 달린 로프를 두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위태위태한 자세였던 애자는 보트가 달리기 전에 로프를 놓치고 물 속에 뒤로 빠졌다. 그러자 송영호가 재빨리 그 위에 덮치듯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보고 있던 재민은 거의 생리적인 구토증이 일어나는 것을 누를 수가 없었다. 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자를 그렇게 건져 낼 수밖에 없는 것을 뻐언히 알면서도 그들이 어울리는 자세가 잡스럽고

불결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재민은 정리 일을 맡았던 것을 다행으로 수영복은 입었으나 물에 들어가지 않고 줄곧 먹을 것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돌아오는 도중에 애자가 풀이 죽어 있던 것도 그는 모르고 있었다.

애자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일까? "

애자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다.

"늙으신 분들이겠지 머유."

주책배기 식모가 받아 말하고 까닭없이 끼룩끼룩 웃는다.

"뭐라구요? "

"주인님의 부모님이시라믄 늙으신 분들이시지유."

"사람두."

애자의 어조는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바뀌었으나 자신도 명랑한 웃음을 터뜨렸다.

방에 틀어박혀 로댕의 소묘(素描)집을 들척거리고 있던 선영은 밖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굉장한 부자시라나유."

"하와이 교포—돈 많구, 무식허구, 괴물처럼 살이 찐 괴물 같은 사람들일지 누가 알우. 언젠가 반도호텔에서 조국 방문 왔다는 교포를 보구 질렸었거든."

애자 말이 끝나긴 전에 방골 아주머니의

"그런 못된 소리를 허는 것 아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의 손에서 무거운 소묘집이 소리 내며 떨어졌다. 가슴은 그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며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의식중에 방 한가운데 가서 우뚝 서 있었다. 첫번으로 머리를 스친 것은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이었다. 무엇이 끝났는지는 스스로 몰랐다. 그것은 이 불안정한 생활이 끝났다는 것인지, 자신의 고집스러운 닫쳐진 마음과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어떤 갈구(渴求)가 끝났다는 것인지, 스스로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또 어느 깊은 곳에서 그 불안과 갈구는 이 집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불안과 갈구가 얽히지 않은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프게 느꼈다. 그러자 고독이 마치 촉각에 닿아 오듯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밖에서 주고받고 있는 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두들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

등을 돌린 자세로 들을 때 그것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 단순한 호기(好奇)도 속 없는 어리석음같게만 들리는 것이었다.

선영은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발이 처음부터 목적이나 한 것처럼 사랑 정원으로 움직였다.

열린 채인 일각문을 나서자 정충권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오늘도 새하얀 한복 차림이다. 등가 밑에 놓인 긴 등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잠이 들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너무 헐렁한 고의 적삼은 때로는 수의(壽衣) 같게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가진 일이 없다. 너무나 어려서부터 보고 익힌 까닭일까? 선영은 송영호가 노인에게 느끼는 드라마를 느껴 본 일도 없다. 노인은 애초부터 어린 선영에게는 지금대로의 모습으로 있었다. 결혼을 한 일이 없어 늙은 지금까지 삼촌이면서 '작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인 정충권씨였다. 선영은 어려서부터 그 '아저씨'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던 것이다. 대화가 없으면서 의사가 통하는 사이라면 깊은 곳에서 맺어진 인연을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선영과 정충권씨에게는 대화도 없고 의사의 소통도 없다. 그러면서 서로의 혈관을 달리는 피가 이어져 있다는 끔찍한 인연을 덮어놓고라도 선영의 삶에서, 일상(日常)에서, 정충권씨는 빠져 본 일이 없다. 모든 인간적인 것에서 떠나 있다고 해서 물[水]과 같은 존재도 아니다. 물이라면 이쪽 그림자라도 어리겠지만 노인은 숫제 바위였다. 그래서 선영은 동녀(童女)가 바위 앞에서 무심히 놀며 혼잣말을 하듯 정충권씨와 더불어 자라 왔던 것이다. 그러던 사이에 격정이 얹히게 된 것은 선영의 마음의 동요 까닭이었다. '남의 집'이 된 후에도 아끼던 정원에 한사코 나가려는 노인에게 어느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영의 감정의 굴절이 심했던 탓이었다.

지금 가을이 깃들기 시작한 정원을 앞에 하고 선영은 삼촌의 순수성(純粹性)을 새삼 깨달았다. 잔디빛이 느낄까말까 하게 퇴색되어 있었다. 손질이 잘 가 있으면서도 어딘지 조락의 조짐이 보이는 모습—수장(袖墻)에 대어 있는 화개에 색색으로 피어난 국화꽃에도, 햇볕의 마지막 다사로움을 모아 호화로운 꽃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을 장미에도 현란함은 없고, 직사 광선을 꺼리기 시작한 아름다운 귀부인의 우수 깃든 우아함이 느껴졌다.

선영은 가슴 가득히 무엇인가가 고여 오는 것을 느끼며 고요히 삼촌 옆으로 다가갔다.

정충권씨는 자고 있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 하염없이 시선을 정원에 던지고 있었다. 소년처럼 맑은 눈에 정원이 깊이 멀게 어려 있는 것을 보고 선영은 마음에 아픔이 일어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이나 유리알처럼 사물을 어리고 있다고만 생각한 것은 어떤 착각이었던가. 주관(主觀)이라는 걸리는 것 없이 볼 수 있는 순수한 모습, 그것을 선영은 느꼈던 것이다. 이윽고 이 순간 선영은 치매(痴呆)가 된 이 노인에게 아픈 공감을 가졌다. 주검과 진배없는 노인은 주검과 진배없기 때문에 정신 착란이라든가, 증(症)이라는 병명이 붙는 치매가 된 생명 그 자체와 아무 관련 없이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이 끝나는 날 생명도 끝나게끔 숙명 지어진 것이지만 그는 삶을 가진, 송영호가 느낀 드라마를 가진 사람이었다. 어떠한 결정적인 것이 그로 하여금 '주검'으로 변하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는 어떤 저주된, 혹은 벅찬 영광된 순간에 이 삶을 통분(通分)해 버린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영 역시 심정적으로 그런 삶의 통분을 겪었던 것이다.

선영은 몸을 구부려 부드럽게 노인의 몸에 손을 얹었다.

"아저씨, 바람이 꽤 쌀쌀해졌어요. 감기 드시겠어요."

"어어……."

충권씨는 의미 없는 발성을 하고 선영을 올려다본다.

"나 곧 담요 갖다 덮어 드릴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어……."

여전히 무의미한 신음 같은 소리를 내는 노인을 두고 선영은 안채로 돌아갔다. 안채에서 들고 나온 담요를 노인의 몸에 덮어 주고도 선영은 그 옆을 떠나지 않았다.

잔잔한 마음이 돌아왔다. 끝났다. 쉴 수 있을 거야…….

마음으로 되고 여윈 손목을 들여다본다.

며칠 전 밤의 그 격정이 현실감만 탈락(脫落)시킨 채 또렷이 되살아 왔다. 전람회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창근은 전람회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일 주일 동안을 선영은 '참으며' 지내야 했다. 호흡조차가 겨워 그녀는 자주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참았다. 그러므로 일 주일 만에 그의 하숙에 전화를 걸 때에는 굴욕감은 없고, 애원 같은 것이 앞섰다.

창근은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덤덤한 어조였다.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오래 걸리세요? "

"글쎄, 어찌될지 가 봐야지."

"일이 끝나신 후엔? "

"아아, 별 예정은 없지만."

"그럼 그리로 가겠어요. 거기 어디죠? "

대답은 언젠가 같이 간 일이 있는 그 너절한 다방이라는 것이다.

선영은 다섯 시 사십 분에 그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딛고 올라갔다. 다방이라는 데를 그리 간 일이 없는, 더욱이 혼자 들어간 일이 없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면 언제나 느끼는 서먹함을 이 날도 억지로 누르며, 한쪽 마룻바닥이 실그러져서 놓임이 불안정한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녀는 눈을 들어 다방 안을 훑어 볼 용기조차 없어 누군가가 테이블 위에 버려 놓고 간 신문을 들어올렸다. 글씨가 점이 되어 눈앞에서 마구 날았다. 그러기를 십 분—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의논이지? "

창근이 앞 의자에 와서 앉은 것이다. 그는 선영이 들어오기 전부터 같은 다방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십 분이나 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말문이 탁 막혔다. 졸업이 다가오니 취직 부탁을 해보리라는 것은 그를 만날 정당한 구실을

얻기 위해서였다. 취직이라는 어휘가 실제 행동과는 유리되어 있어 감정에 밀착되어 오지 않는 것은 아직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태를 실감 못한 탓인가.

그녀는 눈을 깔면서 창근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딴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자 입술이 절로 깨물어졌다.

창근도 재차 묻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문 모양이다. 보라빛 엷은 연기가 선영 쪽으로 소리 없이 흘렀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저만치서 여자의 높은 음성이

"미스터 박……"

하며 날카롭게 들려 왔다. 놀라 눈을 든 선영 앞에서 창근이 한손을 번쩍 들며 기다리라는 몸짓을 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여자는 기다리지 않고 구두 소리를 또박또박 내며 옆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면 갈 테예요. 그럼 다음에. 빠이 빠이."

창근은 창황히 일어서며

"기다려! "

하고 소리쳤다. 이윽고 선영에게

"별말 없으면 다음에 만나지.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그는 겸연쩍은 듯이 씨익 웃고 엉덩이를 무슨 음악에나 맞추듯 흔들고 나가는 여자의 뒤를 쫓았다.

선영은 일어설 기력을 잃고 앉았다가 부끄러움이 와락 솟아 달아나듯이 삐걱거리는 계단을 달려 내려왔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무의식중에 한 골목을 돌고, 또 다른 길에 접어들곤 하여 나와 보니 최고회의 앞길이 눈앞에 보였다. 어스름 속에서 높은 건물은 방마다 하나씩 형광등이 들어오고 있었다. 거기에는 낮에 보이는 준엄함은 없고 어딘지 부드럽고 오손도손한 다사로움까지 느껴지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달려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를 일순 선명하게 떠올렸다가 사라지곤 한다.

선영은 보도 위에 발을 멈추어 멍하니 서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버려진 오직 한 몸—감상일지도 모르나 실감이었다. 그러는 그녀 앞에 새나라 차가 한 대 미끄러져 와 섰다.

"어딜 가십죠? "

택시를 잡으려는 것으로 안 모양이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순간 할일을 찾은 것 같아 운전사가 도어를 열어 주는 차 속으로 들어가 몸을 쿠션에 던졌다.

"어디를 갈깝쇼? "

"똑바루……."

힘없이 말하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젊은 운전사였다. 힘이 넘치는 것을 가까스로 억제나 하고 있다는 듯이 휘몰아치는 운전에 차체는 마구 흔들렸다.

"어디루? "

운전사가 또 물었다. 선영도 눈을 감은 채,

"똑바루."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차는 그렇게 얼마를 달렸다. 운전사가 또 물었다.

"어디루? "

"여기가 어디죠? "

"용산인뎁쇼."

선영은 시선을 창 밖으로 던졌다. 미군 감파운드 근처라고 짐작이 갔다. 퀀셋이 서 있는 앞에 철조망이 있고 군데군데 영자로 된, 그리 야단스럽지 않은 네온도 보인다. 이윽고 선영의 눈은 예기치 않은 것을 붙들었다.

블록 담 밑에, 쇠그물 담 앞에서 서성거리는 괴상한 차림의 여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어두움 속이었지만 몇몇 사람의 타는 듯한 진홍의 양장은 유달리 눈에 띄었다. 대개가 머리에 머플러를 쓰고 한데 모였다가 또 흩어져 서기도 하고, 서성대다가는 발을 멈추기도 하는 것이었다. 한복 차림이 아니어선지, 또 양장한 스타일이 한국적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척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어디루 갈깝쇼? "

재차 묻는 운전사의 어조는 이제 불안에 차 있었다.

"좀더 앞으루."

선영은 대답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 읽은, 표제의 이름은 잊어버린 책의 한 구절이었다.

<바빌로니아의 거리에는 밤마다 초야(初夜)를 앞둔 처녀의 저자가 선다. 처녀성(處女性)이라는 어느 마성(魔性)이 두려워 그 마성을 가진 아내를 맞기 위하여 신랑은 그녀를 야심(夜深)의 거리에 내어 보내는 것이다. 처녀는 어둠에 묻혀 거리에 서서 지나는 첫번 남자에게 처녀를 제공하고 어느 만큼의 금품을 얻는다. 그것을 신전(神殿)에 바쳐, 신을 달램으로써 그녀에게로부터 마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이하고, 야만스럽고, 불길한 것이라고 느낀 이야기였다.

그러나 어둠에 묻히며 서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며 이때 선영이 받은 것은 오히려 신성(神性)이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갓겪은 감정의 혼란이 정돈되지 않아 어느 도착에 빠져 있었던 탓인가. 그녀는 바빌로니아의 그 처녀의 저자를 보는 것 같은 착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디루 갈깝쇼? "

운전사가 또 묻는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

"삼각지."

"예서 내리겠어요."

차에서 내려 선영은 이태원 쪽으로 헐렁헐렁 걷고 있었다.

그곳에도 여인의 저자는 서 있었다. 점점 짙어 가는 어둠에 묻혀 팔리기를 기다리는 여체(女體)가 밤 공기에 희박해진 체취를 식어 가는 체온 속에 모으려고나 하듯 웅크리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떤 여인은 화려한 의상과 짙은 화장빛을 어둠에 묻혀 버리게 두는 것이 안타깝다는 듯 가슴을 펴고 활보도 하는 것이었다.

여체의 흥정은 그런 속에서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그 저자 속을 선영은 걸어가고 있었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른다. 뒤에서 왁살맞은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툭 어깨를 쳤다.

"헤이."

독한 술 냄새가 끼쳤다. 키가 큰 GI가 한 사람 옆에 다가와 있었다. 선영은 놀라 걸음을 빨리했다. 뒤의 GI는 유유하게 옆을 걸어 그와 나란히 선다.

"헤이, 이리 와아."

어디서 배운 말인지 한국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이제 선영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신작로를 지나던 새나라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보도에 차체를 붙이며 섰다. 채 차가 머물기도 전에 사나이가 한 사람 뛰어내렸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 사이에 끼여들더니 선영의 어깨를 우왁스럽게 움켜잡았다. 누군가를 확인하기 전에 사나이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뺨을 호되게 쳤다. 이윽고 사나이는 선영의 팔을 끌어 차 속으로 밀어넣었다.

"갑시다! "

사나이는 성난 듯이 운전사에게 말을 던지고 움켜쥔 주먹을 마구 물어 뜯었다.

그는 끝내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사장의 심부름으로 이태원 외인 주택에 갔다 돌아오는 재민이었다.

그로부터 일 주일, 선영의 마음은 착잡한 채 조용했다.

그녀는 고집같이 나가기를 싫어하던 정원에 앉아 옛처럼 정원의 아름다움에 젖어 있었다.

죽순골 할아버지가 골똘히 가꾼 석류나무에 석류알이 익어가고 있다. 연못에 어린 그 모습은 산들바람에도 형태를 바꾼다.

"나의 석류나무들, 석류알들! "

선영은 입 속에서 뇌고, 먼 훗날이면 재에 묻은 숯불에도 석류알을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잔잔히

웃었다. 그녀는 대문이 열리고 집주인이 정원 안으로 들어선 것도 모르고 있었다.
송영호는 다정히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노인과 소녀를 보고 놀랐다. 놀라움이 가시자 미소가 입가에 감돌았다. 그는 선영이 그렇게 정원에 앉아 있는 것이 기뻤던 것이다.

빛과 그늘

그날도 송영호는 찬송가 소리로 잠이 깨었다. 근처에 교회가 생긴 모양으로 이른 새벽부터 아침 예배가 모여드는 사람 소리가 들렸다. 교회라고는 하나 아직 규모가 잡힌 것은 아닌 모양으로 종소리 같은 것은 들은 일이 없으나 신설 교회이니만큼 교인들이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찬송가 소리로도 짐작이 갔다. 고르지 못한 합창이다. 있는 대로의 성량으로 저마다가 곡조를 무시하고 가사만을 외운다. 찬송가가 끝나면 기도…… 그리고 때로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침마다여서 송영호는 신경이 뭉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었다. 석류나무집의 고요도 이 교인들의 안하무인의 찬송가 소리로 어지럽혀지고 있었다. 그는 조반 전에 담배를 거의 반 갑이나 피우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이날도 머리맡의 담배를 당겨 피우며 짜증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찬송가 소리는 여전히 들려온다. 느리게 구성지게 변곡된 곡조다.
내 앞길 험악하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배를 문 입이 쓴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배를 깔고 다 타지 않은 담배를 부벼 껐다. 그러자 아무 관련성 없이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가을비가 부실거리며 소리 없이 창문을 적시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써야 될 편지가 있었지만 그는 잠시 무료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드물게 한적한 사무실이 아늑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요 얼마 안 가 깨어지고 말았다. 비서가 들어와 방문자를 알리고 나간 후 곧 애자가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후줄근하게 젖은 레인코트의 앞도 제대로 여미지 않고, 머리도 비에 젖어 앞머리가 이마에 풀로 붙인 것 같은 묘한 모양으로 달라붙어 있고 눈만이 번들번들 빛났다. 비실거리는 걸음걸이로 들어온 그녀는 곧장 들어와 소파에 가 앉았다. 주머니에 꽂은 손이 그대로여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불안정한 자세다. 턱이 가슴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어깨가 들먹거리는 것도 아닌데 울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한참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송영호가 일어섰다. 서서히 다가가서 가만히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슨 일이? '

말로는 묻지 않고 손으로 물은 것이다.

애자는 젖은 머리의 물방울이 튈 정도로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완강한 저항처럼 그런 자세를 고집하던 애자가 입을 연 것은 송영호가 거의 지칠 무렵이었다.

"구청에 갔었어요."

애자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알았지요."

입이 실그러지려는 것을 억지로 모으며

"난 우리 어머니의 동생이구, 우리 외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외할머니는 어머니루 되어 있구요. 정애자는 정봉순, 즉 우리 어머니의 사생아가 아니구 그 동생으로…… 하하……."

애자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초현대적이지 뭐예요. 입체적 호적이 아니구 뭐예요."

뇌까리는 애자의 뺨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졸업이 다가와서 직장을 얻어 보려고 초본을 받으러 가서 안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기적이지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입학 때마다 엄마가 챙겨 주어서 모르구 지냈거든요. 정충식씨가 외할아버진 줄은 몰랐지요. 아니, 엄마가 정충식씨 딸인 줄 몰랐다는 게 옳지만……."

송영호가 한 마디의 대꾸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애자는 거푸 앙탈같이 말을 이어갔다.

"이제야 모두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정충휘씨가 아니구 정충식씨가 되어 있었던가를. 묘하게 똑 같은 성이어서 속구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 영감에게 그렇게 정성을 바치구, 난 꺼풀만 쓰다듬는 그 손길을 사랑이라구 믿구. 위선자의 사나이를……."

이를 악무는 애자를 선 채 내려다보며 송영호는 어떤 혼란을 느꼈다. 선영의 아버지의 이름이 정충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음이 같다고 해서 같은 글자일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같은 글자라 할지라도 동명 이인의 경우도 있다. 그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위로의 말이 금세는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는 바보예요. 딸인 나꺼지 속였거든요. 왜 정충휘가 아니구 정충식이냐구 묻는 내게 옛날엔 충식이라구 한 것을 나중에 개명헌거라구 한 거예요. 뻐어언히 알 거짓말을 허구 어쩔 작정이었는지. 엄마가 불쌍허군요. 바보 엄마가."

그제야 송영호는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 차차 알 때가 있겠지."

말하고 스스로 김빠진 말이라고 실소했던 것이다.

애자는 점심을 같이 하자는 송영호의 권을 듣지 않고 들어올 때보다는 확실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그녀는 통금 예비 사이렌이 울려도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송영호가 심야에 안채를 찾은 것은 단순히 애자의 신변을 염려한 까닭만은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방골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침착했다. 곡절을 듣고도 묵묵히 눈만 깔고 있었다.

"가엾더군요."

"……."

무슨 말을 해도 대꾸 없는 상대에게 송영호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고야 말았다.

"실은 정충휘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문득……."

그러자 갑자기 방골 아주머니가 입을 연 것이다.

"말씀 그만, 그만 하세요."

어떠한 수긍보다도 더 강한 증명 같아 송영호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

방골 아주머니는 버릇처럼 외면을 했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선영과는 동갑이구, 두 달 차이밖에 되지 않아서……."

"그럼 아주머닌 알구 계셨군요."

방골 아주머니의 입은 조개처럼 굳게 다물어져 무슨 말을 물어도 열리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로 송영호는 두 시가 넘어서야 잡이 들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찬송가 소리로 선잠이 깬 것이다.

새벽 예배는 좀처럼 끝나지 않는 모양이다. 한동안 끊기었던 찬송가 소리가 또 들려온다. 괴상하게 제멋대로 바뀌어진 곡조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따라 듣고 있는 송영호의 가슴을 치는 것이 있었다. 찬송가 소리가 호소같이, 절원(切願)같이, 위안같이 들린 것이다. 작곡한 사람이 들으면 놀랐으리라. 엉망진창인 합창이지만 그것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듯 붙잡듯 에워싸듯 불리어지고 있다. 사람의 육성(肉聲)이 가지는 알 수 없는 감동—송영호는 웬지 마음이 어지러워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약간 어색하고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새벽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고르지 못한 찬송가 소리에 인간의 깊은 슬픔과 동경이 서려 있는 것을 놓칠 수는 없는 것 같다. 거기엔 애당초 종교적인 것은 느껴지지 않고, 잡다한 인간사(人間事)만이 와글거린다. 교회라는 이름의 집회소 안에 끼여 있는 공기(空氣)는 종교적인 숭고한 분위기보다는 체취와 된장내, 김치내, 그런 따위의 사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으리라. 그러기에 찬송가가 불러일으킨 영상이 어제 겪은 아름답다고만 할 수 없는 인간사에 직결된 것이 아닐까.

창이 희뿌옇게 밝아 온다. 무엇을 쓰는 듯한 소리는 바람이고, 비는 멎은 모양이다. 찬송가 소리도 멎고, 석류나무집은 고요 속에 묻혀 어둡던 창이 밝아 오듯 주위의 음향도 상황도 바뀌었지만 송영호의 상념은 여전히 같은 일을 기둥으로 하며 맴돈다.

정충휘씨, 선영, 애자,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에 틀림이 없는 방골 아주머니, 당사자들이 거의 다 죽어 버린 지금 와서는 멜로드라마로서도 발전할 수 없는 김빠진 이야기이다. 인연이라면 민 사장과의 관계로 인하여 애자를 석류나무집으로, 즉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끔 한 자신의 역할이 스스로 신기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운명의 비[箒]가 쓸어모은 사람들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사람은 가혹한 것만을 운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은 가혹한 것에 속하는 것일까.

송영호는 또 새로운 담배에 불을 당겼다. 웬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라는 말이 'POLYGAMY'라는 영어로 머리에 떠올라 뒤숭숭하다. 선영과 애자, 정충휘라는 사나이를 중심으로 빛과 그늘에 선 두 소녀—.

"그 위선자의 사나이에게 속구 있었어요."

하던 애자의 말은 그대로 선영의 말이 아닐까.

두 달밖에 차가 없구……. 그러니깐 두 소녀는 거의 동시에 빛과 그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충휘라는 인물은 이들 둘을 동시에 배반한 것이다. 빛으로는 그늘을, 그늘로는 빛을. 그는 그늘에도 충실치 못했고 빛에도 충실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본 일이 없는 정충휘씨를 책망할 생각은 없다.

그는 그 나름으로 어느 쪽에고 성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선영을 위하여는 애자를 그 외조부의 딸로 입적시킬 수밖에 없었고 애자에게는 결코 '꺼풀'을 쓰다듬는 것에 머물지 않는 깊은 사랑을 얹기로 했었으리라. 그리고 양쪽에 다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남성의 생리이며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성실과 배반이 한 장 종이의 표리(表裏)가 되는 남성의 생리—상념을 거기까지 몰고 가자,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흘렀다.

"마치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정충휘씨를 위하여? 그런 것도 아닌 성싶다. 첫째 그럴 필요가 없다. 그는 야릇한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자는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민 사장의 사건으로 본의아닌 애자의 보호자가 되어 버린 송영호는 입장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재민에게 사정을 밝혔다.

"별일은 저지르지 않겠지만 아무튼 쇼크가 컸으니깐."

말하며 송영호는 재민의 얼굴에 서린 형용할 수 없는 혐오의 표정을 읽었다.

재민은 시종 대꾸가 없었다. 우람한 두 눈을 깐 채 껌벅거리고만 있는 그를 지켜보며, 송영호는 새삼스레 그와의 차(差)를 느낀다. 세대(世代)의 단층(斷層)이 놓일 연령의 차도 아니다. 그러면 성격의 차일까? 환경의 차일까? 어쨌든 그는 재민의 순수한 표정에 선망 같은 것조차 느꼈던 것이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우 군! 나는 미스 정을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이번 일이 미스 정으로 하여금 직접 인생에 참여시키게 될 것인지두 모르니깐."

대꾸를 기다리지 않고 그는 말을 이었다.

"사람은 배반당함으로써 비로소 외계에 저항하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걸 거야."

"……."

"우린 배반 속에서 태어났으니깐. 그렇지 않아요? 삶이란 언젠가는 죽음에게 배반당하는 거구, 산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지니구 있는 것이니깐."

비로소 재민이 눈을 들었다.

"그러니깐 모든 추한 것과 타협하라는 겁니까? "

"추한 것과? 무엇이 추한 거구 또 어느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아직두 일부다처제가 어엿이 실시되는 나라두 있는데."

"사장님! "

재민은 얕으나 강한 소리로 사장을 부르고

"실례입니다만 초점이 좀 다릅니다. 전 정충휘씨가 애인을 두었다는 데 대하여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애자씨를 외할아버지의 딸로 입적시켰다는데 의문을 느끼는 겁니다. 허지만……."

재민은 갑자기 어세를 고쳤다.

"어차피 제게는 관계없는 일이죠. 다만 제가 잠시나마 찌푸렸던건 걷는 길 한복판에, 그렇습니다. 똥이라구 할까요. 그런 더러운 것이 놓여 있어서 반사적으로 찡그렸던 거죠."

"치울 맘은 나지 않구? "

한참 만에 재민이 대답했다.

"네, 비켜 갈려구 했지요."

"나두 그럴 거야. 허지만 그 똥은,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흐르지만 거기 눈 사람만이 갖구 있는 것이 아니구 우 군두 나두."

송영호는 말을 맺지 않고 의자에 가 앉았다. 그리고 불쑥

"부럽군."

한 마디 던졌다.

재민에게 통했는지 통하지 않았는지도 몰라도,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말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한 말은 고칠 마음은 없었다. 그렇다. 배반 받는 것, 배반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인생의 유대(紐帶)는 더 질기고 굵어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배반 받은 것에서부터 다시 한 번 들어가는 것, 그것을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사람이 사는

법일지도 모른다. 애자 역시 굳세게 살아가리라. 어쩌면 그녀는 날 적부터 조금씩 조금씩 배신의 고배를 마시고 와서, 마치 극약을 언제나 조금씩 상용한 사람이 극량에도 쓰러지지 않듯, 이번 일에도 말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여튼 그런 대로 그날은 갔다. 재민은 애자 일에 성의를 보일 것 같지 않았다. 송영호는 방골 아주머니를 또 찾을 수밖에 없었다.

여느 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간 그는 정원에 들어서자 석류나무 아래 서 있는 선영을 보았다. 방골 아주머니의 엄격한 범절 때문인지 조모의 복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엷은 가을해가 새하얀 모습을 투명하게 하여 그녀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정령(精靈)같이만 보였다. 순간 송영호는 가슴이 조여드는 애감(哀感)을 뼈아프게 느꼈다.

낮에 우재민에게 한 말이 아득해지고, 오직 순수한 것에 대한 동경만이 가슴에 번져 가는 것이었다. 그는 정충휘씨의 심정이 더욱 잘 이해되는 것 같았다. 흐트러졌던 모든 상념이 한 곳으로 모여 하나의 큰 의미를 형성해 가는 것을 그는 또렷이 의식했다. 티끌만큼의 쑥스러움도 없이, 그는 마음으로 외쳤다.

'당신을 사랑해요! '

들을 적마다 면구스럽고 속되다고 생각해 왔던 말이 진지하게만 생각되는 것이 스스로 놀라웠으나 그것은 희열이고 어떤 승화이기도 하였다.

"선영씨."

낮은 소리로 부르며 그는 선영이 옆으로 다가갔다.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선영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지켜보다가

"석류가 물들기 시작했어요"

하며 가만히 미소짓는다.

웬지 송영호는 그 말이 고마웠다.

"결실, 결실을 본 거지요."

약간 더듬거리며 말하고 그는 한 걸음 더 선영 옆으로 다가섰다.

"선영씨."

가장 중대한 말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말해지려는 데 감동을 느끼며 말을 이어가려 할 때였다. 대문의 벨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귀국(歸國)

죽순골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나타나 문을 열었다.

들어선 사람은 수다쟁이 식모였다. 수다스럽다고는 하나 벨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앞문으로 드나드는 일도 거의 없는 습관이었다. 그러나 잔뜩 흥분된 얼굴로 다가오는 그를 보고도 송영호는 잠잠히 서만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이 소중한 순간을 흐트러지게 한 데 대한 노여움조차도 없었다. 그의 감정 그것은 절정(絶頂)이 아니고 어느 완성 같은 감정이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식모는 비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 바구니가 비어 있었다. 시장에 가다 말고 되돌아온 것이리라.

"애자 샤악씨가 저 앞을 지나갔어유. 집에 가자니깐 며칠 있다 오겠다구유. 싱강일 허다 왔시유."

"자기 말대루 며칠 있으면 오겠지."

송영호는 담담히 대답하고, 또 선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애자양 일은 그다지 걱정허질 않았어요. 웬지 무모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더군요. 강한 생활력이 있는 소녀 아닙니까? 직감인 동시에 확신이었지요."

순간 선영의 얼굴에 핏기가 올랐다 가셨다. 무모한 짓—언젠가의 격정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자 자신의 병든 감성이 주체스러워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상식적인 것의 건강성에 눈이 뜨여지는 것 같았다. 애자의 웃음소리를 결코 성가시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 며칠 동안에 깨닫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외로웠던 것이다.

식모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나간 후에도 송영호는 하던 말을 계속 하지 않았다. 사랑의 고백도 애자의 이야기도. 그는 오직 석류나무 옆에 선 선영의 새하얀 모습에 눈길을 붓고 있었다. 말을 하면 오히려 소중한 모든 것이 흐트러질 것만 같았다. 머리 위에는 노을이 흐르는 하늘이 있었다. 그는 그 하늘을 연못 속에 보았다. 노을이 흐르는 하늘을 딛고 선영의 모습이 어리어 있었다.

물 속의 그 얼굴은 선영 자신의 고정된 표정과는 달리 정지하지 않고, 느낄까말까한 바람에도 또 각각으로 변해 가는 광선에도 흔들렸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맡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약하고 배타적이라기보다 남성으로 하여금 어느 용단과 힘을 갖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눈을 들어 선영을 지켜보았다. 모든 감정을 '맑다'는 한 표현에 가라앉힌 단아한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춤거려지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안채로 돌아가는 선영을 그는 붙들 용기를 얻지 못했다. 아쉬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송영호는 그날 밤도 새벽 찬송가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애자가 석류나무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날부터 나흘 후였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는 구김살이 없었다. 방골 아주머니의 태도도 담담했고, 죽순골 할아버지는 아예 말이 없었다. 수다쟁이 식모만이 떠들었지만 그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떠드는 것이 버릇이라 소동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송영호도 이 며칠 동안의 애자의 행적을 캐려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시 애자의 존재와 그녀의 그러한 행동은 석류나무집의 독특한 시간(時間)에 매듭을 맺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비슷비슷하여, 어느 날이 먼저이고 어느 날이 나중인지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석류나무집의 날들—그것은 시간이 가라앉은 것 같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인상이 컸다. 정충휘씨의 죽음으로 이 집에서는 시간도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송영호의 입주도 노부인의 죽음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애자는 전과 같이 사랑채에도 곧잘 나왔다. 복헌(復軒)의 산수화와 사임당의 화조가 문갑 위에 걸려 있는 방이 숨막힐 것 같다 하며, 그래도 복헌의 고아(高雅)한 필치와 사임당의 소박하고 친밀감을 갖게하는 화제에 감탄도 하는 것이었다.

낙탁하였다고는 하나 이 집에는 아직도 값나가는 서화가 많았다. 그것들은 시간과 재력(財力)과 안목(眼目)으로 모여진 것들이었다. 집을 내놓아야 될 지경으로 곤궁해지면서도 방골 아주머니는 그 서화들을 방매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하여 송영호는 현재의 주인이면서 전주인에게 얹혀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응용 미술을 한다 하여도 애자에게는 어느 만큼의 고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 송영호는 문갑 위에 걸린 그림의 작자를 알았다.

"복헌이라는 분은요, 단원의 선생님이었어요. 대마도에서 돌아갔는데, 그때도 단원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애자는 계곡 위에 걸린 돌다리를 들여다보며 이렇게도 말하고, 사임당에 대해서는

"이것 보세요. 오리 새끼 두 마리가 물 속의 먹이를 다루구 있지요. 무척 동적(動的)이 아니에요? 깃의 움직임, 물의 동요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말도 하였다.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녀는 사랑채에 걸려 있는 서화를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갔으나 사랑 대청에 걸려 있는 한 폭의 유화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누구 그림일까?"

오십 호 가량의 서명 없는 그림이었다.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십팔구 세 가량의 소녀상이다. 화가의 요청이었으리라, 흰 레이스의 숄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는 맑은 눈을 화안히 뜨고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름다운 소녀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그림이라는 것이 짐작되지 않았는지 애자는 그렇게 말하고 동공을 좁힌다.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송영호로서는 솔직히 말하여 그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약간 속된 '로코코'의 '프레고나르'풍의 그림이었으나, 소녀의 청순한 아름다움에는 어떠한 '디폴메'도 허용치 않는 것이 있었다. 다른 그림들의 격(格)으로 미루어 역시 이름 있는 화가의 작품일 것이라고 송영호는 생각했다.

어쨌든 빛 속에서 태어난 선영 속에 깃든 우수와, 그늘에서 사람이 된 애자의 명랑은 묘한 도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애자는 아직도 석류나무집이 자기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석류나무집에는 비어 있는 벽이 거의 없을 만큼 서화가 걸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초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런 것도 송영호로 하여금 그윽한 것을 느끼게 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비밀스러운 냄새가 짙었다.

선영은 여전히 애자와 어울리지는 않았으나, 떠드는 소리를 들어도 찌푸리지는 않게 되어 있었다. 두 소녀는 하나같이 졸업 작품에 몰두하게 되고, 개개인의 생활은 석류나무집의 분위기에 흡수되어, 또 전과 같이 시간 밖으로 삐져나간 나날이 계속되었다.

박창근이 선영이 없을 시간만을 택하여 두어 번 찾아와, 방골 아주머니에게 그녀의 안부를 묻고 간 것을 선영은 몰랐고, 재웅이 죽순골 노인을 보러 온 척하고 애자를 기다리다가 돌아간 것을 애자는 몰랐다.

송영호는 새벽마다 신설 교회의 찬송가 소리에 잠이 깨어 선영을 눈앞에 떠올리고, 낮에는 애자와 가벼운 농까지 섞이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재민의 생활에도 변함은 없는 것같이 보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성실하고 정확했다. 그러나 가끔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방심(放心)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의 그의 얼굴에는 우울보다도 어느 혼란의 빛이 더 짙었다.

사장으로부터 애자의 신상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 서렸던 혐오의 표정과는 달리, 처절한 절망 같은 것에 움켜잡힌 얼굴이었다. 그는 더욱 말수가 적어지고, 얼핏 보아 태도는 더욱 신중해졌다.

송영호는 그런 그를 보고 애자의 실종으로 드러난 사실이 준 충격 때문이 아닌가 하고, 그에게 상의한 것을 뉘우치기도 하였으나 사장이 모르는 사실이 재민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애자의 실종이 알려진 다음날이었다. 비 온 뒤라선지 제법 쌀쌀한 날씨였다. 사장의 당부였으나 재민은 애자의 행방을 찾을 마음은 애당초 없었다. 출근 뒤에 대폿집으로 들어간 것은 길에서 만난 친구에 끌리어서였다.

낙지 삶은 것을 안주로 두어 잔 하였을 무렵이었다. 밖이 떠들썩하더니 실그러져 여닫이가 여의치

않은 문을 삐거덕거리며 열고 어느 사나이가 들어섰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야단스럽게 머리를 치켜 올린, 아이섀도가 짙은 여자의 손을 잔뜩 움켜쥐고, 막나무를 때려 맞춘 흔들거리는 의자에 가털썩 앉았다.

"앉자."

여자가 앙탈을 했다.

"싫어. 갈테야."

"앉아."

"싫어."

그러자 사나이의 손이 번개처럼 여자의 뺨을 갈겼다.

"도둑놈, 왜 때려!"

여자가 악을 썼다.

"야아, 잘 어울렸다. 해라, 해라!"

구석에 앉아 있던 술꾼들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성원을 보냈다.

재민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사나이는 박창근이었던 것이다.

그는 함께 들어갔던 친구의 존재를 잊을 만큼 흥분하고 있었다.

넓은 가락의 걸음으로 그는 창근 옆으로 다가갔다. 이윽고 낮으나마 저력 있는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잔뜩 취해 있던 창근은 이마에 주름을 누비며 윗눈질로 의아한 듯 재민을 치켜보았다.

재민은 재차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러자 뜻밖에도 창근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둘은 얽히듯 이 대폿집을 나왔다. 여자는 어느덧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어떻게 해서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창근을 데리고 갈 수 있었는지 모른다. 얼마 후 둘은 재민의 방에 있었다. 영어 강습에 다니는 재웅은 보이지 않고, 습기 찬 날에 가죽(皮革)이 풍기는 것 같은 남성의 체취만이 차 있는 가난한 방에 쓸어 박히듯 들어가자 창근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마구 재웅의 낡은 책상을 꽝꽝 치면서,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선영, 선영, 선영."

무슨 까닭인지 재민의 등골을 타고 전율 같은 것이 달렸다. 그는 말을 잃은 사람마냥 장승같이 선 채, 그런 창근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런 상태가 얼마만큼 계속되었는지 모른다.

창근은 제풀로 눈물을 거두고 계면쩍은 듯이 일그러진 웃음을 웃었다. 이윽고 일그러진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당겼다. 빨지 않는 담배에는 불은 붙지 않고 성냥만이 타서 오그라진다. 창근은 담배를 방바닥에 던지고

"우형!"

하고 불렀다.

"어느 못난 놈의 옛날 이야기 좀 들어 보시려오?"

그는 방바닥에 굴러 있는 신문을 집어 폈다. 그러나 시선은 아무데도 멈추지 않고

"못난 총각이 있었다오. 열대여섯부터 시 나부랭이를 쓰고 그것이 하나의 인생을 다하여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것이 그 시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오. 나이 열일곱에 아름다움이란 슬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요. 선영은 그때 아홉 살, 그 오빠인 인택군을 찾아가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운명을 느꼈던 거예요. 천진한 웃음과 맑은 음성은 상처처럼 나를 아프게 했다오."

창근의 얼굴은 창백해 왔다. 그 창백해진 얼굴에 자조의 빛이 감돌았다.

"사춘기를 곱게 넘긴 것은 시(詩) 때문이 아니고 선영을 위해서였다구 나는 단언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하면 선영이 싫어하겠지……. 그런 생각은 거의 신앙이었었다! 그 신앙을……."

창근은 신문을 탁 접어 옆으로 밀고

"그 신앙을 나는 빼앗겼던 거요. 아니, 내가 깨뜨린 거지."

알 수 없는 고통 같은 것이 재민을 사로잡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박형! 그만 허시오!"

하며 손을 저었다.

"못난 놈의 넋두리 듣기 싫겠지만 끝꺼지 들어 주우."

창근은 힘없이 웃었다.

"전쟁이 났죠. 나의 선영은 아홉 살, 선영을 본 지 석달 만이었소. 우린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죠. 우형도 잘 아시다시피 피난처에서 나는 대학생이 되었구, 성인이 되어서도 시와 선영은 나를 지켜주었던 거요."

안채 시계가 아홉 번을 쳤다. 재웅이 돌아올 시간이 박두해 와서 재민은 초조로웠다. 그러나 창근은 말을 이어갔다.

"대학을 나오던 해 나는 입영을 했소. 스물셋, 칠년 전 일이오. 일선으로 배속받았던 나는 서울로 올라오면 내 집보다 선영의 집을 먼저 찾았죠. 선영은 자랄수록 우아해 가서—그래 애초부터 내게는 겨운 사람이었어."

창근의 어조는 이제 완전한 독백이었다.

"어느 날 나는 찾아간 선영의 집에서 선영의 아버님을 만났죠. 집에는 웬일인지 아무두 보이지

않더군요. 정충휘씨가 부탁할 일이 있다 하여 방으로 들어가니, 봉투 한 장을 주며 무교동에 있는 어느 다방에 어떤 여인이 기다리구 있을 테니 전해 달라는 거예요."

창근은 무엇인가를 더듬듯 먼 눈을 하고

"서른 살을 갓 넘은 서글서글한 여인이었죠. 누군지 무슨 심부름을 자기가 한 것인지 모르면서 그 후 나는 그 여인과 가까워졌던 거예요."

창근은 여기서 말을 뚝 끊었다. 이윽고

"우형! 인택군의 조난 사건 아직두 기억허시죠? 인택군은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요? 아버지의 소실과 친구인 나 사이를 알게 됐으니깐요. 그는 결벽한 성격이었으니깐."

시종 말을 못하고 있는 재민에게 그는 결론처럼 말을 던졌다.

"인택군의 죽음 후 나는 그 여인을 만난 일이 없소. 지금 나는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지만, 그 여인에 대해선 혐오도 증오도 타기도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저 사람의 약점을 서글퍼할 뿐이구, 못난 나를 책할 뿐이죠. 그녀는 정충휘씨를 배반한 것이 아니구 그늘의 생리가 지니기 마련인 줏대 없는 감성에 진 것뿐이죠."

창근은 재웅이 돌아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

받은 타격이 너무 커서 재민은 그를 만류할 생각조차 일지 않았던 것이다.

들은 많은 말들이 뱅뱅 맴을 도는 중에 두 마디만이 남아 또렷해 갔다.

—애초에 나에겐 겨운 사람이었어.

—그것은 거의 나의 신앙이었다.

두 마디가 다 자기 자신의 말만 같았던 것이다.

창근의 고백은 끔찍한 것들이었지만 창근 자신의 말대로 재민 역시 혐오나 타기 같은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 용서는 할 수 없어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인간의 비밀의 일단에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재민의 내부는 그 날 밤을 계기로 엄청난 변모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각양의 파란을 내부에 잠재우며 석류나무집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생활은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 흔들리고 말았다. 송영호의 양친이 삼십여 년 만에 귀국을 한 것이다.

돌아온 사람

오히려 호젓한 귀국이었다. 고국을 떠난 지 삼십여 년—고국은 생명의 근원적(根源的)인 어떤 감동(感動)으로 뜨거운 망향을 줄기차게 이어 오게 한 절대 존재였으나, 그들을 반길 옛사람은 찾을 길 없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숨가쁘게 돎에 따라 자지레한 인간사도 깔려 부스러지고 바퀴가 돌고 간 뒤에는 추억만이 남았으나, 그 추억조차도 어쩌면 허구(虛構)가 섞이는 것일지도 몰랐다.

잔잔히 흐르는 한강을 지나며 박혜련여사가 흘린 눈물은 착잡했다. 광복된 조국땅을 다시 딛는 벅찬 감격에 슬픔이 깃들이는 심정은 무엇이라 하여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숱한 파문을 잠재우며 고요한 호면처럼 조용했다. 한동안을 헤어져 살던 뒤에 만난 가족들이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띄엄띄엄 말이 오갈 뿐이었다.

줄곧 차창에만 시선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옆얼굴을 지켜보며 송영호는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수한 반가움만으로 그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이 아니겠는가. 애써 파헤쳐 보지 않더라도 거리를 메우듯 오가는 사람의 물결이 흥성거림같이는 보이지 않고 갈 곳 없는 사람이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송구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득

"전쟁을 겪은 뒤라서요."

변명처럼 말하고 입가에 쓴웃음을 띄웠다.

경기도 어느 시골 태생이라는 어머니가 그리고 그리던 땅은 이 삭막한 더러운 거리가 아니고 남빛 붓꽃 봉오리가 아침마다 열리는 풀길, 바람이 쓸고 가는 푸른 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서울도 타향이고, 또 설사 그 풀 깊은 고장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아는 이 없다면 어느덧 고향에서도 밀려나와 버린 실향인(失鄕人)으로서 그리움을 둘 곳조차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는 웬지 귀국을 꺼리던 아버지 송호상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송호상씨는 검은 안경으로 가린 눈을 검은 안경 저쪽에서 감고 있었다. 침울해 보이는 것은 그의 특징이었으나 거기 어울리던 중후감(重厚感)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롭고 무력해 보인다.

'아버지두 늙으셨어.'

송영호는 마음으로 뇌었으나 짐짓 쾌활하게

"어때요? 예전보다 많이 변했나요?"

하고 어머니의 손 위에 손을 포갰다. 어려서 하던 버릇이었다.

"변했군."

나직이 대답하고 박혜련여사는 아들이 손으로 덮었던 손을 빼어 이번에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갠다. 이 단순한 동작은 그들 모자의 오랜 버릇이었다.

송영호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새삼스럽게 솟구쳐 오름을 느끼고 까닭없이 꺼졌던 마음이 탄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 기뻤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두 있죠."

그는 응석조로 말했다.

"한국 색시들 말이에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듯 한국 색시는 고와요. 옛날과 변치 않구 고와요."

그에게 있어 한국 색시란 선영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웃었다.

"애두, 난 거리를 보며 변한 건 여자들이라구 생각했는데."

"변했다니요?"

"무척두 변했구나. 얼른 보아두 옛날 모습은 상상두 못할 지경으루."

"그건 겉모양뿐이죠. 이제 곧 아시게 되실 거예요."

박혜련여사는 비로소 차창 밖에 던졌던 시선을 아들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골목길을 꼬불거리던 차가 집 문 앞에 서고 클랙슨을 눌렀다.

문은 한참 만에야 열렸다. 전에 없던 일이다. 그러나 정원에 들어서자 송영호는 짜증을 낼 수가 없어졌다. 문을 연 것은 새로 두게 된 사환 아이였으나 죽순골 노인이 정춘권씨를 억지로 안채로 통하는 일각문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충권씨는 한사코 저항하고 있었다. 외로운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송영호가 서 있는 곳까지도 들려왔다. 죽순골 노인은 힘에 부치는 모양이었다. 사환 아이가 뛰어가 함부로 힘을 썼다. 한참 만에야 그들은 일각문 저쪽으로 사라지고 문이 소리 내며 닫혀졌다.

"안채에 사는 노인인데요, 이 정원을 애껴서…… 네, 좀 이상한 노인이죠."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는 어설프게 설명하고 앞을 섰다.

까닭은 모르면서 정충권씨의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모양으로 어머니는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아들의 뒤를 따른다. 종시 표정이 없는 송호상씨도 묵묵히 발을 옮겼다.

"아름다운 집이죠?"

송영호는 너스레를 떨 듯 말하고 스스로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양친은 대꾸가 없었으나, 뜻하지 않았던 일을 목격한 경악에서 놓여나자 어머니의 얼굴에도 감탄이 어렸다.

"아름다운 우리 한국 집……."

그녀는 가만히 뇌고

"석류가 열렸구나."

"네, 석류가 많이 열렸죠? 이 집은 석류나무루 유명하답니다. 석류나무집이라구 불리우니깐요."

"석류…… 우리 동양의 나무지."

"모두 이 집에 매혹당하죠. 저두 한눈에 반하여 이 집을 샀으니깐요."

그는 말하며 다섯 벌 댓돌을 딛고 올라섰다. 방마다 하늘에 별이 돋듯 밤마다 방에 켜지는 불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석양이 분합 유리에 비껴 집안은 어둠에 잠기고, 그 어둠에 비춰진 석양이 비낀 분합 유리는 거울처럼 세 사람의 모습을 어린다. 언제나 진실만을 어리는 것 같은 이 석양의 거울—이제 거기 어린 사람들은 나란히 서 있으면서 하나하나가 서로의 사이에 깊은 단층(斷層)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창살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갈라 놓은 탓인가. 어쨌든 어머니를 닮은 송영호와 어머니 사이에는 연령과 성(性)이라는 단층이 있었고, 이 두 사람과 송호상씨 사이에는 좀더 심각한 것이 느껴지는 단층이 보였다. 그러나 세 사람이 그런 것을 깨닫기 전에 석양의 거울은 일순으로 제거되었다. 안에 불이 켜진 것이다.

송영호가 이제는 한 짝의 유리문에 지나지 않은 분합문을 열었다. 예상과는 달리 주책배기 식모는 뛰어나오지 않았다.

'방골 아주머니가 어지간히 단속하는 모양이군.'

생각하고 송영호는 우스워졌다.

"여긴 사랑채지만 우리 식구 거처하긴 넉넉해요. 이 방은 어머니가 쓰시구 전 저 방을 쓰겠어요. 아버진 동남쪽 방을 쓰시기루 하시구."

그는 닫혔던 미닫이를 열어제치며 말했다.

"우선 짐을 부리시구 저녁 진지는 좀 쉬신 후에 청향원으로 가시기루 허시죠. 아까 비행장에 나갔던 전 상무와 비서가 미리 가 있기루 되어 있어요."

"글쎄, 밥 생각은 없구나."

박혜련여사는 장갑을 빼어 문갑 위에 얹었다.

"피곤허시겠죠. 그러니깐 뭐라두 잡수셔야 됩니다. 자, 코트를 벗으시구."

송영호가 어머니의 뒤에 돌아가 코트를 벗기려 할 때 안채로 통화는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것은 애자였다. 뜨거운 물수건과 뚜껑이 덮힌 약그릇을 셋 얹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먼 길을 오시느라구 피곤허셨지요? 목욕물두 데워 놓았습니다만 우선 손부터 닦으시구 목을 축이시라구요."

애자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구김살이 없었다.

"잣죽이에요."

박혜련여사가 아들을 돌아보며 눈으로 물었다.

'누구?'

"안채에 사는 학생이에요."

말이 끝나기 전에 애자가

"애자라구 합니다"

하고 생긋 웃었다.

애자가 돌아간 후에야 박혜련여사는

"넌 한국 색시들은 변하지 않았다구 했지만."

감탄인지 개탄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제가 말한 것은 진짜 한국 색시 얘기죠."

"진짜 한국 색시?"

"차차 아실 겁니다."

"궁금하구나."

전화벨이 울렸다. 우 비서가 청향원에서 건 전화였다.

"일곱 시까지 가기루 하지."

송영호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들은 청향원에 갈 수가 없었다. 박혜련여사가 빈혈을 일으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긴 여행에 지친 것이라고 생각한 송영호는 옛날 살던 집에 되돌아 온 것 같은 반가움과 그리움으로 집을 돌아보던 어머니가 그 '로코코'풍의 소녀상 앞에서 보인 충격을 모르고 있었다. 박혜련여사는 흰 레이스의 숄을 머리에 쓴 그 소녀상 앞에서 쓰러졌던 것이다.

사흘이 지났다.

역시 노독 까닭이지 별일은 없을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으나 박혜련여사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런 약간의 불건강은 오히려 빨리 그를 석류나무집의 주민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였다.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흔히 하듯 명승 고적 탐방, 시내 구경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던 그는 오래 전부터 그 집에 살아 온 사람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날을 보냈다.

고국이라고는 하나 객지와 진배없는 곳에서 앓으면서 객고를 겪는것같이 보이지는 않은 것은 처음 발을 디뎌 넣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의 집인 까닭일지 몰랐다.

사흘 동안을 순 한국식으로 꾸민 방에서 지낸 박혜련여사는 나흘째되는 날부터는 정원에 내려서게도 되었다.

가을의 정원은 아직 조락(凋落)이 깃들었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나무의 잎들은 낙엽이 지는 것도 아닌데 무성해 보이지 않고 화단에 피어 흐드러진 국화꽃들도 그렇게 소담스럽게 피면서 풍요하지는 않고 그윽함만을 풍긴다. 그것은 그 정원에 내려선 박혜련여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여인 쉰세 살—박혜련여사의 머리에는 아직 흰 것이 눈에 뜨이지는 않는다. 반듯한 이마도

매끄러웠다. 좁고 높은 코, 맑은 눈, 늙음은 어디를 찾아도 없었으나 '아름답다'기보다 '아름다웠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잔잔한 표정과 기품 있는 몸가짐 때문인가?

박혜련여사는 죽순골 노인이 가꾼 국화꽃 앞으로 가 서보기도 하고, 가을 꽃이 핀 장미 앞에서도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꽃들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이따금씩 그림자 같은 것이 잔잔한 얼굴을 스친다. 아픔 같기도 하고 감미로운 기쁨 같기도 한 그것은 애상(哀傷)의 한 마디에 요약(要約)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시야(視野)를 넘은 저쪽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이도 보였다.

송영호는 동란 때 격심한 전투가 벌어졌던 까닭으로 완전히 소멸된 삼십팔도선 주변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 소식을 애써 탐지도 시켜 보았으나 흩어진 사람들의 소식을 몰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을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박혀 있던 송호상씨도 예기치 않았던 옛 친구의 전화를 받은 후부터는 외출이 잦아졌다.

석류나무집은 식구가 송호상씨 부처와 새로 두게 된 사환 아이, 손심부름을 맡게 된 소녀—이렇게 네 사람이나 불었으나 도착 당시의 수선스러움이 가시자 다시 고요로 돌아갔다.

송씨 부처의 귀국 후 안체에는 애자와 죽순골 노인만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박혜련여사가 기력을 돌리지 못하고 있던 동안의 극진한 구완에는 주책배기 식모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마음 쓰임이 보여, 방골 아주머니의 규모와 능력이 역력히 느껴졌었는데 웬지 그녀는 원래의 손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선영도 송영호가 청할 때마다 없다는 전갈만을 하여 이 며칠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정충권씨는 감금을 당하고 있는지 다시는 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목욕실에서 나오다가 송영호는 식모에게 소맷자락을 잡혔다.

머뭇거리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노라니 식모의 입이 씰룩거리더니 윗입술이 제쳐지며 이 빠진 자리를 보였다. 언챙이 같다고 느끼면서 덤덤히 서 있는 그에게 식모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 안댁에선 이사를 허나 바유."

"이사를?"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자

"애자 색시헌테 어떻게 하겠느냐구 방골 아주머니가 물으시는 걸 지금 듣고 왔어유."

"흠."

송영호는 눈을 껌벅거렸다. 어머니는 아직도 안채 사람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있었다. 집에 대한 사연도 미리 설명하지는 않았다. 선영을 보인 후에, 그런 심산에서였다.

남의 속도 모르고……. 노여움이 솟았다. 그러나 물론 올이 바로 설 수는 없는 노여움이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불안스러운 표정의 식모를 그 자리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되는 대로 윗막이를 걸치고 그는 서슴지 않는 걸음걸이로 안채로 통하는 문을 밀었다.

이사를 하는 모양이라는 말이었는데 어둡고 조용한 집은 사람이 이사를 한 후 같은 느낌을 주었다.

뒤따라온 식모가

"방골 아주머니, 방골 아주머니!"

하고 소리를 높인다.

안방 미닫이가 소리없이 열리고 방골 아주머니의 캉캉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송영호를 보아도 별반 놀란 것 같지는 않았다. 조용히 대청에 나와 버릇인, 맞선 사람과는 사각(斜角)이 되는 위치에 서서 고개마저 약간 옆으로 돌린 채다.

처음부터 거부하는 태도 같아 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사를 허시겠다구요?"

하고 송영호는 방골 아주머니의 옆얼굴을 살핀다. 뒤로부터 받는 광선은 방골 아주머니의 얼굴을 온통 그림자 속에 버무려 넣어 표정을 알 길은 없었다.

대꾸는 없었다.

"불편하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떠나신다면 제가 제일 곤란을 당할 것 같군요."

"실은 선영씰……."

가장 좋은 기회에 하려던 말을 얼결에 하려 하는데

"집두 인연이 있을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하고 방골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무엇을 인연이라구 허시는지……."

"살 수 있는 것이 인연이지요."

"그럼 살아 가는 것이 인연이 될 수두 있지 않을까요?"

방골 아주머니의 입은 다시 다물어졌다.

"저로선 간청이라두 드려 그대루 머무실 것을 원합니다. 만난 것이 벌써 인연이라면 따뜻한 정을 통하고 사는 것은 그 인연을 더욱 뜻하게 하는 것일 거예요."

송영호는 씌우듯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귀국허셨습니다. 아버진 친구분두 찾으신 모양이십니다만 어머닌 외로우시구 아주머니 댁에서 떠나신다면 타국에서보다 더욱 외로워지실 거에요.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서 더욱 고독해지신다면 어머니의 삶은 그림움이라는 그림자를 좇으셨던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머닐 도와 주세요."

'어머닐 도와 주세요'라는 말은 '나를 도와 주세요'라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송영호는 생각했다.

방골 아주머니의 입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어색한 한동안이 지난 후 송영호가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여인은 조용히 뇌었다.

"이 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니깐요."

송영호는 흠칫하며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까닭이다.

"저두, 저두 이 집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머니 댁에서 이사를 하신다면 남의 빈 집에 들어 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남의 어엿한 댁에 얹혀 살구 있는 것 같았었지만."

방골 여인은 이 말에도 대꾸가 없었다.

이튿날 송영호는 어머니에게 비로소 집의 사연을 말하고 나서 더불어 안채로 들어갔다.

복도에 달린 문을 통하지 않고 일각문으로 들어간 것은 정식 방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마당에 들어선 모자는 들어가던 자리에 서고 말았다.

담에 대어 코스모스가 피고 뜰 앞에는 국화가 향기를 뿜고 있었다. 그 국화 앞에 정충권씨의 새하얀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전연 질감(質感)이 느껴지지 않는 여윈 몸에 걸친 흰 한복이 헐렁하여 수의같이 보여 언제나처럼 무슨 조상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들어선 두 사람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두 손이 떨면서 가슴께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던져지듯 떨어졌다.

박혜련여사는 외포(畏怖)를 느낀 모양이었다. 아들 옆으로 붙어서며 몸을 떤다.

"놀라실 것 없으세요, 어머니. 안채의 노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안으며 가만히 속삭였다.

명멸(明滅)

"아버지."

송영호는 장지 밖에서 나직이 불렀다. 대답이 없다. 다시

"아버지."

불렀다. 역시 대답이 없다. 이번에는

"안 계신가?"

자신에게 말하고 조용히 문을 한쪽으로 밀었다.

송호상씨는 방에 있었다. 그러나 우정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피곤하였던지 그는 보료 위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몹시도 거북스러운 자세로 두 팔을 포개 베고 다리를 구부리고 있다.

"베개도 베지 않으시구."

미간을 모으고 송영호는 방안으로 들어섰다. 모처럼의 귀국이어서 되도록이면 한국식으로 꾸민 방에서 거처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역시 오랜 동안 침대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선지 몸을 누이면서 불편해 보인다. 그는 어느 뉘우침 같은 것을 느끼며 반침문을 열어 침구를 꺼냈다. 머리를 괴고 있던 팔을 빼어 베개를 들여밀으려 할 때 옆으로 뉘었던 몸이 약간 돌려졌다. 그러자 옆구리 밑에 무엇인가 구겨진 것이 보였다.

종이 조각이었다. 무엇인가가 적혀 있는 모양인데 웬지 섬찍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보고 지나친다면 그저 휴지 조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언지 드러나게 수선스럽고 불안한 데가 있다. 누군가의 격정(激情)이 엿보인다. 증오와 노여움과 두려움 같은 것을 촉발시키지 않고서야 한 장의 종이 조각이 그토록 찢기우고 무참하게 구겨질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송영호는 종이 조각을 그대로 두고 잠든 아버지의 몸에 이불을 덮었다.

방을 나온 후에도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아버지 호상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고 표정의 움직임도 별로 없다. 표정의 변화가 보일 때도 어쩐지 그것은 내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좋게 말하여 장중한 신사이고, 달리 말한다면 속을 재일 수 없는 음침한 성격이다. 그렇게 믿고 온 사람의 격정은 불안스러웠다.

송영호는 어두운 마음으로 누마루의 의자에 가 앉았다. 어쩐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는 등뼈가 무너진 것 같은 자세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정원에 눈을 던졌다.

가을이 짙다. 향나무 옆의 단풍 나무와 담을 덮은 담쟁이가 곱게 물들었다. 국화는 아직도 단아한 대로 만발이었으나 가을 장미는 피면서도 괴로운 모습이다. 잔디는 아직 푸르렀으나 조락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림자까지도 빨아들일 듯 강렬했던 태양이 이제는 고이듯 잔디 위에 잔잔하다. 향기로운 술처럼 가을 향기가 찬 속에서 그는 초조롭기만 했다.

모든 것이 예기한 대로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노독이 풀리는 것 같더니 안채에 들어갔던 날부터 다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찾을 옛사람도 많았겠지만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 떨어져 살면서도 깨어져 본 일이 없는 가족들의 단란이 없다.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에도 단 세 식구가 한 집안에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의 우울의 제일 큰 원인은 따로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선영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골 아주머니가 딴 곳으로 보냈나 하고도 의심해 보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은 참을 수 없어 애자에게 물어본 후였다.

"왜요? 집에 있는데."

애자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밝았다.

"학교에두 꼬박꼬박 나가는 모양인데요."

그녀는 묻지 않은 말까지 하였다.

"저두요. 방 하나 구했어요. 방골 아주머니는 잠자코 있지만 같이 가자구두 하지 않는데 따라가기두 싫구요. 또 같이 가자구 해두 이젠 혼자 자유롭게 살구 싶어요."

'자유롭게'란 말이 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미소로웠다. 생명(生命)이 바로 생활이며 그 인간(人間)인 그녀는 좀 어색한 말이지만 그대로 '자유인'이고 어디에서나 자유로웠는데, 그래도 자유로운 것을 원하고 있었던가.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미소했으나 방골 아주머니의 결심을 알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떠난다면 분열 상태에 있는 세 식구만 이 석류나무집에 남게 된다. 집의 넓이가 무섭다.

"집이란 사람이 휘구 살아야 되는 게유. 집이 사람을 휘믄 못쓰는게유"

하던 식모의 말이 실감으로 되살아났다. 이어 선영에 생각이 미치자 어쩔 수 없는 초조가 마음을 움켜잡는 것이었다.

그 뒤 그는 몇 번이나 방골 아주머니를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굳게 다물어진 조개와 같았다. 송영호는 흉칙하게 생긴 거대한 조개를 생각했다.

굳게 닫혀진 껍질 속에서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징그러운 조갯살이 꿈틀거리는 것을 상상하고 구토를 느꼈다. 그럴수록 선영을 그녀에게 맡겨 둘 수는 없었다.

그런 속에서 날이 갔다. 송영호는 문득문득 이국 속의 고향 바다를 그릴 때가 많았다. 마음에 구김살이 생길라치면 바다에서 지치도록 수영을 하여 육체의 피로와 바꾸어 버리던 것은 언제부터인가 생긴 버릇이었던 것이다.

송영호는 포켓을 더듬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잠이 들어 있는 아버지 방도 깨어 있는 어머니 방도

조용하다. 흡사 죽음의 집이다. 내려다보는 정원에도 산 것이 없는 것 같다. 바람도 죽어 나뭇잎 하나의 움직임도 없다. 무언지 꿈속만 같다. 자신의 마음이 달아나는 꿈을 꾼 일이 있다. 쫓아갈래야 오금이 붙고, 지나는 사람에게 호소를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초조로움, 안타까움이 현재의 심사와 같아선가.

그는 신경질적으로 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부벼 껐다. 그때였다. 오랫동안 닫혀만 있었던 일각문이 열리고 선영의 새하얀 모습이 나타났다.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선영은 느린 동작으로 문을 나와 쌍희(囍)자가 아로새겨진 수장(袖墻)옆에 가 섰다. 담과 지붕 끝에까지 쌍횟자를 새겨 길이 복되기를 기원한 집이었는데, 겪는 사연들이 흉흉하고 벅차기만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영은 정원에 깎아 세운 조상같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멀어 표정은 읽을 수 없었으나 슬픔이 뭉쳐져 그곳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처음날 그녀는 여기 누마루에 서 있었고 송영호는 그 수장 옆에서 음악이 느껴지는 우아한 집 모습이 끌려들었었다. 그날 어린 오기에 압도되었던 그는 지금 깊은 슬픔에 다시 압도되었다. 압도되면서 그녀를 놓칠 수 없다는 결의는 굳어만 간다.

송영호는 가만히 분합문을 열었다. 댓돌에 놓인 흰 고무신을 꿰고 다섯 벌 댓돌을 조용히 내려선다. 선영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선영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 속에는 다가오는 송영호의 모습은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솟았다 부서지는 분수와 그 옆의 석류나무들에게 눈길이 부어지고 있었다. 석류잎은 물들고 열매는 익어 빨긋빨긋한 알들을 드러낸 것도 보였다.

송영호는 선영의 옆에 가 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분수 쪽을 향하고 있었으나 입을 먼저 연 것은 그녀 쪽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원을 보고 싶었어요."

송영호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마지막?"

"네."

"무슨 의미죠?"

"내일이 음력으로 구월 스무날이라나요. 손 없는 날 떠나야 된다니깐요."

"선영씨!"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는 대꾸 않고 선영은 혼잣말처럼 뇌었다.

"선생님, 아저씨를 오늘만 정원에서 지내시게 해주세요. 모레부터 이 문 단속을 하시잖아두……."

"선영씨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 집은 선영씨 것입니다.

나는 선영씰……."

말이 끝나기 전에 선영이 몸을 돌렸다.

"그럼 아저씰 모시구 나오겠어요."

눈앞에서 환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환영이 아니었던 증거처럼 선영은 언제나처럼 헐렁한 한복 차림의 정충권씨의 손을 잡고 일각문을 다시 나왔다. 두루마기는 걸치지 않았으나 정충권씨는 말쑥한 마고자까지 입고 나들이 차림이다. 언젠가 정원에서 삼촌을 안으로 인도할 때도 선영은 뒤에서 몰 듯했지 손을 잡고 이끌지는 않았었다. 쌀쌀스럽던 그때 모습에 오히려 미소를 금치 못했던 것이었으나, 지금 겸손하게 세심하게 삼촌을 모시는 찬찬한 태도에는 여성의 가장 귀한 것이 느껴져 흐뭇했다.

"오랜만입니다.."

송영호는 부질없는 줄 알면서 정충권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충권씨의 텅 빈 눈이 어리둥절하면서도 희열에 차 있다. 그는 정원을 두리번거리며 더듬듯 정원 의자 쪽으로 발을 옮겼다. 노인이 항상 하듯 의자에 기대앉은 후에도 그들은 가만히만 있었다.

국화 화단 위에서 꿀벌들이 윙윙거렸다. 어디서 날아오는 것인지 떼를 지어 와서 꽃 속에 빠졌다가 다시 날아 오른다. 꿀벌들은 날으는 각도에 따라 까맣게도 하얗게도 보였다.

노인의 눈이 정원을 훑고 분수 쪽으로 갔다. 이윽고 그의 눈길은 석류나무들에게 못처럼 꽂혀 버린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석류알이 보이죠? 석류가 익었군요. 석류가 벌어졌어요."

소소한 바람처럼 애달픔이 느껴지는 음성이다. 송영호도 입을 열었다.

"언젠가 꿈을 꾸었죠, 이 집에서. 석류알이 익을 무렵 이 집의 참주인이 온다구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선영씬 이 집에서 자란 분이지만 내게 있어 선영씬 오늘 처음 이 집에 오신 거예요. 이 집의 참주인으루."

오랜 침묵 끝에 선영은

"전 내일이면 영원히 이 집을 떠날 사람입니다. 석류가 벌어질 때마다 아프게 그리게 되겠지만요."

"선영씨."

"용서하세요. 허지만 절 방골 아주머니의 손놀림으로만 움직이는 허수아비론 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방골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릴 마음대로 휘두르신 것 같지만 저는 다만 제 마음 속에 들어앉아 버렸던 것뿐이에요."

"알 것 같군요."

송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좀 어색한 말입니다만 그런 내재감(內在感)은 저를 채워 주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가득히 담고 있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파고들고 보니 거기엔 제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 누군가는 하나의 인격으로 참가하구 있었던 것이 아니구 제 자신을—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합니다만—굴절(屈折)시킬 어떤 중개물로서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제 자신을 빼구 보니 남는 것이 없군요. 텅 비워 버려서요."

송영호는 선영이 길게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었다. 더구나 내면(內面)을 드러내 보이리라고는 예측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라 오히려 당혹을 느꼈다.

"피로하신 모양이죠. 약간 과민해지신 것 같은데."

스스로 얼빠진 말이라고 생각하자 그는 더욱 당혹해졌다. 그러나 그 말은 선영의 귀에 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선영은 말을 이었다. 그것은 거의 독백이었다.

"스탕달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구 기억합니다. 마흔 살의 여인을 여인으로 인식하는 건 그 여인의 스무 살 때를 아는 사나이뿐이라구. 저는 겨우 스무 살을 넘겼지만 자꾸만 지나간 사람같이만 제 자신이 느껴졌었구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저의 '스무 살 때'를 아는 이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무 살 때' 라는게 별 것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건 깨우침이라기보다 어떤 상실(喪失)일지두 모르지만요."

"선영씨."

"다만 이 정원을 마지막으루 마음에 새겨 놓구 싶었어요. 그리구 저의 삼촌을……."

선영은 말을 끊고 눈을 깔았다. 긴 속눈썹을 섬세한 촉각 모양 하늘거리며 한손으로 삼촌의 어깨를 조용히 쓴다.

"그야말로 완전한 공백의 정신 속에서도 사랑하던 이 정원에 마지막으로 마음껏 있게 해 드리구 싶었어요."

"무슨 말씀을. 이 집은 선영씨의……."

송영호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시선을 그쪽으로 보낸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분합문 저쪽에 숨어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눈을 들어 집 쪽을 응시했다. 누군가가 다급히 모습을 감추는 것 같았다. 잔잔한 가을해나마 밖은 밝아 어두운 집 속은 분합 유리문에 수은처럼 받혀져 유리면에는 파아란 하늘과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높은 나뭇가지가 어려 있다. 어쩌면 구름의 흐름이 비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속으로 고개를 가로젓고 선영 쪽으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 아니었다. 집 속에는 분명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송호상씨와 그의 부인 박혜련여사가 각각 다른 창문을 통하여 정원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호상씨의 잠은 아들이 침구를 덮어줄 때 이미 어렴풋이 깨어 있었다. 괴롭게 꾸부리고 누운

까닭인지 괴로운 꿈을 단편적으로 몇 개 꾼 것 같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다. 깨어서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꿈은 어떤 의미 부여(賦與)를 강요하는 것 같지만, 꾼 생각만 나고 잊어버린 꿈은 찌뿌드드하다. 그는 깨고도 한참을 찌뿌드드한 대로 누워 있다가 일어난 것이다. 그때서야 옆구리 밑에 깔린 종이 조각 생각이 나고 그의 잠은 완전히 깨었다.

남의 면전에서 장중해 보이는 얼굴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워 보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번져 있었다. 외로움뿐이 아니고 괴로움 같은 것도 깃들어 있다. 어두운 두 눈은 반쯤감겨 있었으나 눈시울이 자꾸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궁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초조를 누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답답한 사람 모양 장지문을 활짝 열고 누마루로 나갔다.

순간 그는 정원의 세 사람을 본 것이다. 송호상씨는 아는 척을 하는 대신 반사적으로 벽쪽으로 몸을 패했다. 이어 몸을 돌려 방안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서도 그는 정원 쪽으로 난 창문앞에 가 앉았다. 창문은 순 한국식으로 덧문이 달리고 겹문이 있고 장지가 있고 갑창이 붙었다. 그 장지문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드나들 만큼 열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좀전에 자신이 그 문을 거세게 닫았던 것을 잊고 있었다. 문지방에 초칠을 한 여닫이가 수월한 문은 거세게 닫는 바람에 두 문짝이 부딪쳤다 힘이 남아 다시 약간 벌어졌던 것이다.

그 문틈 사이로 정원을 지켜보던 송호상씨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방안을 길이로 두어 번 왔다갔다했다. 그리곤 방 한가운데 가서 우뚝 서 버렸다.

박혜련여사는 남편의 그런 동작을 전연 모르고 있었다. 어디라고 꼬집어 말할 수도 없는 아픔이 전신에 번진 것 같아 그는 며칠 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는 역시 피로와 노독인 모양이라고 하였으나 병인은 좀더 먼 곳에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 다친 상처가 아니고 먼 옛날의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피부 밑에서 다시 아리기 시작한 아픔이라고나 할까. 아니, 어쩌면 그 상처는 한 번도 아물어 본 일이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다만 그것을 감추고 온 것에 불과하였던 것일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흔히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꺼리는 것을 감추듯이. 여인으로서 그것은 가장 소중했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것은 가장 꺼려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과거를 들춰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다. 어느 순간 어쩌다가 아픈 과거가 얼굴을 내어민다 하더라도 단편(斷片)에 머물게만 하여야 할 남의 아내였다. 추억의 전경(全景)을 펼쳐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끝내 조심스럽고 정숙한 아내이며 희생적이고 자애 깊은 어머니였다.

고국을 그렇게도 그리며 여태껏 귀국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도 아직 예민한 감성의 노화(老化)를 기다린 탓일지도 모른다. 어려서 받은 엄격한 유교의 가르침을 바닥하여 기독교의 준엄한 교리가 그를 굳히고 있었다. 마음 속에 명멸(明滅)하는 감정의 하나하나를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던 만큼 돌아오는 날부터 그녀는 어쩔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만 것이다.

대청에 걸린 그 프레고나르풍의 소녀상은 그를 중심부터 휘저어 놓았다. 한 폭의 그림 속에 한 여인의 역사의 전경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소녀상은 삼십여 년 전의 박혜련의 초상이었던 것이다.

로코코풍의 약간 속된 필치도, 화가가 연인을 그리며 달콤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그대로 붓끝에 깃들었던 것이라면 변명이 될까. 흰레이스의 숄을 손수 씌워 주며 '사랑한다'고 하던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써 온 삶이었다. 잊지 못하였기에 죄의식에 떨며 살아도 왔다.

그 그림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박혜련여사는 자신을 가눌 수가 없다. 과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심정이 괴로운 것이다. 괴로우면서 아쉬운 심정은 여인만이 아는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가족끼리 캐나다에 간 일이 있었다. 그곳에 사는 영호의 학교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였다. 늦가을이었으나 그들은 산에 올랐다. 산 위는 예상보다 추워 그들은 땅에 떨어졌던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웠다. 나뭇가지는 마른 것으로 알았는데 불을 붙이자 수피(樹皮)가 끓고 수액(樹液)이 번져 나왔다. 박혜련여사는 웬지 눈물겨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죽었던 것으로 알았던 나뭇가지에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의 그 아련하던 아픔과 감동이 혜련여사의 가슴에 자꾸만 되살아오는 것이었다.

그러자 혜련 여사는 다시는 그 그림 옆에 가 서려 하지 않았다. 정원에도 그날 이후 나간 일이 없다. 어떤 의구가 간단없이 머리에 떠올라와 그를 괴롭혔다. 안정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누워만 있기 때문에 심정의 병열은 더욱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주 성경을 들추었다. 이날도 나른한 몸을 일으켜 문갑 위의 성경을 집으려 하였던 것인데 아무 뜻 없이 유리창문 너머로 던진 눈길이 정원의 세 사람에 미친 것이다.

웬지 오한 같은 것이 박혜련여사의 등골을 달렸다. 전날 그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받은 충격은 노인의 모습이 수의를 걸친 채 일어난 주검 같았기 때문만은 아닌 성싶다.

두렵고 괴이한 모습이었으나 어딘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있었다. 아들은 그저 '안채에 사는 노인'이라고만 하였지만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쨌든 한 개의 주검이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말하자면 인생을 버렸으면서 더욱 인간사(人間事)에 얽혀 있다는 인상…….

그 노인이 젊은 한 쌍의 옆에 몸을 풀 듯 앉아 있는 모습은 기묘한 대조를 이루어 상징적인 것조차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다.

박혜련여사는 아들 옆의 소녀를 처음에는 애자로 알았으나 숙였던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소녀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아들은 이쪽으로 등을 보이고 있어 표정을 알 길 없었으나 전신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약간 꾸부린 부드러운 몸가짐으로 짐작이 간다.

"당연한 일이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녀는 혼자 뇌고 비로소 정원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은 차차 가라앉아 갔다. 저물기 쉬운 가을해가 기울자 달 없는 밤이 이내 어둠 속으로 묻혔다.

송씨 일가는 저마다의 생각에 잠기며 저녁 식사를 들었다. 식사가 끝나자 말없이 그들은 각기 자기 방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풀벌레 소리가 처량한 가운데 밤은 깊어 갔다. 언제나처럼 요란한 저녁 예배가 끝나고 종이 울리고 다시 풀벌레 소리가 두드러질 무렵 통금 예비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송영호는 파자마로 갈아입고 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는 통금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몸을 뒤채다가 스탠드에 불을 켰다. 읽다 덮어 두었던 책을 마저 읽어 버리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십 분이 채 못 되어 그는 책을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다.

정전이 된 것이다. 스무날 지난 달이 늦게나마 뜬 성도 싶은데 창밖은 칠흑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피로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감은 눈 속은 햇빛 가운데서 감을 때처럼 오렌지빛은 아니다.

박명(薄明)조차도 없다.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벌레 소리가 마구 부딪치며 굴렀다.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불이야, 불! 불!"

깨어지는 소리로 누군가가 소리쳤다.

송영호는 기계 인형같이 벌떡 일어났다. 처음 떠오른 생각이

'어머니!'

였다. 그는 어둠 속을 세간에 몸을 부딪치며 어머니 방으로 달렸다.

노아의 방주(方舟)처럼

석류나무집의 불은 안채의 일부가 탔을 뿐이다. 그러나 소사(燒死)자 한 사람, 중화상자 한 사람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충권씨가 죽고 송호상씨가 중화상을 입은 것이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당국이 조사중이었지만 사랑채에 거접하고 있는 송호상씨가 불이 붙은 안채에서 구출된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심중하고 중후한 인격으로 미루어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불붙은 안채로 뛰어들어가 정충권씨를 불 속으로부터 끌어내려 한 것이리라는 것도, 안채에는 아녀자만이 기거하고 있는 점에서 있음직도 한 일이어서 온통 붕대에 두루 말려진 모습을 지키는 시선에는 존경의 빛이 어린 것도 있었다. 거의 전신에 미치는 삼도(三度)의 화상으로 의사는 송호상씨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강한 진정제로 혼몽에 빠졌던 송호상씨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은 화재가 난 이튿날 오후부터였다. 그의 헛소리에는 자주 '충권'이라는 이름이 섞였다.

"자네를 모함한 건 아냐. 놈들이 거기 대기허구 있었다는 건…… 나두 몰랐었어."

이런 또렷한 말도 얼얼한 숱한 헛소리 가운데에는 있었다.

토막난 말을 이어 어느 심상(心象)을, 어느 엄청난 사실을 촌탁(村度)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송호상씨의 처절한 신음으로 이내 중단되곤 하는 헛소리에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것을 풍기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것은 점점 더 농후해 가서 이 죽어 가는 사람의 생애에서 가리워졌던 무엇인가가 벗겨지려는 것 같은 의구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전신의 삼분의 이 이상의 면적을 덴 그의 죽음은 학리적(學理的)으로 확정된 것이었으나 그는 죽지 않고 밤낮으로 제물에 지칠 때를 제외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같은 병동의 환자들이 불평을 하여 응급실로 옮겨진 후에도 그는 죽어 가는 맹수 같은 소리로 앓았다.

과묵하게 지난 일생에 못다한 발성(發聲)을 모조리 해 버리고 죽으려는 것이나처럼 그는 무거운 신음과 헛소리를 쏟았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 의사는 날마다 붕대를 풀고 약을 갈아 발랐으나 그것은 치료를 목적 삼는 것이 아니고 시체의 미란(靡爛)을 막는 것 같은 끔찍한 인상을 주었다.

아무리 덮어주어도 이불 밖으로 튀어나오는 몸은 이미 물체에 지나지 않았고, 그 물체가 함부로 지르는 고함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그 물체 속에 박혀 있는 죽음이 지르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한편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짧은 시간에 한 인생(人生)을 살듯이 붕대에 말리어 부르짖는 소리에 어쩌면 그의 인생이 요약되어 재연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내인 혜련여사나 아들인

송영호는 남편의, 아버지의 말을 그처럼 많이 들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그의 헛소리에는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엇갈려 두서가 없었으나 이 두서 없다는 것, 이것이 기실 인생이 아니겠는가.
 사실 붕대로 두루말린 송호상씨는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강한 진정제에 취해 들떠서 그만이 실감하는 세계를 헤메고 있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이 오히려 다시없는 아름다운 소중한 것으로 되살아나는가 하면 이내 평온하고 윤택한 성공 후의 생활이 어두운 구름에 눌리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충권, 충권"
하고 자주 부른 이름은 끝내 망각 속에 몰아넣을 수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 명문의 부유한 정충권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가지가지의 호의, 고달펐던 면학도 그의 도움으로 얼마만큼 수월해졌었다. 순진하고 재치 있고 명랑한 미청년 정충권—그는 송호상, 아니 송경빈에게 묘한 성적 충격까지 느끼게 하는 대상이었다. 그런 만큼 외롭고 불운하게 자란 그는 불운한 환경을 이겨 가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 비비 꼬이는 것이 매력이 되기도 하는 성격과 태도로 은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강압적이기가 일쑤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정에는 티가 없었던 것이었으나, 박혜련의 출현으로 송경빈은 그때껏의 모든 것을 버렸다. 즉 남의 위에 솟아 보겠다는 욕망도, 조국의 광복을 위한 운동도, 사람으로서의 신의도,
 그는 헛소리에서까지 말한 대로 정충권을 짐짓 함정에 빠트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친우를 판 게 된 것이고, '정충권은 죽었다'는 말로 혜련으로 하여금 모든 의지를 상실케 하였던 것이다. 민족 운동을 하던 그들이 유학중이던 동경을 떠나 상해로 간 이듬해의 일이었다.
 이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당한 혜련은 살아 갈 의지도 저항할 의지도 없었다. 그녀는 송경빈이 경멸조로
 "역시 부르주아의 자식이었어"
하는 말에 믿고 싶지 않은 의혹을 감취했다. 즉 정충권은 동지를 팔려다 처결된 것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뉘우침은 혜련이 정숙한 아내로서 자기에게 보인 깊은 신뢰를 확인한 후에 왔다.
 심중한 것으로 보인 성격의 뒤를 항상 고뇌가 받치고 있던 일생이었다. 날이 감에 따라 겉으로 덮은 것과 뒤를 받친 것이 하나가 되어 중후한 믿음직한 인물이 되어 가고 그만큼 과거는 망각 속에 잠겨 갔던 것이다.
 그 정충권을 아들의 집에서 다시 보았을 때의 경악—너무나 심한 변모에 옛 연인을 인식은 못하는 대로 야릇하게 수척해 가는 아내의 눈이 그는 무서웠다.
 이미 주검이 된 정충권을 아주 없애 버리고 싶었던 것은 범죄자의 심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채찍질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단 남의 집에 침입한 범죄자는 주인과는 아무 연관도 없은 그 집 식모까지 죽이는 수가 있다. 현재의 정충권은 그런 경우의 식모 구실도 못하는 주검에 지나지 않았건만 미수자(未遂者)는 불안했던 것이다.

저미는 것 같은 화상의 아픔, 진정제로 가물가물하는 의식 속에 그날 밤 일이 흉몽같이 떠올라 오면 그는 치명상을 받은 맹수처럼 끔찍한 신음 소리를 냈다.

—열두 시 통금 사이렌을 팽팽하게 당긴 활시위 같은 긴장 속에서 기다렸었다. 한참을 그런 상태에서 지나다가 그는 몸을 일으켜 소리를 죽여 문을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맨손이었다. 그 맨손이 당수이단의 손이고 보니 곧 무기였던 것이다. 며칠 전부터 눈여겨 두었던 트랜스 쪽으로 곧장 가서 두꺼비집을 열었다. 달도 별도 없는 밤은 칠흑 속에 집 전체를 삼킨다. 그때 조심스럽게 불빛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는 방이 눈에 들어왔다.

전등불이 꺼진 후 곧 촛불을 켠 모양이다. 덧문이 아직 열려 있는 장지에 조각 같은 노인의 옆얼굴이 그림자로 어려 있다.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으나 한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더듬지 않아도 목적한 곳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날이 새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리에 눕는다는 일상(日常)은 정충권씨로부터는 이미 떠난 지 오랜 것이었으나 그날 밤 자정이지만 정전에 촛불이 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기막힌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소슬한 바람은 덜미를 써늘케 할 정도였으나 송호상의 몸은 몹시 떨렸다. 그는 잠잠히 잠든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을 켜진 채 노인의 그림자가 장지에서 사라졌다. 누운 것인가.

방마다 불이 꺼졌을 뿐 아니라 방마다에 사람들은 잠이 든 모양이다. 송호상은 한 번 크게 몸을 떤 후 발소리를 죽이며 불빛이 번져 나오는 방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장지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바람에 촛불은 길게 늘어났다 움츠러진다. 그 불빛을 흐릿하게 받고 정충권씨는 누워 있었다. 밤중에 들어서는 사람을 보고도 놀란 기색은 없었다. 움푹 꺼진 눈은 온통 컴컴한 그늘이어서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송호상은 그의 귀 밑을 겨누어 억센 손으로 내리쳤다. 일격에 황소도 쓰러진다는 손 힘이었다. 그러나 순간 죽은 듯이 누워 있던 노인의 자세가 갑자기 바뀌어 손은 어깨를 내리쳤다.

우지끈 소리가 난 것은 이미 석회(石灰)만 남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였으리라. 주검이나 진배없는 노인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치명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정충권씨가 무서운 힘으로 송호상씨의 다리를 껴안았던 것이다. 상반신을 일으키는 바람에 머리맡의 촛불이 쓰러져 옆에 있던 휴지뭉치에 불이 붙었다.

당황해진 송호상씨는 발로 그 불을 뭉개려 하였으나 다리를 껴안은 힘은 철테같이 세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욱 당황하여 끄려 하던 손짓은 오히려 부채질이 되어 불은 방장에 붙고 장지에 붙어 확 타올랐다.

"불불, 불이야!"

송호상씨는 신음하듯 외쳤다. 다리를 조인 힘은 그래도 풀리지 않았다. 주검이라고 보고 왔던 육체는 아직도 생명체(生命體)였던 것이다. 자기 방위의 본능이 그 생명체의 원시성(原始性)위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정충권씨의 손은 불의 광란하는 혓바닥이 그의 머리를 핥자 비로소 늦추어졌다.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두 노인은 모두 불에 싸여 있었다.

고열과 노호(怒號)같은 신음 소리와 헛소리로 낮과 밤이 지났다. 송호상씨의 질긴 생명은 좀처럼 끊어질 것 같지 않았다. 간호라고 할 일은 별로 없었다. 가족들은 그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소란을 떠는 환자 때문에 병원에서도 기를 펴지 못했다. 방화 책임자로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온 송영호는 하룻밤을 새우고 어찔한 머리로 복도에 나갔다가 옆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이가 그 영감 아들이래."

"기가 차겠구나."

"원 고함 소릴 들으니 쉽사리 죽을 것 같지두 않구먼, 아흔은 살 것 같애."

"고함을 지르면서……."

"원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어젯밤은 우리두 뜬눈이야."

"재수없게 하필이면 이 병동이야."

"처음엔 저 병동에 있었는데 너무 소란을 떨어 응급실에 옮겼다지 뭐야."

송영호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고 현관을 나섰다. 정충권씨의 장례, 불탄 자리의 정리, 그런 것보다 화재 발생의 원인 규명, 인책 등으로 그는 괴롭게 바빴다.

박혜련여사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정충권씨라는 것을 알자 실신하였으나 정신을 돌리고부터는 들들 볶다시피 보채는 환자의 뒤를 묵묵히 보살펴 주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늙고 수척한 그녀는 무표정한 채 말이 없었다. 가벼운 슬픔은 말하고 깊은 슬픔은 말을 잃는다는 옛말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조용하여 오히려 벅찬 것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 엿보여 애처로웠다.

동지를 팔려다 오히려 처결되었다는 정충권씨가 심한 고문에도 굴치 않고 절개를 지키려다 산송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첫사랑이 자랑스러웠던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남편을 같은 저울위에 얹어 놓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다. 잊지 못해 온 첫사랑이었으나 남편에게 바쳐지는 애정도 못지않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아프게 깨달은 것이다. 여심(女心)은 맑은 것과 궂은 것으로 채워졌다가 구멍이 뚫려 이제는 빈 폐허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같이 소리를 지르는 남편 곁에서 정충권씨의 장례가 끝났다는 전갈을 들었다.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건 처리의 보고에 지나지 않았고, 듣는 혜련여사도 예의로서의 애도를 표명했을 따름이었다.

"경찰이 시끄러워서요. 네, 화재 원인 때문이죠."

"수고허십니다."

조용히 말하고 박혜련여사는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인(火因)을 아는 것은 흰 붕대 뭉치가 되어 버린 남편과 자기뿐이라고 생각하자, 여심(女心)의 폐허를 바람이 불고 스쳐 가는 것 같았다.

악을 쓰던 송호상씨의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던 날 밤 선영이 애자와 함께 문병을 왔다. 둘이 다 새하얀 소복 차림이었다. 박혜련여사는 아들이 자리에 없는 것이 서운했다. 선영의 문병은 시달리는 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영이 그림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던 혜련여사는 역시 미술 전공이던 정충권씨의 혈연을 짙게 느끼고 쓰라림 속에서도 기대 같은 것을 갖는 것이었다.

두 소녀는 붕대에 두루말린 물체를 두려움에 찬 눈으로 보고 말이 없었다. 가지고 왔던 흰 국화를 병에 꽂은 것은 선영이었고, 애자는 들고 왔던 과일을 창 앞에 놓았다.

송호상씨는 그들이 돌아간 후 얼마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영호는 역시 경찰에 출두하여 없었고, 혜련여사와 비서가 병원 사람들하고 임종을 지켰다. 송호상씨는 뜻하지 않게 고국땅에 묻히게 된 것이다.

친척들은 없었으나 광산 관계의 인사들이 모여든 꽤 성대한 장례식 뒤를 훤칠하게 본 것은 역시 방골 아주머니였다. 그도 이 며칠 사이에 눈을 뜨이도록 여위었다. 어떠한 일에도 동해 본 일이 없던 그도 정충권씨의 죽음에는 눈물을 쏟았다. 충권씨는 어머니의 궤연(几筵)이 철하기 전이기도 하였지만 성례도 하여 보지 못한 고혼(孤魂)이 되었던 것이다.

집의 일부분이 탔건만 오히려 방골 아주머니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사를 하려던 바로 전날 소동이 일어났던 까닭에 흐지부지가 되었다면 그만이지만, 모든 일이 처리된 후에도 이사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은 그녀대로의 심려에서라고 볼 수 있었다.

시월이 저물었다. 비가 오가며 구질거리던 날이 개어 봄날처럼 다사로운 날, 송영호는 장례에 애썼던 사람들을 모아 사의를 표했다.

정원에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서 불고기를 구웠다. 전에 없던 일로는 방골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식모들을 지휘하며 시중을 들었다.

선영이 혜련여사에게 식혜를 갖다 권했을 때 혜련여사의 얼굴에는 사건 이래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애자가 사과 껍질을 벗기며 느닷없이 말을 던졌다.

"실은 전 오늘 떠나기루 되어 있어요."

"떠난다구?"

혜련여사가 눈을 크게 뜨자

"네,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마련했어요. 요즘 생미(生活美術)가 각광을 받게 돼서요. 독립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림방이 뒤에 붙어 있어요."

"집이 쓸쓸해지겠군."

"놀러 오죠. 뭐 한 서울인데."

그러자 술이 거나해진 전 상무가

"실례올시다만 송 사장님두 이 집을 처리허시죠. 뭐 미신을 믿으시라는 건 아니지만서두요."

송영호가 말을 가로챘다.

"흉가란 말이죠?"

어조가 너무 강하여 전 상무는 어리둥절하며

"네"

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다.

"흉가—나는 그런 말을 믿구 싶지 않아요. 이 집은 이렇게 아름답구 내 마음을 끌구, 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 집이니깐 떠날 수 없어요. 그들이 돌아가신 집이니깐 끔찍하다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숨져 가신 곳을 버리기 싫은 것도 이치가 될 것 같아요."

송영호는 말을 끊고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나는 저 불탄 곳에 다시 집을 짓겠어요. 이 집에 아직도 흉의(兇意)가 깃들어 있다면 그것두 용납하겠어요. 흉의와 선의 소재(所在)와 부재(不在)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를 언제인가부터 그려 오게 되었어요. 노아의 방주(方舟)속에 사람을 비롯하여 무릇 동물과 물고기 씨알들이 담겨져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이집에, 이 세계에 몸을 의탁하여 가렵니다. 흉한 것이 있다는 것은 또 축복된 것, 선한 것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신은 선과 함께 악도 용납한 거니깐요. 저는 그런 알 수 없는 섭리를 따름으로써 삶을 긍정해 보겠어요. 전 운명이란 말을 싫어하지만 참답게 산다는 건 어쩌면 그 운명으로 인하여 깊이 상처를 입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송영호는 이 긴 말을 띄엄띄엄 말하였다. 하는 말보다 마음 속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질 듯이 말한 것이다.

그의 매끄러웠던 이마에는 가는 줄이 하나 보일 듯 말 듯 가로질러 있었다. 며칠 사이에 그의 성격은 평면(平面)적인 것으로부터 좀더 음영을 지닌 것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박혜련여사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으로 인하여 깊이 상처를 입는 것이 어쩌면 참답게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이다. 주체성(主體性)없는 삶이었을지 모르나 살아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이룩함이 아니겠는가.

송영호는 목을 축이고 나서

"이제까지는 기묘하게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 의식되지 않았지요. 어딘지 얹혀 사는 것 같은 거북함이 있었어요. 난 고국을 모르는 탓으로 그런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 보니 전 상무의 말씀대로 흉가인 이 집에는 흉의(兇意)라는 것이 주인이었고 나는 그런 뜻은 명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나마 막연히 자기를 굽혀 온 것 같아요. 허지만 지금 나는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돈으로 산 것이니깐 내집—이런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 집에 내가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주인입니다."

전 상무가 맥주잔을 들고

"그럼 축배합시다."

어색하게 말했다. 어색은 하였으나 그것을 계기로 자리는 흥성거려 왔다.

제일 많이 마셨으면서 가장 취기가 보이지 않은 재민은 방골 아주머니 옆에 가서 망설이다가

"박창근군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대요. 전연 모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브라질에서 편지가 왔었어요."

낮은 소리였으나 선영의 귀에 들어갈 만큼은 소리가 굵었다.

송영호는 선영 옆으로 가서

"선영씨, 이 집은 내가 혼자 갖기에는 너무 커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선영은 그 시선을 피하여 눈을 깔았으나 얼굴에는 몸매에도 부드러움이 흘렀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여 분합 유리문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애자가 콜라 글래스를 테이블에 놓으며

"전 가 봐야겠어요. 짐이 있으니까 너무 늦으면 어려울 테니깐요."

"차로 실어다 줄 테니 서둘지 말아요."

송영호가 말했다.

"가는 것보다 가서 말이죠."

"그럼 이건 애자양의 송별회가 된 셈이군."

"네, 고마웠어요."

애자가 밝게 웃었다.

애자가 안채로 통하는 일각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던 재민은 갑자기 몸을 돌려 그녀 뒤를 따랐다.

"내가 짐 들어다 주겠어. 기다려요."

그는 달려가서 반쯤 닫혀 있던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안으로 사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다.

넘어가는 해는 분합 유리를 빛내고, 솟아올랐다가 부서지고 하는 분수 물에 무지개빛을 뿌렸다.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 왔으나 아무도 움직이려는 사람은 없었다.